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연구 결과보고서

1945
—
2014

자료보존 현황과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_

제출문

본 보고서를 연구 용역 과제인 “K-Design 근현대디자인사 연구”의 최종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국 디 자 인 사

역사는 지난시대에 대한 기록으로 객관적 기록과 주관적 기술이 있다. ‘역사는 현재의 눈을 통하여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dward Hallett Carr)는 말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역사는 과거를 보는 사가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집필이 가능하나 사료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에 충실할 때만이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다. 역사를 기록하는 통례적 방법은 시대별 흥망성쇠에 따른 변천과정의 연대기적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디자인 역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 제도권 디자인 교육정책과 전문 인력의 배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과 변화, 디자인 관련 협회활동, 기업의 디자인 활동 등의 시너지 효과가 디자인의 성장 발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디자인 역사는 연륜이 짧고,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의 속성에 기인한 사료의 부족이 연구의 한계와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디자인사에 대한 연구는 사실에 대한 객관성 결여와 사관의 섣트 의식과 편견, 역사의식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한국디자인사 연구는 이시대의 당면 과제이다.

디자인사의 핵심은 시대를 이끌어온 사람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디자인을 교육받고 활동해 오면서 한국 디자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디자인 1세대의 소중한 경험과 행적들 하나 하나는 우리나라 디자인의 산 역사다. 그들이 하나 둘 디자인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생생한 체험과 육성 기록들로 한국 현대 디자인사는 재조명되어야 한다.

총괄자문위원

권명광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목차

사업 요약 · 4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2.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박물관, 아카이브

- 1) 국내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8
 - (1) 공공기관의 보존 현황
 - ① 국립중앙박물관 · 9
 - ② 국립민속박물관 · 13
 - ③ 국립한글박물관 · 17
 - ④ 청주고인쇄박물관 /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 · 23
 - ⑤ 한국광고박물관 · 26
 - ⑥ 서울역사박물관 · 30
 - ⑦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33
 - ⑧ MOA(서울대미술관) · 36
 - (2) 사적 보존현황
 - ① 근현대디자인박물관 · 40
 - ② 삼성출판박물관 · 44
 - ③ 스페이스C · 48
 - ④ 호림박물관 · 52
 - (3) 기업의 보존 현황
 - ①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 56
 - ② 서울디자인박물관 · 61
 - ③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MI) · 64
 - ④ 현대모터스튜디오 · 70
 - (4) 결론과 제언 · 75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 문헌자료 보존 및 연구 현황

- (1) 단행본 · 82
- (2) 논문 · 83
- (3) 보고서 · 84
- (4) 정기간행물 · 98
- (5) 기타 : 도록 · 103
- (6) 결론과 제언 · 106

3) 국외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박물관/아카이브)

(1) 유럽

- ①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 108
- ② 대영박물관 · 112
- ③ 영국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아카이브 · 115
- ④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 117
- ⑤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 119
- ⑥ 네덜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 122
- ⑦ 네덜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 124
- ⑧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 125
- ⑨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 126
- ⑩ 국립독일박물관 · 130
- ⑪ 뮌헨 BMW 박물관 · 132
- ⑫ Benz 박물관 · 135
- ⑬ 독일미술공예박물관 · 138
- ⑭ 이탈리아 트리에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 141
- ⑮ 오스트리아 뮤지엄콰트리에 빈 박물관 · 144
- ⑯ 프랑스 퐁피두 센터 · 148
- ⑰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 151
- ⑱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 154
- ⑲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 157

(2) 미국

- ①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 161
- ② 뉴욕 현대 미술관 · 167
- ③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 170
- ④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 174

(3) 일본

①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 177

② 인쇄박물관 · 180

③ 21_21 · 182

④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 186

(4) 결론과 제언 · 192

3. 한국근현대디자인사 흐름 및 주요 이슈

1) 시기별 주요 사건 요약

(1) 1945-1950 · 195

(2) 1951-1960 · 199

(3) 1961-1970 · 201

(4) 1971-1980 · 207

(5) 1981-1990 · 209

(6) 1991-2000 · 213

(7) 2001-2014 · 218

(8)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주요 사건 연표 · 224

2) 한국디자인사의 시대별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

(1) 한국디자인 전사 개괄(일제 강점기부터 8.15 해방) · 228

(2) 태동기 1945-1970 · 228

(3) 발전기 1971-1990 · 230

(4) 정착기 1991-2010 · 231

(5) 요약 다이어그램 · 235

(6) 결론 및 제언 · 238

4. 결론 및 제언 · 240

부록

디자인 인접분야 주요 사건 연표 · 247

참고문헌 · 260

그림목차 · 265

표목차 · 282

자료출처 · 283

사업 요약

1. 사업명 : K-Design 근현대사 연구

2. 기간 : 2015. 4. 16 ~ 2015. 7.31

3. 주요 내용

- 한국의 근현대 디자인 역사 보존 및 연구 현황 조사
- 기초 문헌 및 자료 분석
- 해외 디자인 분야 및 타 분야의 역사 보존 사례에 대한 조사
- (시대별 주역) 그룹 인터뷰를 위한 전문가 지정

4. 연구 범위

- 한국의 근현대 디자인 역사 보존 및 연구 현황 조사
 - 박물관, 아카이브 등 한국 근현대 디자인 보존 현황 조사
 - 디자인 외 타 분야의 자료 보존 현황 조사
- 기초 문헌 및 자료 분석
 - 단행본, 논문, 기사, 잡지, 각 협회 자료, 개인소장 자료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전반적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파악
- 해외 디자인 분야 및 타 분야의 역사 보존 사례에 대한 조사
 -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외의 디자인 역사 보존 및 기록 사례, 타 분야의 역사 보존 사례에 대한 조사
- (시대별 주역) 그룹 인터뷰를 위한 전문가 지정
 - 시기별 디자인계 주요 사건 흐름 조사
 - 한국디자인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가 리서치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디자인이 한국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디자인’의 역사와 정체성이 모두 기록·보존된 자료는 거의 없다. 1974년 권명광의 「한국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형성과 그 전개」라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1990년이 지나도록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차츰 디자인사 연구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 저변이 아직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아 현재 공개된 한국디자인사 연구 논문, 저서 등은 개인적인 역사관과 해석, 단편적 주제 및 통사적 접근 위주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자료의 보존이 요구된다.

역사 연구는 자료발굴과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디자인 자료 발굴 현황은 더욱 빈약하여 문헌에 인용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중복되고 단편적이어서 자칫 한국디자인사의 관점이 얇고 단조로워질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디자인 역사 연구 폭을 확장시키고 다각화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디자인 연구와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종합적인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근현대에 활동했던 원로 디자이너들의 증언과 묻혀있는 디자인 자료 수집,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역사 기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 ‘근현대디자인’은 한국디자인사의 큰 맥락 안에서 현시대가 디자인 사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이다. 따라서 한국디자인 전체 역사 자료 발굴과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근현대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파악과 심화 연구를 위한 열개 도출’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기록 유산의 가치는 감추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의 첨삭·변형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 것에서 시작한다. 현재 한국디자인 자료 보존현황과 연구의 현실을 인정하고, 진일보하는 미래를 위하여 기초를 구축하는 선행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표는 한국 근현대 디자인 자료 보존의 현황 파악과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구조 정립 및 기록과 함께 디자인사의 주요 아젠다와 인물을 통한 열개를 도출하여 후속 심화연구의 토대를 구축함에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범위

한국 근현대 디자인 역사 기초 연구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 자료의 시기는 1945년 해방 전후부터 2014년도까지, 분야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으로 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은 한국역사의 특수성으로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공예 작업방식이 1950년 이후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디자인과 공예는 혼재된 분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디자인의 초기 전개 과정 연구에서 공예의 일부분이 포함된다.

2) 방법

(1) 2장의 국내외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에 대한 연구는 크게 2가지로 진행하였다. 첫째, 박물관과 아카이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파악, 둘째, 단행본, 논문, 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기사 등 문헌분석이다. ‘디자인 전문’에 해당되면서 현재 확인 가능한 공개된 박물관은 하나이다. 선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의 자문에 따라 디자인사료 발굴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디자인 및 디자인 인접 분야,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계의 박물관이며, 운영 및 설립 주체를 공공기관, 사적기관, 기업으로 세분화하였다. 박물관 현황은 현장 조사에서 파악된 점, 해당 기관의 사이트, 발행 책자와 홍보물, 관련 정보가 수록된 사이트의 자료를 종합하였으며 이미지는 직접 촬영 및 해당 기관 사이트, 홍보물, 문헌 자료 등에서 인용하였다. 박물관의 수는 사업기간 3개월 내에 가능한 범위를 감안하여 정하였다.

(2) 일반 박물관이나 아카이브에 비해 디자인 문헌 자료 보존 양이나 공개가 한정되어 있다. 내용은 작품 관련 정보,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 한국디자인사 연구 관점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텍스트이다.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기사, 작품집을 중심으로 각 미디어에 실린 디자인 자료 현황과 한국디자인사 연구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의 ‘내용’보다 자료보존과 연구가 진행된 ‘현황’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3) 해외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에 대한 연구는 국내와 비교하기 위해 역시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보다 현저히 많은 기관이 있으므로 선행연구인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참고하여 디자인 전문 자료 보존기관을 선별하였으며 기업에서 운영하는 박물관과 디자인 자료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추가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첫째, 각 기관의 사이트나 온라인 리플렛, 둘째, 앞의 선행

연구 일부,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기사, 관련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종합하여 디자인자료 보존 및 아카이브 현황을 정리하였다.

(4) 3장의 근현대디자인사 흐름 및 주요 이슈는 각 시대별 주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945년부터 2014년까지 흐름은 문헌 자료를 토대로 종합하여 주요 사건과 맥락을 정리하였다. 한국디자인사의 시대별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은 현 상명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총괄자문위원인 권명광이 작성하였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이, 교육, 산업, 협회, 정책 등 디자인 및 디자인 인접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지속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국내외 박물관과 아카이브 현황 조사에 사용한 이미지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기사에서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미지는 연구보고서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문헌과, 그림, 표의 출처 및 목록은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여 출처를 밝혔다.

2.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박물관, 아카이브

한국의 디자인 사료 보존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무렵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박물관은 인류문화예술유산을 보존하고 과학적인 보호 시스템과 콘텐츠의 활용 및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디자인’ 전문 박물관은 개인(소장 : 박암중)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사설 근현대디자인 박물관이 유일하다. 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680여 개(2015.7.31. 기준)의 박물관에서 디자인을 콘텐츠로 하는 박물관은 2곳이며 그 중 한 곳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인데 박물관이 아니라 대관 전시 위주의 미술관이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현재 전문화 수준이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유리창 너머 진열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고 보존 관리 상 외부와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어떤 기관이든 디자인사료가 빈약하여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 대상인 박물관은 디자인 사료 보존의 유무가 우선적이며, 그 외 디자인 인접 분야 및 제품에 디자인 반영 비중이 큰 산업계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박물관도 포함하였다. 문헌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현대디자인 자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직접 나간 이유는 이 자료들에 인용된 디자인사료가 중복된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한국디자인사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지엽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 많은 수의 박물관에 현장 조사를 나가지는 못하였으나 조사 결과의 공통점은 사이트, 책자, 기사, 홍보 등에서 소개하는 ‘디자인 사료의 우수성, 한 눈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 폭넓은, 수준 높은’ 등의 다소 과장된 설명과는 달리 부분적이고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개별 소장품에 그친다는 점이다. 근현대 디자인박물관 외에는 ‘디자인 전문’ 박물관이 없으므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 사설(개인), 기업 박물관 순으로 기술하였다.¹⁾ 그리고 각 박물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 보존 자료와 디자인 자료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추가하였다.

해외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못하였으므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고 기본적으로 각 박물관이나 아카이브의 사이트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홍익대학

1) 서울디자인박물관은 외부인에게 개방 불가,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기업에서 외부인 방문을 일시 중단하였으므로 현장조사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존 자료 및 담당자와 정보교환으로 대체함.

교에서 진행한 선행연구인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²⁾와 정기간행물, 정보 검색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1) 국내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1) 공공기관의 보존 현황

①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2005년 용산에 신축이전하기까지 한국 최대 규모와 전문성을 이루어왔다.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유적을 소장함은 물론 고증과 과학적인 보존, 학술연구, 문화행사, 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6개의 상설전시관과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전시안내프로그램,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들, 각종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 특징

- 서울에 위치한 중앙박물관 외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과 연계하여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편화시키고 있다.
- 총 소장품은 346,126점이며 6개의 관과 50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전시장에서 총 12,799점의 유물을 전시하며 전시물은 외부전시일정 및 유물의 보존 상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해마다 변경되는 유물의 규모는 국립중앙박물관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
- 1960년대부터 발간한 ‘미술자료’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의 이름으로 해외저널 발

2)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안상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기간 2011.12.27. ~ 2012.03.25.

3) 국립중앙박물관, 2013 국립박물관 연보, 국립중앙박물관, 2014

간도 시작하였다.

- 이미지와 학술자료는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누리마크를 표시하면 허용범위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의 박물관학 관련 단행본 100,000여권, 학술저널 38,000여권, 고서 428점, 멀티미디어 자료 3,500여점 등 총 145,000여 점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전체 소장품 중 일부) 검색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전문가라도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으며 국외의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도 링크시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아시아학, 보존과학, 일제강점기 자료연구 등 분야를 전문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상당히 큰 뮤지엄샵에는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인의 자료는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자료 수집 범위 시기가 구석기부터 1900년대 이전까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근현대디자인사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둘째, 현재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공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예 역시 미술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 일제강점기 자료연구에서 당시에 발간된 문헌자료, 기구, 공예 등에서 근대디자인 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제언

- 일제강점기 자료연구에서 일부 근대디자인 사료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과 일제강점기 시절의 유물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관점에 의한 자료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 국내 역사 자료 보존 및 연구, 지원, 공개 등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추후 디자인 사료 발굴은 물론 복원, 아카이브, 연구 진흥 및 지원, 사료 해외 교류 등과 관련된 협조 및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선사고대관 구석기실 · 신석기실



그림 2. 금속공예실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 기획특별전 '조선청화백, 푸른빛에 물들다'



그림 4. 기획특별전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946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문화, 정치, 경제 등 한국인의 일상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한다는 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차이가 있다. 한반도에 정착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한국인의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생활 문화 기록도 병행하고 있다. 의식주는 물론 음악, 운동, 취미, 신앙, 풍속, 축제 등 문화 일반 전체에 해당하므로 광범위한 주제로 자료를 발굴, 수집, 조사, 전시, 국제교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특징

- 1900년대 이후 한국의 전통민속문화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보존, 연구를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정기간행물 ‘민속연보’와 웹진으로 박물관의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시각자료 뿐 아니라 음악, 소리와 같은 청각자료도 해당되므로 영상 채널 ‘민속 +人’으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 의식주 및 상업, 농업, 상업 외에 음악, 미술, 운동 등 일상과 전통문화에 대한 유물을 118,766점(2015년 1월 기준) 상설전시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일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획전으로 공개되지 않은 소장품을 선보인다. 특히 기획전은 국립박물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초청해 기획전의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를 한 장소에서 관람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상설전시나 기획전의 도록을 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특별 촬영이나 자료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 새로운 자료 수집과 보존에 대하여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민속박물관의 자료는 아카이브로 체계화시켜 박물관에서 직접 찾아보거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 경복궁 내에 있어 내국인 외에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1900년대 이후 자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므로 근현대한국디자인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건축·실내디자인, 패션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방면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 지나간 시기에 등장한 디자인의 주변상황이나 사회적 배경, 인접 분야 등에 대한 자료

를 접할 수 있다.

– 기획전이나 출판물에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문이나 칼럼을 제공하고 아카이브 체계가 전문화되어 있어 연구로 적용할 정보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 제언

–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는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소장품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야별, 시기별, 주제별 등 디자인 사관에서 분석하고 체계화시키기에 방대한 자료의 양은 행정적, 비용의 지원과 함께 시간과 연구 인력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 국립박물관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정보 추적이나 자료 활용이 용이하다.



그림 5. 1970년대 안방



그림 6. 주생활용품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7. 소주병



그림 8. 1965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분유



그림 9. 새마을운동 노래, '새마을의 합창' 레코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0.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47대를 납품한 삼성전자의 핸드폰(SH-100)



그림 11. 해태제과 제품과 패키지디자인



그림 12. 영화포스터카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③ 국립한글박물관 www.hangeul.go.kr



세계 유일의 글자 창제자와 시기가 분명한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유산을 알리고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2014년 10월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이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 재단, 학회, 개인 등을 통해 한글 유산 발굴과 보존, 연구가 진행되어왔던 것에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어 한글의 사료 발굴과 보존, 연구 및 홍보에 힘을 신게 되었다.

■ 특징

- ‘한글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상설전시를 하고 있으며 대관 및 기획 전시로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등과 같이 한글과 관련된 소주제로 한글 문화를 알리고 있다.
- 연령층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직접 글꼴 디자인과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소장품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 전시 도록이나 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도서관 한글누리를 운영하여 자료 검색 및 대여를 실시한다.
- 인형극, 연극, 음악 등의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한글박물관에는 의외로 디자인 자료가 많지 않다. 최근에 개관하여 소장품이 충분히 누적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한글 창제 및 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유물이 대부분이며 책자나 서신의 비중이 높다.

■ 제언

- 미디어의 콘텐츠는 그래픽에 의해 시각화되는 만큼 한글이 보편화되고 지금까지 제작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많은데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인쇄물과 책자, 포스터, 영상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자료들 중에 현재까지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소장품이 전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 조선시대의 책, 서신, 그림, 도자 등도 그 당시의 미디어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인 만큼 현재와 큰 차이는 없다. 불과 100여 년 전 인쇄된 책, 신문, 엽서, 포스터 등을 유물로 소장하고, 기증받거나 구매하는 것처럼 디지털미디어로 전이되는 시점에서 인쇄미디

어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 사료를 발굴해야 한다.



그림 13. 한글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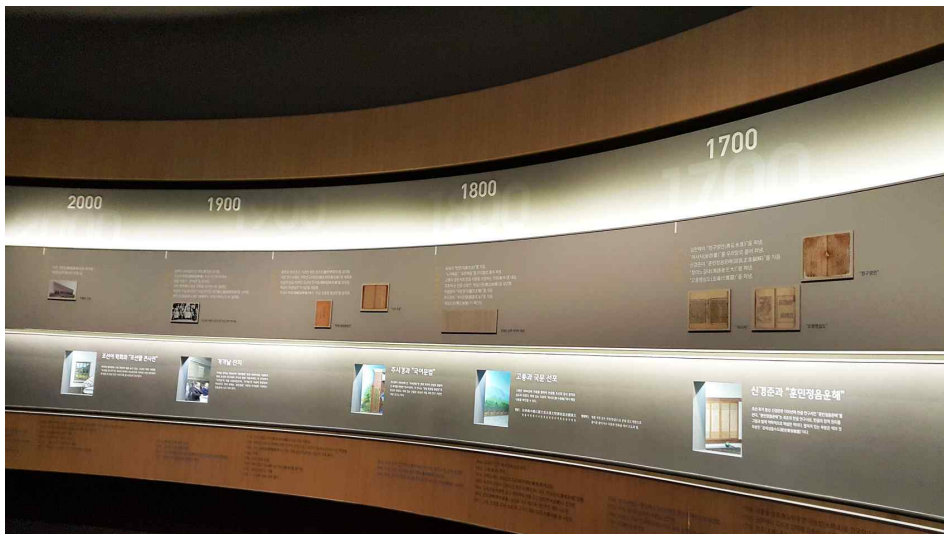


그림 14. 한글의 역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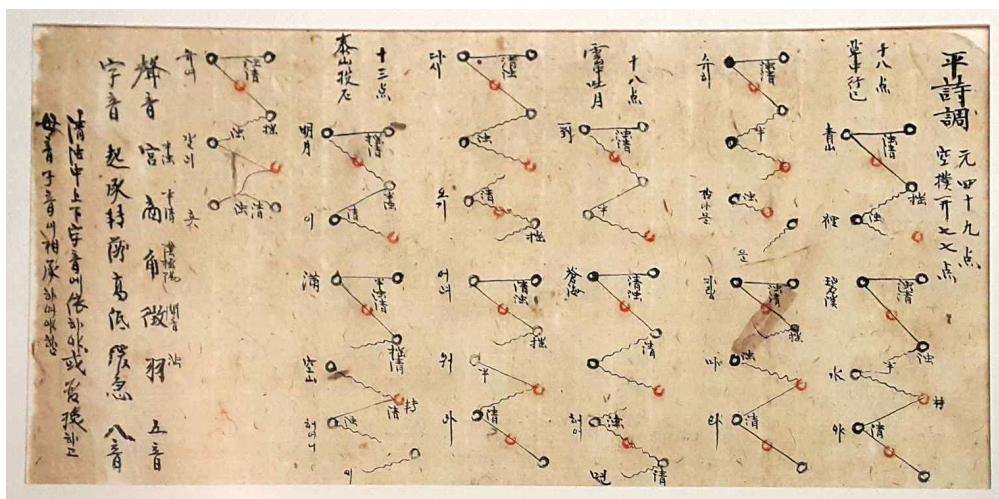


그림 15. 시조창 약보,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6. 삼강행실도 언해



그림 17. 도화수-자수 밑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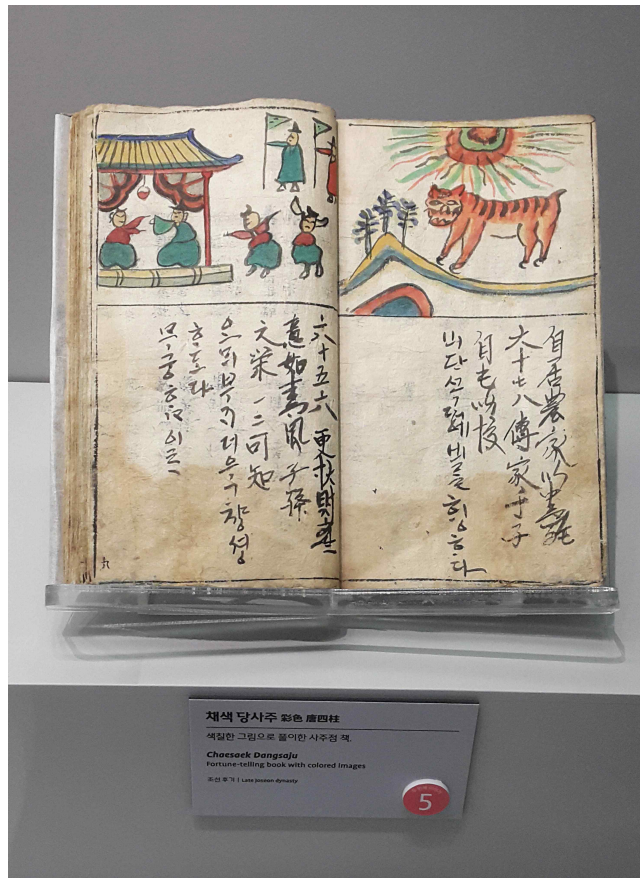


그림 18. 채색당사주



그림 19. 청화백자-시계단지(식해단지)-20세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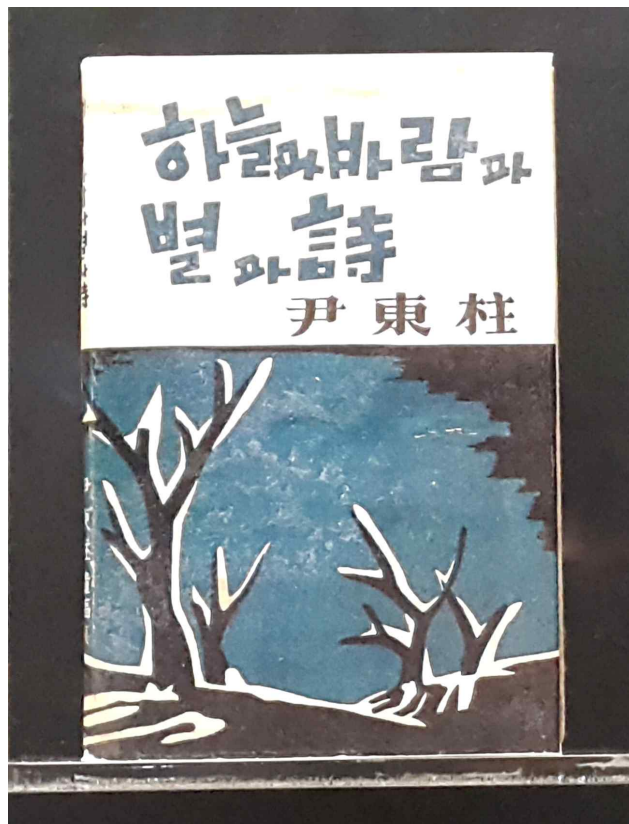


그림 20.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그림 21.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 대한제국 1900년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2. 책표지- '무녀도' , '봉이김선달' , 1940년대 후반



그림 23. 공병우의 세벌식타자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4.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展

④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 jikjiworld.cheongju.go.kr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최소의 금속활자인 직지를 중심으로 활자와 인쇄 과정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1992년 개관한 박물관은 1994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이관하였으며 근처에 근현대인쇄전시관, 금속활자전수관 등 관련 기관이 있다. 2001년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2004년부터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의 도서관, 기록원 등의 아카이브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 특징

- 총 3000점의 소장품이 있으며 5개의 관에서 상설전시, 기획전시박물관은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에서 1377년 제작할 당시의 과정을 실물사이즈 대로 상황을 연출하여 시각, 청각 효과를 주고 있으며 각 전시물 마다 관람객이 버튼을 누르면 활자주조 과정을 시연한다.
- 전체적으로는 인쇄에 관한 유물이나 부분부분 ‘직지’ 라는 주제를 상기시켜 박물관의

취지와 목적을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간단히 서양인쇄 발전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다.

-주 박물관 내에 교육이나 아카데미 같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독립된 건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전문화시키는 장점이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고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주 박물관의 자료만 보는 것에 그치는 단점이 된다. 근현대인쇄전시관 역시 같은 경우이다. 박물관 토지 내에 있지 않고 길을 건너야 하고 각 건물이 아이덴티티가 달라 박물관과 관련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렵다.

■ 디자인 자료 현황 및 제언

- 인쇄 문화에 관한 유물이라 하면, 특히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자료 발굴 측면에서 인쇄 결과물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인쇄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활자, 재료, 인쇄 기술의 변천, 미래 인쇄기술의 소개까지 인쇄의 역사에 해당된다. 디자인 결과물보다 그래픽디자인을 제작하는 제반 환경이나 미디어 변화로 디자인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림 25. 청주고인쇄박물관



그림 26. 직지제작과정모형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7. 세계문자 역사에 대한 인포그래픽



그림 28. 옛 활자와 인쇄된 책자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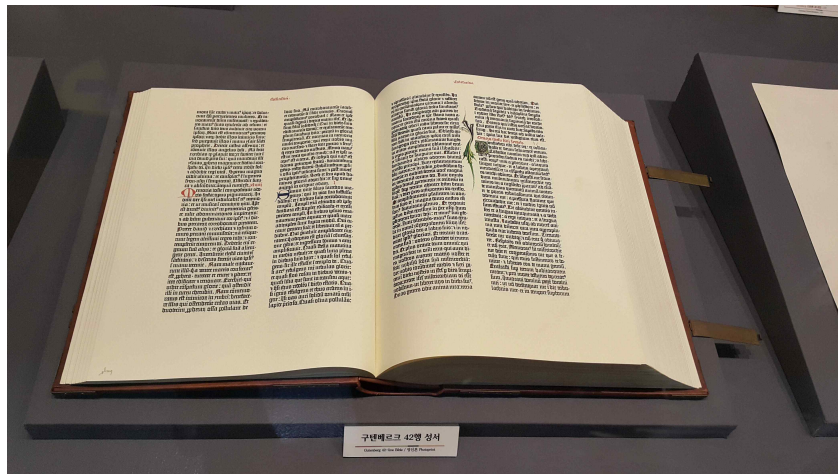


그림 29. 구텐베르크 42행본 성서 영인본



그림 30. 근현대인쇄전시관 내부

⑤ 한국광고박물관 admuseum.kobaco.co.kr

광고도서관 : <http://adlib.kobaco.co.kr/>

kobaco 한국광고박물관

2008년에 개관한 한국광고박물관은 한국 근현대 120년 광고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공익적인 교육·문화 인프라 시설 구축하고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휴식·여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사장되어 가는 다양한 광고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광고계에 필요한 광고 디지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아카이브를 구축, 광고문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광고의 순기능 홍보를 통해 방송과 광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 특징

- 박물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된다. 특히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담당 안내원(docent)이 설명을 제공한다. 광고의 유래, 광고로 보는 한국사회 문화사, 광고체험, 세상을 움직이는 광고, KOBACO와 공익광고 등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박물관내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품은 영상광고 21,377점(국내: 17,852, 국외: 349), 라디오광고 3,176점, 인쇄광고 20,226점, 기타광고 4,207점 등 총 45,810점이며 광고도서관을 통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광고 결과물뿐만 아니라 제작 이야기, 즉 광고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매체별로 광고의 제작에서 소비과정을 광고주·광고 회사·광고매체·소비자의 광고 네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광고제작을 위한 실무자들의 작업진행 방식을 영상과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광고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다. 관람자 스스로가 ‘광고사진촬영’과 ‘광고사진편집’을 통해 간편하게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광고를 이해할 수 있고, 모형 오토바이 시승과 영상을 통해 옥외광고를 체험할 수 있으며, 세계 3대 국제광고제인 Clio·NYF·Cannes 광고제를 포함한 세계 10대 광고제의 수상작품을 관람자 본인이 직접 감상할 수 있다.
- 과거 라디오 광고에서 사용되었던 광고의 음원과 터치스크린 방식을 통해 예전의 광고 영상도 볼 수 있다.
- 홈페이지에 있는 Cyber Museum에서는 광고자료(디지털 아카이브)는 TV광고, 라디오광고, 인쇄광고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20편의 광고를 검색할 수 있다.

■ 디자인자료 보존 현황

한국광고박물관은 TV광고, 라디오광고, 인쇄광고, 옥외광고, 인터넷광고 등 4만5천여 점의 한국의 근현대 광고자료들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디자인의 한 분야인 광고디자인 박물관이 있으므로 다른 디자인 사료에 비해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그러나 보관 자료의 공개 면에서 본다면, 아카이브는 잘 구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시장의 규모가 작은 탓에 현장에서 공개된 작품 수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 관람자가 느끼는 흥미의 정도는 떨어진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광고 전문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전시나 교육의 규모나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광고는 미래에도 젊은이들

이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인데, 단순 나열식 전시나 광고현장 설명이나 간단한 광고 만들기 시연 등으로 한정된 박물관 관람방식은 광고의 매력을 보여 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 제언

광고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그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프린팅,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수단으로 시각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매개로 전달된다. 따라서 좁게는 광고 분야의 자료이나 인접분야로 확장하면 상당한 자료를 디자인 사료로 볼 수 있다. 광고박물관과 아카이브에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현대한국디자인사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고, 특히 미디어 변화에 따른 디자인콘텐츠 자료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한국광고박물관 광고 사료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2. 한국광고박물관 광고 사료 전시 2



그림 33. 한국광고박물관 광고 사료 전시 3

⑥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002년에 서울존에 의해 개관한 서울역사 박물관은 유서 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중심을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 특징

- 상설전시로는 조선시대의 서울,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 고도성장기 서울의 발전을 전시하고 있으며 도시모형영상관에는 정교한 모형과 IT 기술을 결합한 멀티미디어에 서울,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여준다. 317.29㎡ 넓이의 전시관에는 605.25km² 규모의 서울을 1/1500으로 축소한 가로 21.5m× 세로 14.5m의 대형모형을 설치하여 서울 전체를 한 눈에 내려 볼 수 있다.
- 사이트의 상설전시 메뉴에는 리플렛을 다운로드 할 수 있거나, 가상 전시 보기가 가능하며 동영상 자료, 행정자료, 서울 역사자료실, 디지털아카이브(현, 시범운영)을 공개한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정보지를 계간으로 2004년부터 발행한다.
- 분관으로 한성백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문화관, 동대문역사관운동장 기념관, 몽촌역사관을 함께 운영한다.
-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6년부터 유물기증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의 약 70%에 해당하는 20,000여 점이 시민고객의 기증으로 채워졌다. 매년 유물 공개 구입 일정을 공고하여 지속적인 사료 보존 정책을 시행한다.

구분	총계	1996~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명)	420	98	24	19	18	14	18	13	6	15	12	19	42	68	54
수량 (건)	37,449	7,833	5,457	1,297	1,261	1,903	76	967	1,040	2,387	660	883	3,492	,591	1,912

표 1 연도별 기증현황

- 서울역사자료실(1F)은 역사학, 미술사, 고고학, 민속학 등 박물관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학술지, 학회지 등 27,000여권의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자료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 디자인자료 보존 현황

2002년에 개관하여 10년이 넘는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전시물의 짜임새 및 교육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인 만큼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변천과 그에 따른 유물들을 전시하기 때문에 디자인 사료는 단지 서울 사람들 삶의 형태 안에서 사용되었던 물건들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민속공예품, 생활용품들 속에서 디자인 제품을 간간히 발견 할 수 있다.

■ 제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역사 특히 서울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물건, 책자, 가구, 의복 등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디자인 자료와 중복될 수 있으나 이는 디자인 사료로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근현대와 이어지는 한국의 디자인 전사 시기에 해당하는 사료로 검토할 만하다. 또한 차후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 분석에 사용할 사료 기증에 서울시민의 유물 기증 시스템을 응용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림 34. 일제강점기 시절의 서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5. 서울의 야경 조감도 모형



그림 36. 시대별 주요 사건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⑦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



2012년 12월 26일, 정부의 주도로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격동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전시, 다양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 방대한 자료를 한 곳에 담아내는 아카이브 기능, 교육프로그램이 결합된 역사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보존 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별 자료를 망라하되, 시행착오를 포함한 ‘고난과 역경의 극복’, ‘도전과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특징

역사적 순서에 따라 주제별로 대한민국의 태동(1876-1945),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1945-1960),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1961-1987),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1988-)의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상실록 코너에서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한 역사적 순간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역사 보물창고’에서 어린이를 위한 역사 콘텐츠를 제공해 눈높이에 맞는 역사 자료를 경험하는 공간이 있다.

현대사 아카이브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모바일 web, App 서비스를 한다.

■ 디자인자료 보존 현황

201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설립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도 수집된 유물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많은 부분이 서울 역사박물관과 겹쳐 있다. 그러나 서울 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역사에 관한 것이 전시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이곳 역시 역사박물관인 만큼 디자인 자료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역사박물관이라는 특징 덕에 우리나라 근현대의 자료는 다양하여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양하나 유물의 수집기간도 짧고 기증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풍부한 편은 아니다.

■ 제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는 만큼 소장품의 많은 부분이 디자인 사료에 해당된다. 디자인 역사관에 따라 한국 근현대 디자인 발전을 대표하는 디자인 사료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다만 역사적 자료가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사관이 분명하게 적용하여야만 디자인 사료 보존의 전문성이 표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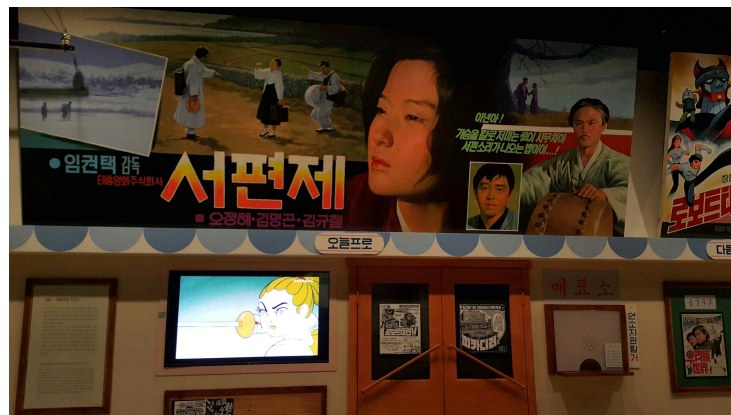


그림 37. 90년대 극장 외부 모형



그림 38. 레코드판과 자켓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9. 복전후기의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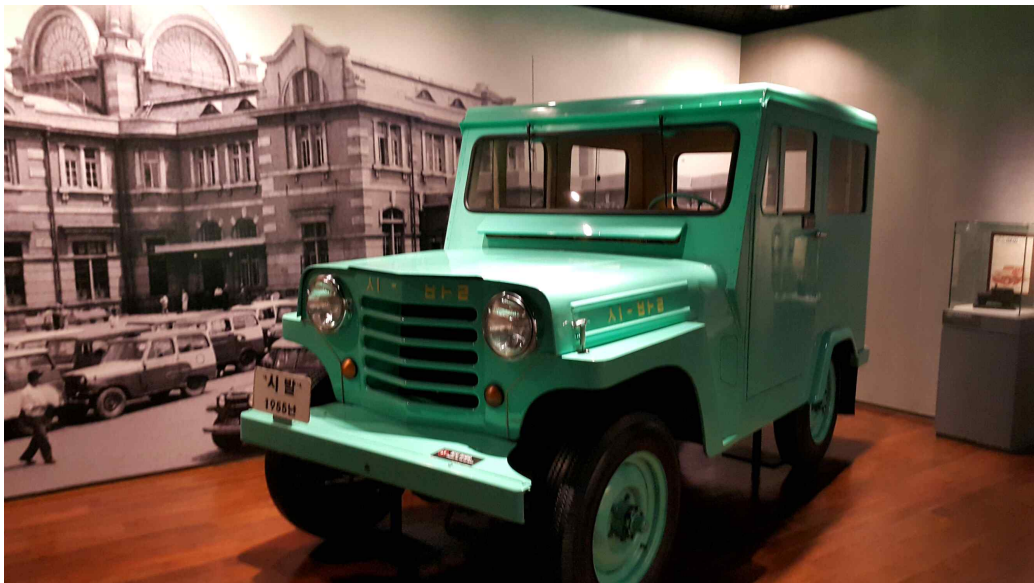


그림 40. 국산 최초로 제작된 시발(始發)자동차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⑧ MOA(서울대미술관) www.snumoa.org,

<http://www.snumoa.org/Collection/list.asp?t=004>



서울대학교에서 설립한 미술관으로 2006년 개관했다. 램 쿨하스가 디자인한 건축물은 내부의 공간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개방형 문화공간이 인상적이며 삶과 연계하는 예술의 이념을 담고 있다. 디자인 뿐 아니라 회화, 조각, 판화, 디자인, 공예 등의 조형 분야를 포괄하여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상설전시로 작품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대관에 의한 기획, 초대전이 진행된다.

■ 특징

소장품은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형 분야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상설전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사이트에도 소장품에 대한 이미지 및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다. 다른 경로를 통해 소장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기획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학생 및 인근 주민에게 관람의 혜택을 주어 삶에 열린 예술 지향을 표방한다.
- 지하의 카페와 함께 뮤지엄샵이 넓은 공간에 오픈되어 있으며 디자인, 공예 등의 국내, 해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미술관의 성격 상 디자인 자료만 전문화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예와 디자인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 한국근현대디자인 초기의 성격이 강하다.
- 디자인공예 작품으로 18점의 리스트가 있으며 대부분 원로격 작가의 디자인과 공예 작품이다. 디자인과 공예, 디자인과 조각 등 2 분야에서 활동한 디자이너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아카이브’ 라는 명칭으로 미술사료 보존 의도임이 추측되나 공개되지 않아 소장품 규모 및 아카이빙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사이트에는 일부 작품만 업로드되어 있다.
- 디자인 분야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미술’ 분야 전체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초기 설립된 과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다.

■ 제언

- 서울대학교 디자인과는 해방 전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도안과 공예에서 시작하여 현



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디자인 사료를 발굴하고 연구함으로써 처음 한국에 디자인 교육을 진행한 역사와 함께 한국디자인연구의 중요한 자료 보존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초기 활동했던 원로디자이너 뿐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 등 지금까지 배출한 다양한 연령층의 디자이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작품을 보존해 나감으로써 한국디자인사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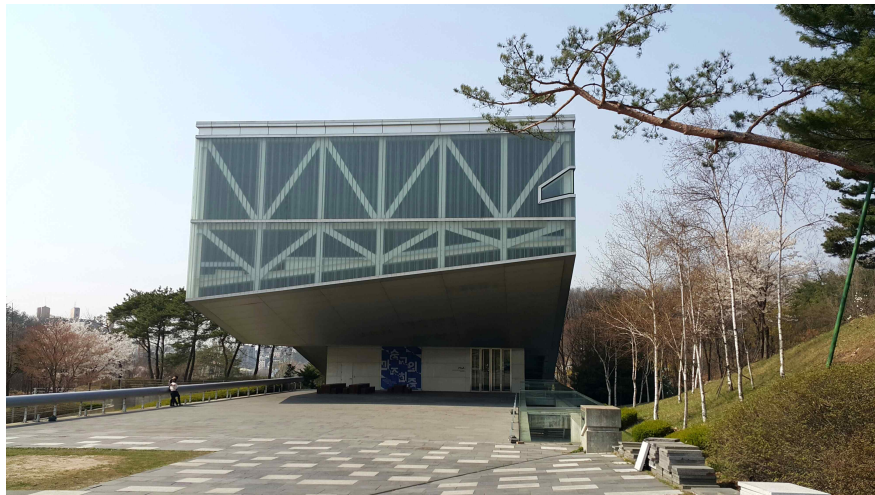


그림 41.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외관



그림 42. 기획전 배너와 입구



그림 43. 김교만, 민속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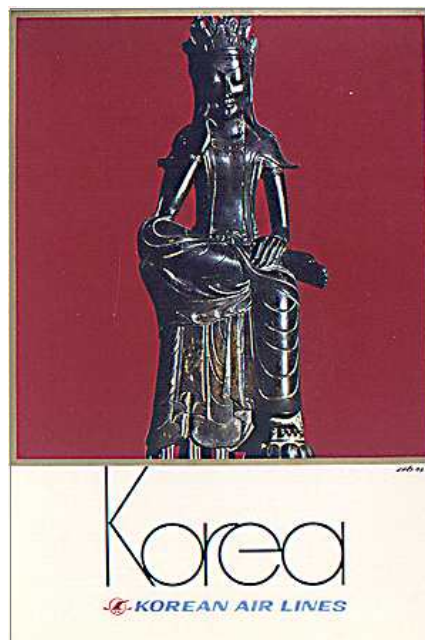


그림 44. 조영제, 관광포스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45. 민철홍, 扇



그림 46. 권순형, 白雲釉角花器 1975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 사적 보존현황

① 근현대디자인박물관 <http://www.designmuseum.or.kr>



2008년 개관, 2,3층의 상설전시는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 중 1600여 점을 선별하였고 국내 최초의 디자인 사료들을 위주로 전시하고 있다. 박암중 소장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디자인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디자인 사료 발굴 및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료를 전시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으로 다른 박물관처럼 여유 있게 관람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많은 자료를 공개하여 디자인의 역사 공유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사료 발굴 외에 기고, 저술을 통해 학문적 연구를 병행한다.

■ 특징

- 각 층마다 시기별로 나누어 전시 도입구에 디자인사 흐름을 요약하여 관람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지하에 갤러리가 있으며 기획전이나 대관 전시를 한다.
 -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령대 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디자인사를 주제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사이트에 새롭게 수집하고 있는 신수유물이나 기증품을 공개하고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 및 제언

- 대부분 그래픽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위주이며 부피가 큰 의상과 건축 등의 자료는 배제하고 있다.
- 총 7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국기, 태극기, 신문, 잡지, 그림엽서, 인형, 화장품, 라디오, 전화기,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등의 디자인 사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초의 디자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의 다양한 디자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한국근현대디자인사를 대표하고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인 디자인 자료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적인 디자인박물관의 선도에 있으므로 근현대디자인 소장품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제공으로 전공자 및 일반인에게 한국디자인의 역사 움직임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림 47. 전시장 입구의 테마 별 디자인사 요약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48. 전시 공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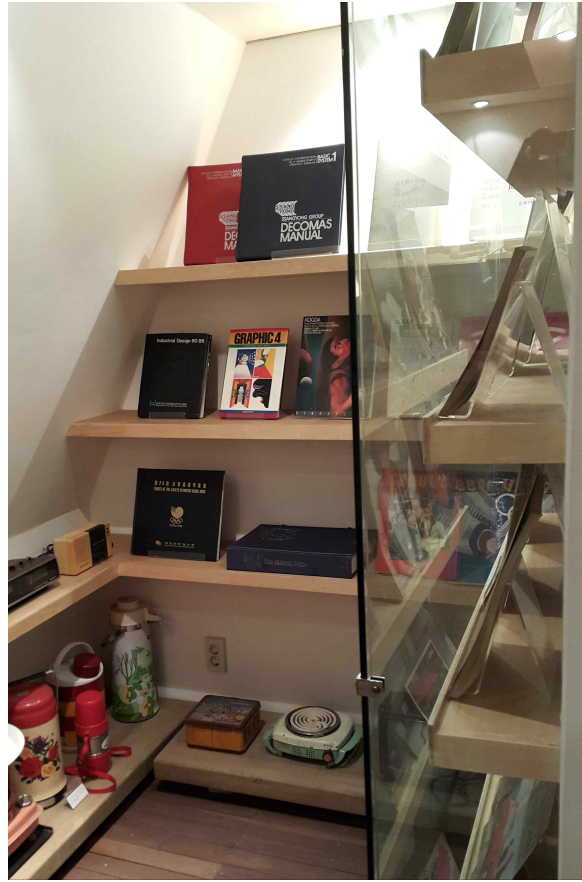


그림 49. 전시 공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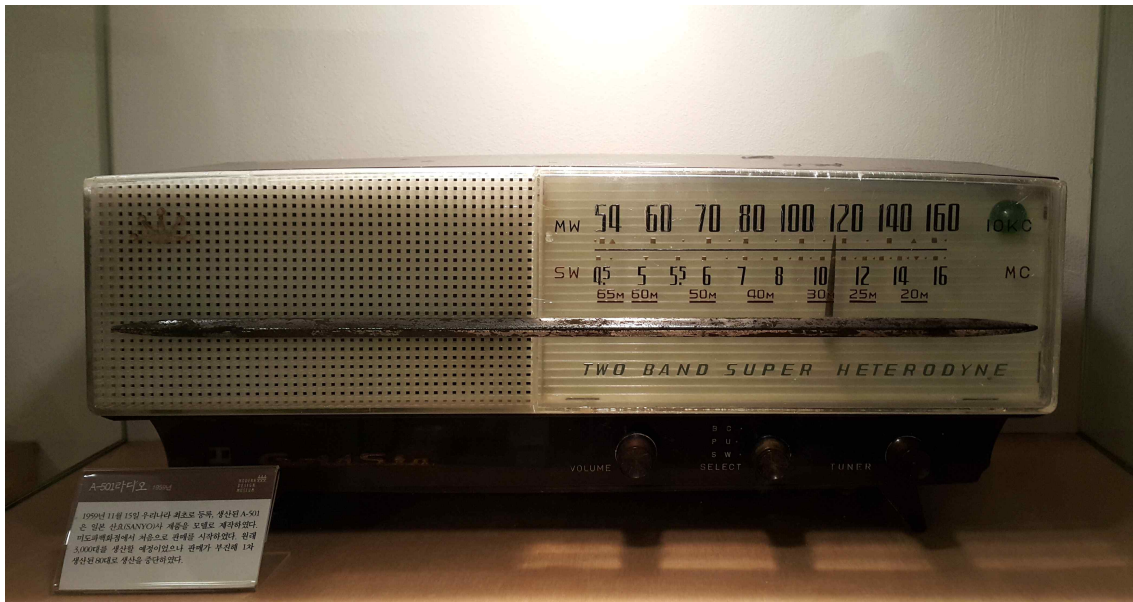


그림 50. 국내 최초 라디오인 금성사의 A50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51. 책표지



그림 52. 포스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53. 국내 최초 TV인 금성사의 VD-191

② 삼성출판박물관 www.ssmop.org

三省出版博物館
삼성출판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은 1990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삼성출판사 회장 김종규가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 이후 종로구 구기동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인적인 사명감에 의해 설립하였으나 소장품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소장한 유적을 박물관을 통해 공유하려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南明泉和尚頌證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道歌> 등 여러 점의 국보급 전적을 비롯, 희귀 양장본에 이르기까지 40여만 점 이상의 전적과 관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판 인쇄문화 1천 3백 년의 역사를 알리고 있으며 전문 학예사레 의한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와 보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징

박물관은 국보를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10여 점과 고서, 잡지 등의 인쇄물, 고활자, 인쇄기구, 문방사우, 그 밖의 관계 유물 등 총 40여만 점 소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장품은 다음과 같다.

- 국보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十三)
- 보물 : 월인석보 권22, 23(月印釋譜 卷二十二, 二十三),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동인지문오칠 권7~9(東人之文五七卷七~九), 권근 응제시주(權近 應制詩註), 제왕운기(帝王韻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인천안목(人天眼目)
- 전적류: 17,000 여점
- 근현대 도서류: 160,000 여점
- 출판인쇄도구: 45,000 여점
- 고문서: 10,000 여점
- 문방구: 21,000 여점
- 서화: 9,000 여점
- 기타: 138,000 여점 등 총 10 여 만점

■ 특징

- 상설전시는 조선시대까지의 금속 및 목판인쇄물, 근대역사인 일제 강점기와 1950~60년대의 출판 인쇄물과 잡지, 각종 교과서의 변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에서 찾은 희망
- 70년대 우리 출판물’ 과 같은 기획전으로 소장품을 열람하도록 기획한다. 박물관내에 있는 삼성 뮤지엄 아카데미에서 2012년까지는 자체 강의가 있었다.

■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

- 삼성출판박물관은 개인이 출판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수집한 인쇄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래픽디자인의 주요 미디어인 출판과 인쇄는 제작된 것이 곧 디자인 결과물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활자 및 인쇄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삼성출판사박물관의 소장품은 그 결과물 즉 다양한 시각디자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디자인 자료가 풍부하다. 근현대 한국의 그래픽디자인의 흐름을 추적하기에 유용한 사료이다.

■ 제언

소장품의 방대한 수는 디자인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디자인의 출판인쇄에 의한 그래픽디자인 사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많은 참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와 사료 분류 및 파악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협조 받아 한국디자인 역사에서 주요 사건 및 일상에서의 시각정보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4. 오발탄으로 유명한 이범선작가의 서재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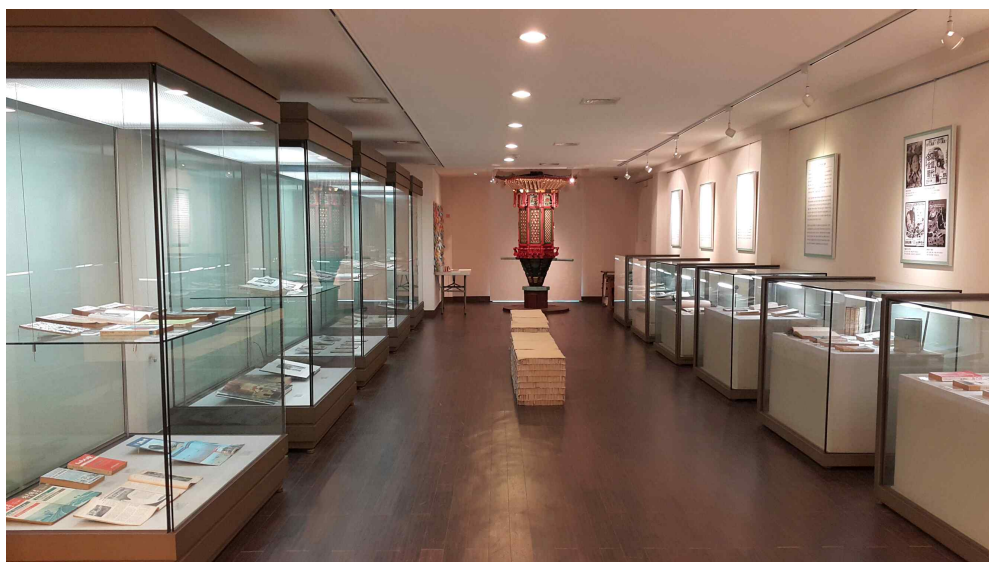


그림 55. 안쪽에 보이는 것이 용문사윤장대 복제품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56. 70년대 학습 자료와 각종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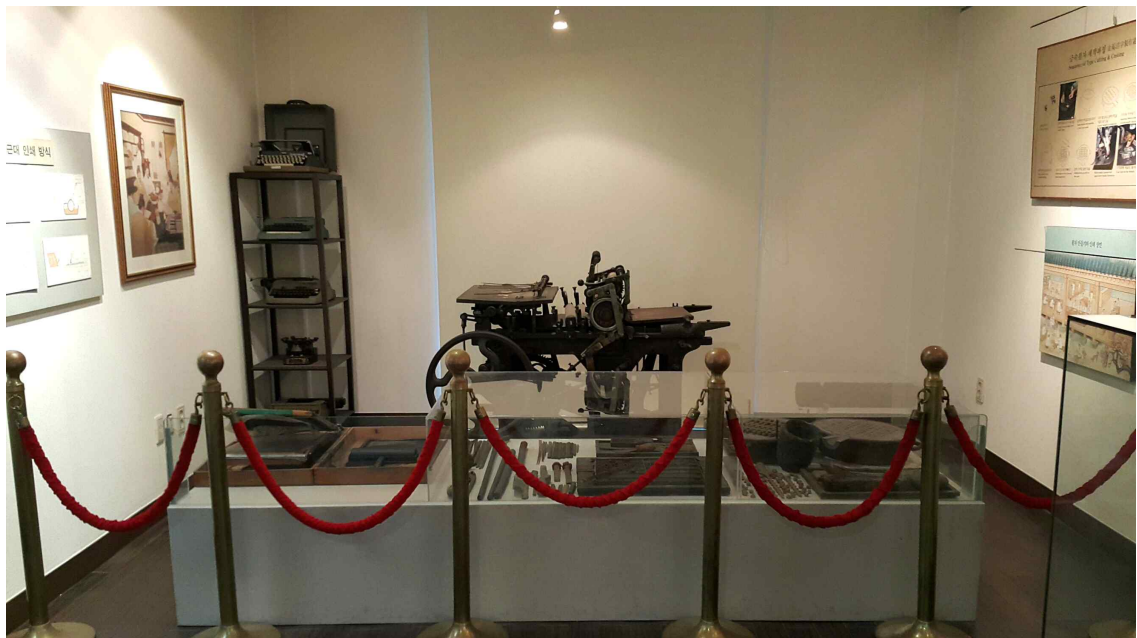


그림 57. 근대의 인쇄 기계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③ 스페이스C www.spacec.co.kr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유상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화장품관련 박물관이다. 40년간 모아 온 5,300여 점의 소장품이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화장이나 미용에 관련된 화장 도구, 욕기, 장신구 및 생활문화 관련 유물 300여 점을 상설전시 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존해야한다는 신념 아래 개인적으로 소장한 유적들은 스페이스C에 계속 보존하지 않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다수 박물관에 현재까지 꾸준히 기증하고 있다.

■ 특징

-회사에서 일부분 협업하는 경우(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등)도 있으나 대부분 박물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학예사가 소장품을 관리, 연구하고 있다. 박물관은 건물의 5, 6층에 있고 미술관은 지하에, 나머지 층은 타회사가 입주해있다. 주로 학교에서 단체 관람 오고, 개인 관람은 관심에 알음알음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조사를 진행한 박물관 중에서 비교적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실내 전시 장면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며 연구를 위한 자료협조 시에도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전시하는 유물은 화장품을 담았던 용기나 생활자기 등 도자기가 가장 많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근대화로 전환되는 시기의 화장용기, 패키지도 몇 점 5층(260점)에 전시되어 있다. 6층(180점)은 중국, 일본 등의 화장품 도구가 소량 전시되어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일제 감정기 시절 화장품 코티분(프랑스) 용기와 패키지,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모방한 한국 화장품(박하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공개하지 않은 소장품 중에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재언

대부분 조선시대 이전 도자기와 화장용품 위주의 소장품이기 때문에 화장 문화와 관련된 역사관에 의해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자료들은 보존은 하고 있으나 관련 지식이나 정보, 특히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된 바는 거의 없다. 학예사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소장품에 한하여 동아일보 기사를 검색해서 알고 있을 뿐 문헌화된 연구는 없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꾸준히 소장품을 모으고 보존하고 있고 높은 가치의 소장품이므로 디자인 자료를 일부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58.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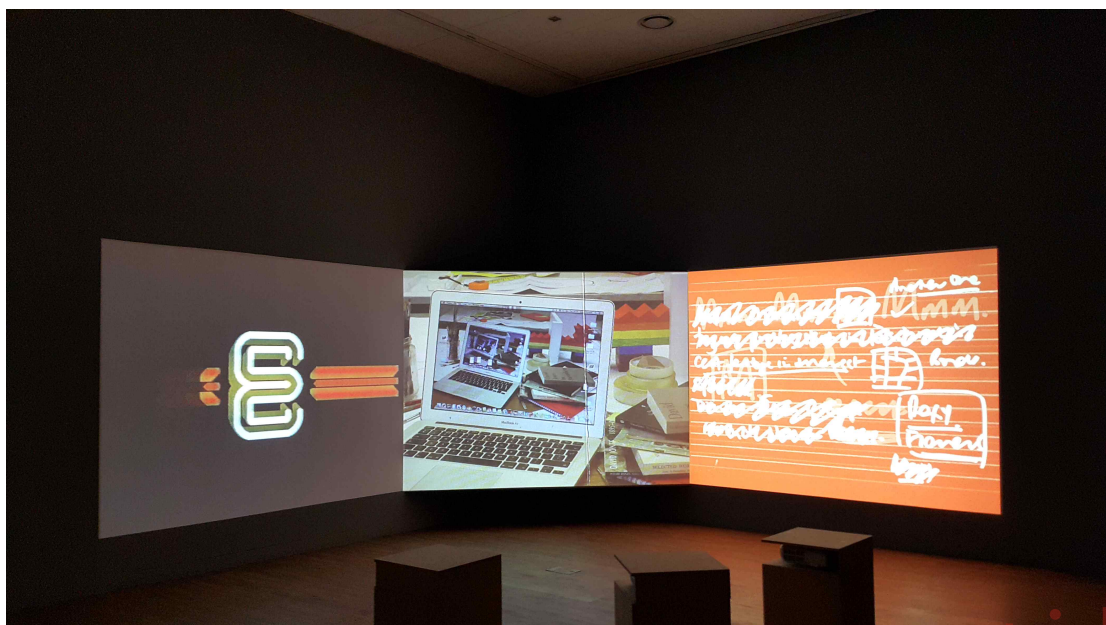


그림 59. 지하에 위치한 미술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60.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내부 전경 5층, 6층



그림 61. 1920년대에 사용됐던 분갑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62. 선조들이 사용했던 남성화장도구



그림 63. 영락잠(도금 세공한 비녀머리에 산호, 비취, 진주 등으로 장식하고 움직일 때마다 영락이 미세하게 떨어도록 만든 비녀)

④ 호림박물관 <http://horimmuseum.org/sinsa>,

<http://horimmuseum.org/sillim/>



호림 윤장섭이 출연한 유물과 기금을 토대로 1982년 서울 대치동 개관, 이후 신림동에 이전하여 1996년 재개관하였다. 신림 본관과 신사동 분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토기, 도자기, 회화·전적류, 금속공예품 등 1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점의 유물이 국가 지정문화재(국보 8점, 보물 52점), 9점의 유물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외에서 소장품의 다양성과 질적인 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다.

■ 특징

본관은 전형적인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림 분관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독창적인 건물디자인과 구조를 갖고 있다. 분관은 상설전시관 외 기획 초대전이 진행되는 미술관이 따로 있으며 건물 내부, 입구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건물의 상당 부분 입주사가 들어와 있다. 소장품은 유물이나 사람들에 전달하는 호림박물관의 이미지는 독창적인 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 미니멀한 조형성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한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및 제언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근현대 한국디자인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개인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박물관으로는 규모가 상당하고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 소장, 아카데미를 운영하므로 근현대로의 변화기, 혹은 그 이전의 한국디자인 자료 발굴 및 연구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64. 호림박물관 신림 본관



그림 65. 호림박물관 신사 분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66. 호림아트센터-신사 제 1 전시실



그림 67. 호림아트센터-신사 제2 전시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68. 자비도량참법 권제1~3, 보물 1170호



그림 69. 백자청화철화점문시명팔각연적 보물1458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 기업의 보존 현황

①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storygarden.amorepacific.com



2015년 9월 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종합적인 박물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태평양화장사관(1979)에서 태평양박물관(1981), 디 아모레 뮤지엄(2005)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1970년대에 화장, 미용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박물관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으로 성격을 바꾸어 예술작품을 활동을 지원하고 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2015년에 개관하는 박물관에 기존 유물 및 회사 역사, 브랜드, 광고, 디자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며 현재 스토리가든에 일부 전시되어 있다. 이 외에 2001년에 제주도에 설록차 뮤지엄 ‘오’ 설록 ‘을’ 개관하여 기업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은 현재 대표적인 3개의 기관이 있다.

■ 특징

- 기업의 생산 품목이 ‘미’, ‘디자인’,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1945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발전해 온 기업의 발자취에 의해 디자인경영이 드러난다. 1994년 설립한 태평양디자인연구센터(PDC) 조직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의 상당 부분이 디자인 요소와 민감하게 연결된다.
- 1995년 창립 50주년 기념 <태평양 50년사> 발간을 계기로 태평양 자료실을 개관하여 담당자를 두고 창사 이래 생산한 제품의 용기, 패키지, 광고, 사보, 홍보물, 책자, 캠페인 등의 자료를 거의 보관하고 있다.
- 박물관에 소장된 유적(조선시대 이전까지)은 상시 전시가 되고 있으나 광고나 제품(디자인 사료)는 태평양박물관, 스토리가든 등 유동적으로 이동하거나 전시하지 않을 때도 있어 상대적으로 전시 비중이 적다. 대부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2015년 9월 회사 박물관이 정식 오픈되면 디자인 관련 자료들도 전시할 예정으로 기획 중이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기업 자체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로 인해 디자인 자료는 비교적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회사 초기부터 생산한 제품의 용기와 패키지 디자인을 세트별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외부에 전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카이브 공간이 따로 있으며 제품을 시기별, 세트로 대부분 진열해 놓고 있다.
- 아모레퍼시픽 광고집(한광수 저)과 같이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하여 다각도의 관점에서 자료의 흐름을 체계화하는 시도를 보인다.
- 2015년에 오픈될 박물관에 기존보다 확대된 디자인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한 기업의 제품역사이나 넓은 시각에서 한국디자인사의 용기, 패키지 디자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언

- 일제강점기에 시작하여 1945년 정식 창립한 회사의 역사와 디자인 경영 이념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 민감도가 뛰어나다. 1973년에 설립된 태평양학술문화재단, 1994년의 태평양디자인연구센터 등 기업의 소장 자료를 한국근현대디자인 연구 및 사료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제품의 성격 상 수준 있는 전시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디자인사료를 공개할 때 관람객의 적극적인 반응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참고가 될 만하다.



그림 70. 박물관에 소장된 미, 장식 관련 유물



그림 71. 박물관에 전시된 제품과 광고, 2010.jpg



그림 72. 회사 역사 전시(초기 생산 제품, 브랜드)



그림 73. 대표적인 브랜드, 광고디자인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74.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초창기 개발 제품



그림 75. 아모레퍼시픽에서 개발한 제품과 디자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76. 제주의 티스톤(차문화 체험공간)



그림 77. 오설록 브랜드스토리



그림 78. 동서양 찻잔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② 서울디자인박물관

http://www.hanssem.com/design/designCenter.do?stats=COM_MAIN_COMMON_SITE_MAP_02



한샘에서 설립한 DBEW 디자인센터에 디자인의 개발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제품을 수집해 전시하는 박물관을 1993년 개관하였다. 이 센터는 한샘의 디자인 경영 이념인 '동서양을 넘어서(Design Beyond East & West)'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소장품 역시 동서양의 가구, 인테리어 제품 비중이 많다. 현재 사이트에 박물관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으나 외부에 개방하고 있지 않다.⁴⁾

■ 특징

- 한샘의 디자인 경영 이념을 반영하듯 이 센터는 건물에서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가 김석철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전통 가옥과 현대적 건축 소재의 조화가 뛰어나며 건물 내부 창을 통해 보여지는 바깥 풍경이 한국적 이미지를 다분히 연상시킨다.
- 1993년 9월부터 디자인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방배동 한샘빌딩 2층에 위치해있었다. 당시 디자인전문박물관으로서는 영국의 런던디자인박물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소개하였다.⁵⁾
- 전 서울시 부시장 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를 거쳤던 권영걸 사장이 디자인최고책임자(CDO)로 있어 한샘의 디자인 중심 경영 의지를 알 수 있다.
- 외부에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및 제언

- 자료조사를 통해 박물관에는 조선 가구 59점, 중국 가구 98점, 서양 가구 108점, 전자 제품 16점, 테이블웨어 36점, 조명 기구 13점, 기타 10점 등 340점 (혹은 180여 점)을 상시 전시하는 나타난다. 또한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과 관련된 국내외 정기 간행물과 단행본이 소장된 것으로 전해진다.⁶⁾
- 1993년 개관할 당시 소장품 대부분이 디자인계에서 걸작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이라

4) http://www.hanssem.com/design/designCenter.do?stats=COM_MAIN_COMMON_SITE_MAP_02

5) 백경말, 특수박물관 탐방:서울디자인박물관, 통일한국 1994년 11월호(통권 제131호), 1994, p.118

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9064&cid=43128&categoryId=43128>

화제가 되었다.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가구, 조명기구, 가전제품, 식탁용품, 기타 생활용품 등 크게 5종류로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디자인 유산이다.⁷⁾ 매킨토시 의자, 게리트 리트벨트의 적청(赤靑)결상, 프랭크로이드라이트의 로비결상, 마르셀 브로이어의 클립의자, 미스 반 데르 로에의 캔틸레버의자 등이다. 로버트 벤추리가 1992년도에 한샘의 의뢰로 디자인했던 주방시스템과 그의 글랜드마소파, 뎀피스그룹의 에토레 소트사스의 칼론 가리개, 미켈르 드 추리의 첫째 결상, 헨리 드레이퍼스의 로터리 다이얼 전화기, 소니사의 워크맨 오리지널, 리처드 새퍼의 조명가구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소장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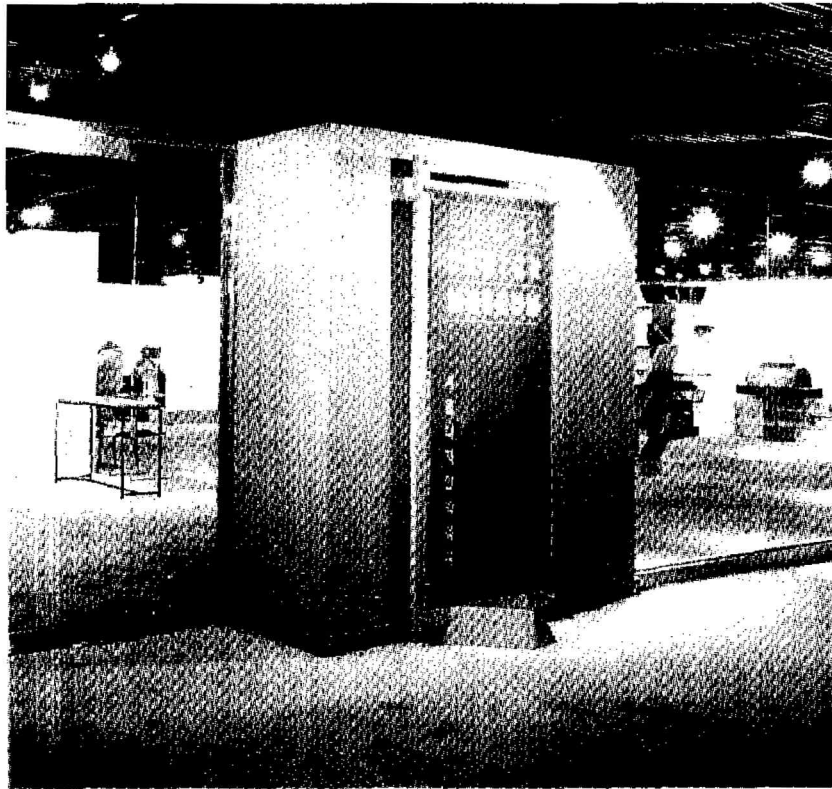
– 국내 최초의 사립디자인진흥기관으로서 디자인스튜디오와 디자인정보센터가 있다고 한다.

– 한샘의 기업 역사는 주방시스템, 가구, 인테리어 제품 등 일상의 거주, 업무 공간의 가구와 구성품을 생산하며 디자인 경영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디자인박물관의 취지와 의의가 높다. 현재 외부인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있어 자료에 남아있는 소장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자인전문 박물관을 개관하였다던 의의를 살려 예전의 취지처럼 다시 개방하고 운영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디자인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가구, 인테리어디자인에 대한 한샘의 역사와 흐름을 통해 근현대디자인연구의 사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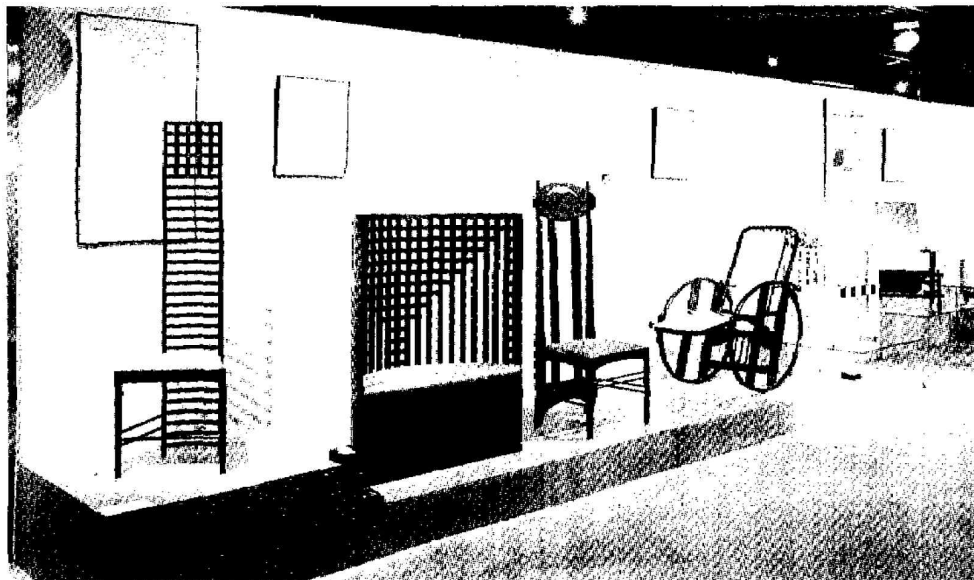
그림 79. 한샘 DBEW 디자인센터/ 사진,DBEW 디자인센터

7) 백경말, p.11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한샘빌딩 2층에 위치한 서울디자인박물관

그림 80. 1993년 개관할 당시의 문헌자료에 남아있는 서울디자인박물관 전시 자료 1



찰스 매킨토시의 등받이 높은 의자에서부터 뽀모스그룹의 화려하고 익살스러운 서랍장까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있다.

그림 81. 1993년 개관할 당시의 문헌자료에 남아있는 서울디자인박물관 전시 자료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③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MI) 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수원에 개관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에서 개관 1주년 기념으로 2015년 특별전을 열었다. 기존 상설전시는 전기, 빛의 발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제품, 광고, 인터랙션 체험까지 구성되어 있고 1주년 기념으로 삼성전자의 개발 당시 현황을 재현한 기록과 연출을 추가하였다.

■ 특징

- 발명가의 시대, 기업혁신의 시대, 창조의 시대로 구성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은 전자산업의 역사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생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박물관이나 전시 내용은 국내외의 전기, 빛의 발명과 발전사를 다루고 있다. 역사 초기 설명에는 대부분 국외 제품과 광고들을 다루고 있고, 라디오, TV 콘텐츠에서 삼성제품을 추가하여 세계 전자기술 발전의 흐름 속의 삼성 제품을 보여주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로 넘어오면 대부분 삼성 제품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전시 디스플레이 효과가 뛰어난데 첫째, 건물의 5층을 구획별로 나누어 넓은 공간에서 여유 있게 소장품을 관람, 둘째 현재로 가까워질수록 첨단 인터랙션 기술로 관람자의 흥미를 끌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셋째, 뮤지엄샵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외벽,, 인포그래픽 보드, 전구, 이동 계단이나 복도 등 디자인 조형에 형태, 색의 일관성으로 전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전자전기 발전사의 초기 제품을 다양하게 소장, 콘텐츠를 직접 방영하기도 하고(예, 옛날 TV에 1960, 1970년대)흑백 영상, 디스플레이 벽에 모니터 형태를 만들고 영상 노출, 제품 관련 세계 각국의 광고(종이에 인쇄된 광고 대신 영상이미지를 포스터처럼 벽에 전시), 관련 기술 학습 코너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에게 영상으로 설명하는 삼성의 역사에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꽤 비중있게 다루고 설명하는 점에서 최근 삼성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기술기반에서 출발한 회사이므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 재고는 그리 오래지 않다. 따라서 디자인사 관점에서 디자인 자료는 삼성전자의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역사의 흐름은 과거에서 미래로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의 디

지털미디어 분야에서 누적될 디자인사 자료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제언

- 제품 출시에 따른 디자인 전략의 변화, 기술기반에서 콘텐츠, 디자인 중심으로 이동할 때 디자인의 변화와 비중, 기업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인지도, 브랜드 가치 변화, 광고 디자인 등 디자인과 인접분야의 종합적인 분석에 용이하다.
- 박물관에 노출된 자료나 보존하고 있는 소장품 등은 박물관이라는 기관 특성에 의해 기업의 규모에 힘입어 추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지원할 수 있다. 뛰어난 소장품 전시 효과를 참고할 만하다.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므로 일반인에게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유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82. 삼성전자의 발전사와 생산한 가전제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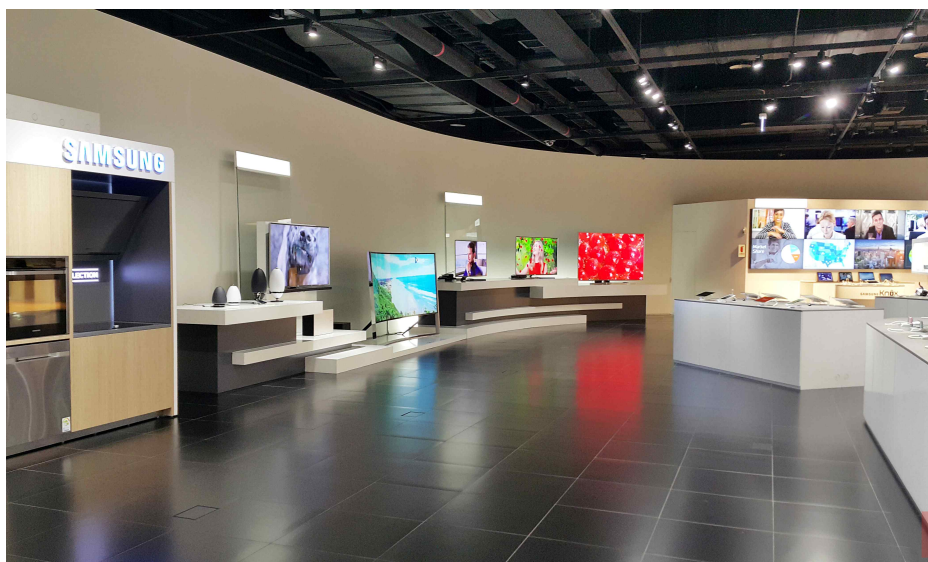


그림 83. 디스플레이 제품들



그림 84. 박물관 내의 샵



그림 85. 디스플레이에 상영하고 있는 전기의 발명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86. 초기 전구와 가전제품 광고 전시



그림 87. 필립스 전구 광고



그림 88. TV발명 변천사



그림 89. 삼성휴대폰 금형과 구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90. 휴대폰의 발전



그림 91. 시기별로 개발된 휴대폰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92. 디스플레이에 즉시 반영되는 인터랙션 체험

④ 현대모터스튜디오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HYUNDAI
MOTORSTUDIO
SEOUL

현대자동차 박물관은 울산 공장에 있으며 디자인보다 현대자동차의 창업주, 회사설립과 발전, 자동차 기술 등에 대한 전시이다. 일산에 현대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뉴스를 통해 보도⁸⁾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보도도 있다.⁹⁾ 2013년 개관한 현대모터스튜디오는 현대차의 브랜드와 디자인 컨셉을 홍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보다 컨템포러리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 특징

-현대자동차의 포니는 고유 모델로 디자인된 최초 자동차로서 자동차 산업의 포문을 열었다. IMF 이후 인수한 기아자동차가 보여준 경영에서의 디자인 효과와 더불어 최근 현대차는 자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구축 및 감성을 표현하는데 주력을 가하고 있다. 현대

8)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11649>

9)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15010008970>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모터스튜디오는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기존 디자인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디자인컨셉이다.

-자동차의 디자인을 넘어선 아트 및 문화인사 강연, 자동차 시승까지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 및 제언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사료는 회사의 발전 및 자동차 모델의 변화에 디자인사 관점으로 분석하며 정리해야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발전사와 함께 성장하여 지금까지 운영되므로 근현대 자동차디자인의 발전과 변화의 자료는 비교적 잘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과 당시의 문화까지 포함하므로 한국근현대디자인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디자인사료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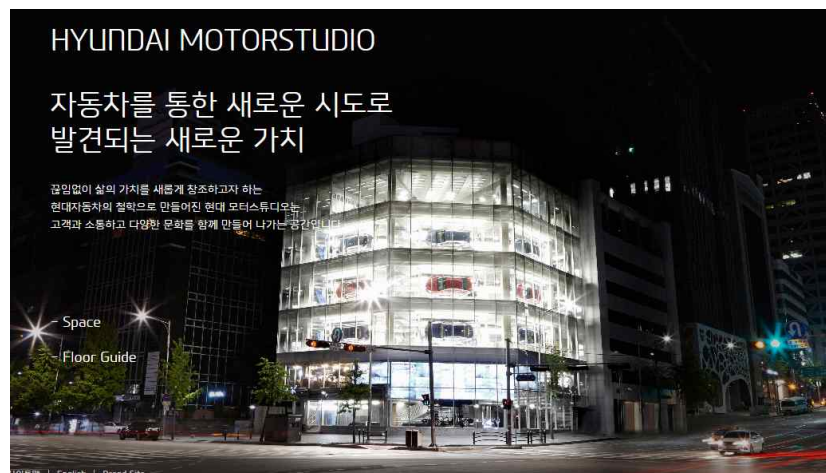


그림 93. 현대모터스튜디오 외관



그림 94. 내부의 자동차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95. 자동차 내장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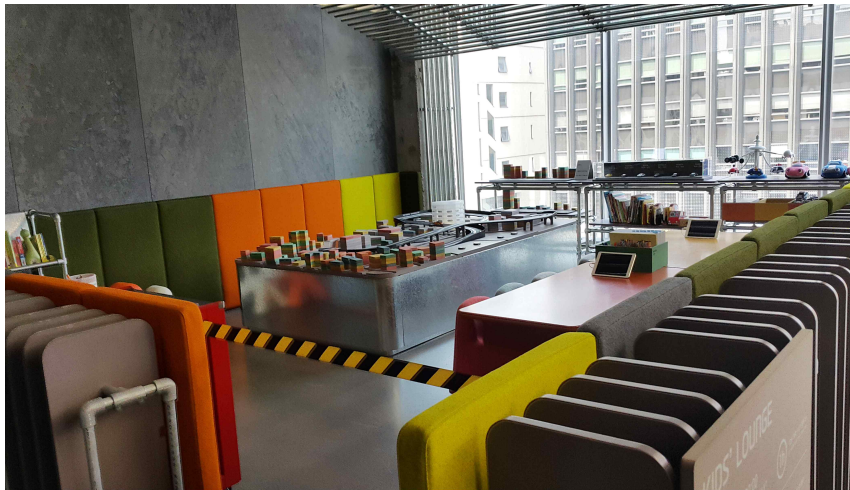


그림 96. 키즈존



그림 97. 키즈존의 슬롯카 체험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98. 키즈존의 페이퍼토이



그림 99. 자동차 관련 서적이 있는 자료실



그림 100. 현대모터스튜디오의 아이덴티티디자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01.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디자인 소품 1



그림 102.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디자인 소품2



그림 103.1층에 전시된 작품, 에브리웨어의 ‘양상블’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4) 결론과 제언

현장조사를 나갔던 박물관과 아카이브에서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특징	디자인 사료	아카이브	타주제 대관 전시	소속	디자인 사료 현황
			학예사			
근현대디자인 박물관	최초 디자인 사례 우선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위주	- ○	○	개인	디자인 사료 전문
아모레퍼시픽	디자인 경영 이념 및 제품의 디자인 민감도 높아 디자인 사료 비교적 풍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생산 제품 욕기, 패키지,라벨, 브랜드 및 광고 디자인 등 기업 관련 사료 아카이브 우수함	○ ○	-	기업	디자인 사료 일부 있으나 디자인 인접 분야 및 기업 생산 제품이 디자인 민감도 높을수록 디자인 사료 발굴 가능성 높음.
서울디자인박물관	일반인, 외부인 관람 불가	가구, 전자 제품, 테이블 웨어, 조명 기구 등	- -	○	기업	
삼성출판박물관	인쇄 관련 기계, 부속품, 활자 및 출판인쇄물 위주.	책, 포스터, 홍보물 등 그래픽 출판 인쇄물 위주	- ○	-	기업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디스플레이 및 관람객 체험 참여도 높은 전시	세계의 전기전자 발명, 발전에 관련된 내용. 기업 생산 제품 일부. 국내외 디자인, 광고 사료 일부	- -	-	기업	
현대모터스튜디오	상업적 홍보 위주	컨템포러리 자체 생상품 위주. 미술작품 동시 전시	- -	○	기업	
한국광고박물관	아카이브 우수	영상, 지면 광고디자인 사료 보존. 아카이브 우수하여 디자인 사료도 보존 체계 양호	○ ○	○	공립	
MOA (서울대미술관)	소장품 미개방.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디자인을 미술 소장품 내에 포함시킴.	- ○	○	대학 교	
청주고인쇄박물관	인쇄 관련 기계, 부속품, 활자 및 출판인쇄물 위주.	직지심경과 관련된 컨텐츠가 대부분. 근현대인쇄전시관에 출판인쇄물 일부 있음	- ○	-	공립	
국립중앙박물관	가장 체계적이고	건국초기부터 1900년대	○	○	국립	

	전문적인 역사 보존, 연구 진행	전까지 모든 분야의 유적 보존.	○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료 발굴해야.
국립민속박물관	근현대사의 일상과 전통문화	1900~지금까지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료 보존	○	-	국립	
			○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창제 및 기록물	한글로 적은 문서, 책자 위주.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글 조각된 일부 공예품	○	○	국립	
			○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의 주요사건	근현대 한국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관련 사료	○	-	공립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의 역사	서울시의 정치, 문화, 경제 활동 역사 및 현재 도시 일상 소개, 모형으로 제작	○	-	공립	
			○			
호림아트센터	건축 디자인에 의한 홍보효과 뛰어남	일반 유물 위주	-	○	개인	개인 주도의 박물관일 경우 근현대 디자인사 자료를 발굴할 가능성 별로 없음.
			○			
스페이스C	일반 관람객 자유롭게 감상. 외부 기관 및 연구 지원에는 상당히 비협조적.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물 위주. 대부분 도자기, 의복. 디자인 사료는 극히 일부	-	○	개인 & 기업	소장한 유물이 근현대 이전의 공예, 회화, 서적이 많고 일부 있어도 다른 박물관과 중복됨.
			○			

표 2. 국내 자료 보존 현황 조사 결과

(1)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디자인’ 자료만 다루는 박물관과 아카이브는 현재 없다. 문헌연구가 드물게 선행되었던 것이 비해 실물 디자인 자료 보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상태로 보인다. 근현대디자인박물관조차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현재까지 디자인 자료를 모으고 있으나 자료가 쌓일수록 보관, 보존, 아카이빙 등 연구의 공간적·시간적 한계 가능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은 오랜 기간의 역사보존시스템의 발달로 자료 발굴과 보존, 복원, 학술 연구 및 아카이브, 전시, 기증, 역사의식 공감대 형성 등 수준 높은 역사 보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회화, 도자, 조각, 금속, 서예, 공예 등 섹터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디자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한국에 근현대디자인이 정착하기까지의 역사가 짧고 일제강점기나 6.25의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디자인을 역사적 사료로 보존하는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1900년대 이전까지 집중)과 국립민속박물관(1900년대 이후 전통민속문화에 집중)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면에서 기간의 중복이 있고 발굴하는 역사적 자료에 대한 관점도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포함하는 근대 시기의 한국디자인사 자료를 발굴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일상의 소장품 중에서도 역시 근현대 디자인 자료 발굴 가능성이 높다.

(2)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이 열악한 만큼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발굴에 대한 관점이 단조롭고 얕다. 무조건 오래되거나 처음 나온 디자인을 발굴하는 것이 디자인 자료 보존의 목적은 아니다. 역사적 발전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에 못지않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콘셉트, 실험적 시도, 기획을 엿볼 수 있는 디자인 자료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일상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디자인계에서 인정하는 숨어 있는 자료에 대한 가치 부여가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발굴 및 연구에 있어서 디자인 전문성을 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또한 통시적 자료 보존이 통상적인 역사관인데 비해 공시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디자인의 특성 상 많은 인접 분야와 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디자인이 나오고 일상화되기까지의 공시적 접근에 의한 자료 발굴도 병행해야 당대의 디자인과 문화, 산업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아카이빙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

(3) 최근 디자인 자료 발굴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아카이빙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디자인 자료로 볼 수 있는 소장품을 소유한 박물관에 아카이브나 자료실은 있으나 디자인 관점에서 적합한 아카이빙은 아니다. 소장품 1개 당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번호 / 오브젝트 이름(제목) / 미디어 / 정의 / 디자이너 / 날짜(시작일, 종료일) / 설명 / 크기 / 재료 / 전시 등의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¹⁰⁾ 소장품이 쌓일수록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어 디자인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

개별 디자인 정보 외에 특정 디자이너나 디자인 일대기나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아카이빙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디자인 전문 아카이브는 전무한 상태이고 아카이브만으로 독립된 기관도

10) 최소한의 정보이며 원칙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자료, 2010

없다. 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의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료발굴과는 달리 하나의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추적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화를 위한 디자인과 타 분야와의 TFT를 구성하여, 디자인 자료발굴과 그 자료에 대한 정보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Table 4-1 Outline of the MDS Data Standard

IDENTITY DIVISION	transfer step	simple name
record managing institution	person	full name
identity number	date	locality identity
PART DIVISION	place	site
part name	coordinates	place
identification group	price	coordinates
simple name	grant-aid	locality type
full/classified name	conditions	
name		
nomenclature system	identity number history group	process group
type of name	institution	type of process
currency of name	identity number	process identity
status of name	date	process statement
title	valuation history group	part name
	value	date received
	date	reason
pre-production history group	copyright history group	requested treatment
cross-reference	type of rights	person/corporate body
type of antecedent	person/corporate body	date required
antecedent identity	date	method
simple name	storage history group	person/corporate body
full/classified name	location	date started
	date	place
production process group	display history group	state
production statement	type of display	technical data
part name	purpose of display	result
production method	corporate body	result identity
person/corporate body	title	simple name
date	date	full name
place	catalogue identity	date completed
coordinates	conditions	recommendations
state		further treatment
technical data	form description group	recall date
result	form statement	priority
	part name	recommendations
field collection group	aspect	part division
locality statement	type of aspect	authority
cross-reference	description	person/corporate body
locality identity	date	date
site	conservation	documentation
place	treatment	RECORD MANAGEMENT DIVISION
coordinates	material used	record production statement
relative position	date	type of record
vice-county	dimension	method of data collection
habitat	measurement	record copying statement
stratigraphy	result	person/corporate body
context	inscription or mark	date
locality type	type	supplementary file statement
collection act statement	method	file identity
find identity	position	computer record statement
method of collection	description	computer record identity
person/corporate body	transcription	
date	transliteration	NOTES DIVISION
association history group	interest description group	notes
association category/nature	simple category	
part name	full/classified category	AUTHORITY DIVISION
concept	interest summary	authority statement
person/corporate body	part name	cross-reference
service	summary	authority identity
date	interest identity	person/corporate body
related item	interest analysis	date
cross-reference	part name	
object identity	concept	DOCUMENTATION DIVISION
simple name	type of concept	documentation statement
full name	description	cross-reference
document	person/corporate body	document identity
event	date or period	reference
cross-reference	object	historical reference
event identity	cross-reference	class
simple name	object identity	person/corporate body
full name	simple name	date
place	full/classified name	title
coordinates	document	journal or publisher
ownership history group	activity	volume
type of ownership	event	reference
ownership identity	cross-reference	
method of transfer	event identity	

그림 104. 박물관정보관리협회(MDA)의 데이터 스탠다드(Data Standard)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박물관정보관리협회(MDA)의 데이터 스탠다드(Data Standard)

정체성분야 기록 관리 기관	개인 · 기업체 날짜	저작권역사그룹 권리 유형 개인 · 기업체 날짜	관심 분석 부분이름 개념 개념 유형 묘사	추천 사항 차후처리 재요구 날짜 우선권 추천사항
부분 분야	관련 역사 그룹 관련 법규 속성 부분이름 개념 개인 · 기업체 서비스 날짜 관련유물 전후참조 물품의 정체성 단순이름 전체이름 이벤트 전후참조 이벤트정체성 단순이름 전체이름 장소 좌표	보린 역사 그룹 소재지 날짜 전시역사그룹 전시유형 전시목적 기업체 주제 날짜 목록카드정체성 상태 형식묘사그룹 형식 표시 부분이름 측면 측면유형 묘사 날짜 보전 처리 사용된 재료 날짜 제원 측량 결과물 명문/ 표시 방법 위치 묘사 녹음 번역	개인 · 기업체 날짜/기간 물품 전후참조 물품정체성 단순 이름 전체분류이름 기록물 활동 이벤트 전후참조 이벤트 정체성 단순이름 전체이름 지역성 정체성 부지 장소 좌표 지역성유형 과정그룹 과정유형 과정 정체성 과정 진술 부분이름 기록된 날짜 이유 요청한 처리 개인 · 기업체 요청 날짜 개인 · 기업체 시작한 날짜 장소 주 기술적 데이터 결과물 결과물정체성 단순 이름 전체 이름 완성한 날짜	부분 분야 감독기관 개인 · 기업체 날짜 정보단계 기록관리 분야 기록 생산 진술 기록 유형 데이터수집방법 진술을 복제하는 이론 개인 · 기업체 날짜 보완파일 적용 파일정체성 컴퓨터기록진술 컴퓨터기록정체성 주석분야 주석 감독기관분야 감독기관 진술 감독기관정체성 개인 · 기업체 날짜 정보관리 분야 정보관리 진술 전후참조 정보관리정체성 참조 역사적 참조 등급 개인기업체 날짜 주제 잡지/ 출판사 친호 참조
선(先)제작 역사그룹 전후 참조 선행하는 유형 선행하는 정체성 단순 이름 전체 · 분류이름				
생산과정 그룹 생산 진술 부분이름 생산방법 개인 · 기업체 날짜 좌표 기술데이터 결과물	소유권 역사 그룹 소유권 유형 소유권정체성 양도 방법 양도 단계 인간 날짜 장소 좌표 가격 기금지원 상태 정체성번호 기구 정체성 번호 날짜 평가역사그룹 가치 날짜			
현지수집그룹 지역성진술 전후참조 지역정체성 부지 장소 좌표 관련위치 주거지 거리학 맥락 지역성유형 수집행위진술 기금정체성 수집방법		다심 묘사그룹 단순범주 전체 분류 범주 관심 요약 부분 이름 요약 관심 정체성		

그림 105. 박물관정보관리협회(MDA)의 데이터 스탠다드(Data Standard)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Descriptive Catalogue Card

- 1) No. of the object _____ 4) Classification _____
- 2) Institution _____ 5) Location in Museum _____
- 3) Ownership _____
- 6) Place of origin _____
- 7) Name of the object or species _____
- 8) Name of artist, or class, _____
order, family, genus _____
- 9) Materials of which the item is made _____
- 10) Description, techniques, _____
possible title, _____
signature, measurements _____
- 11) Date, mode, source, _____
place of acquisition _____
- 12) Price paid, estimated value _____
- 13) Collector, expedition _____
- 14) Cultural or ethnic group _____
- 15) Function, use, utilization _____
- 16) Chronology, doubtful attribution _____
- 17) Style, school, influences _____
- 18) History (Record of ownership of the item) _____
- 19) Conservation, _____
restoration, _____
museographical notes _____
- 20) Reference _____ Code of Museum _____
Collection file, _____ Negative number, _____ Photo _____

Size 12.5 x 20 cm.

그림 106. 박물관자료 기록목록카드

박물관자료 기록 목록 카드

- 1) 물품의 번호: _____ 4) 분류: _____
- 2) 기관명: _____ 5) 박물관 내 위치: _____
- 3) 소유자: _____
- 6) 출처의 장소: _____
- 7) 물품·표본 이름: _____
- 8) 예술가, 등급 순위 평가, 유화: _____
- 9) 품목이 제작된 재료: _____
- 10) 명문, 기술, 가능한 표제, 낙관, 측정: _____
- 11) 날짜, 취득방법, 취득자원: _____
- 12) 지불가격, 평가 가치: _____
- 13) 수집가, 탐색: _____
- 14) 문화적 민족적 집단: _____
- 15) 기능, 용도, 활용: _____
- 16) 연대기, 의심되는 요소: _____
- 17) 유형, 유파, 영향물: _____
- 18) 역사 (품목의 소유권에 관한 기록): _____
- 19) 보존, 수복, 박물관기술학적 기록: _____
- 20) 참조: _____ 박물관 코드: _____
수장품 파일: _____ 슬라이드 번호: _____ 사진: _____

그림 107. 박물관자료 기록목록카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4) 일부 대기업의 역사 사료 보존은 체계적이기는 하나 ‘기업’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기업의 이미지와 생산 제품에 민감하게 반영되어 온 경우 상당 부분 디자인 역사 자료에 해당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1945년 전후 창립된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경우 심도 있는 아카이빙과 디자인 역사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이 기술기반 회사에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된 경영 이념을 보여준 경우나 해태제과와 같이 지속적으로 디자인에 역량을 맞추고 디자인과워를 지니고 있던 회사가 경영 부진의 이유로 디자인 흐름이 끊어진 경우도 한국근현대디자인 사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사료이므로 기업의 디자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통해 보존되는 자료는 디자인 분야, 일반인, 관련 업계에 개방되어 공유함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앞에 요약한 현장조사 대상 박물관에서 소장품과 상관없는 기획전으로 사료 보존이라는 전문성을 모호하게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설 전시를 통해 관련성이 약한 다른 분야(회화, 조각, 공예, 영상, 공연 등)의 기획전시는 박물관인지 미술관인지 명확한 이미지로 남지 않아 다소 부적합해 보였다. 추후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수집과 아카이빙이 진행될 경우 사료가 지닌 콘텐츠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활성화시키는 자료 개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전시와 함께 아직 정착되지 않은 한국디자인 역사 보존 및 연구 문화에 일반인까지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가 기획되어야 한다.

2) 문헌자료¹¹⁾ 보존 및 연구 현황

미디어의 특성 상 문헌자료에서의 디자인 자료 보존은 작품 자체보다 관련 정보 게재나 연구가 대부분이다. 범위는 단행본, 논문,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사, 도록(작품집) 등이 해당된다. 문헌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는 디자인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고 아카이빙에 필요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 작품이나 사건에 대해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구주체에 따라 해석이 상이하게 차이하기도 해서 한국디자인사와 관련한 문헌 연구의 확산이 요구된다.

문헌자료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단행본은 문헌 중 많은 양의 내용을 출판하여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미디어의 장점을 갖는다. 또한 논문과는 달리 자신의 역사관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마다 해석의 다양함이 있고 글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른 디자인서에 비해 아직도 적은 비중이지만 한국디자인사와 관련된 단행본은 2000년 전후, 1990년대 후반에 조금씩 등장하다 200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
- 비평(정체성, 관점, 주제, 현황에 대한)
- 특정 인물과의 대담이나 인터뷰
- 디자이너가 저자, 글과 작품의 조합
- 공예나 회화사의 일부로서 디자인 출현
- 특정 기업, 디자인 분야의 역사
- 세계디자인사에서 일부 한국디자인 기술

등으로 나누어진다. 실무 위주로 발전해오던 디자인 분야에서 이론과 비평의 입지가 그리 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나 한국디자인사의 빈약한 연구 폭을 반증하는 것처럼 저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용한 디자인 자료의 중복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한국디자인사 자료 발굴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출판된 단행본은 저자의 해석에 의한 기록으로 진위

11) 문헌리스트 목록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참고문헌을 참조

여부를 논하거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하고 경우에 따라 왜곡 혹은 편향된 기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독 저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숨어있는 집단 저자의 경우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

둘째, 한국의 디자인이 보편화되고 일상에 흡수된 것은 산업이나 정책 등 사회 변화에 크게 받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디자인 ‘자체’에 대한 역사 기술보다 부가적인 설명 예를 들면, 정치, 사회, 경제의 역사의 내용을 많이 할애했던 기술은 자칫 디자인이 이러한 분야에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아 변화를 하는 특수 분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셋째, 디자인 사료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인용하는 초점을 보면, 가장 먼저 디자인된 것, 최초의 라디오, 최초의 TV, 최초의 세제, 최초의 광고, 최초의 회사 등 가장 먼저 등장한 이후의 디자인 전개를 보여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미술의 다른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들, 예를 들어 공예나 회화사의 일부에서 떨어져나간 기술들로 인해 한국디자인이 근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한국디자인사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드물다. 문헌자료 중 뒤에 ‘보고서’ 범주를 보면 한국디자인의 자산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고자하는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행본에서는 한국디자인의 형성을 근현대로 보는 관점이 많다.

단행본을 통한 한국디자인사의 연구와 자료 확산은 디자인 분야 외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크다. 다른 문헌 정보는 찾기가 쉽지 않고 다소 전문적이라 관심도도 떨어진다. 보고서의 경우 비매품으로 일부만 출판되어 디자인 분야 내에서조차 정보를 검색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단행본을 통해 한국디자인사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한 저자들의 맥을 이으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이 추가될 때 한국에서 걸어온 디자인 역사의 깊이가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논문

논문은 말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분야이므로 철저하게 연구자의 해석이 강조된 문헌자료이다. 또한 연구방법이나 관점, 현황 등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기에는 분량의 한계가 있어 다른 문헌에 비해 디자인 자료를 많이 싣기도 어렵고 대부분 저해상도의 작은 사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작품들은 거의 없다. 반면 전문적이고 깊은 내용을 다룬다는 면에서 심화된 한국디자인사 연구가 가능하다.

1974년 권명광은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형성과 그 전개」¹²⁾의 논문에

서 한국디자인사를 다루었다. ‘그래픽디자인’이라는 한정된 주제이지만 당시 한국디자인이 정착되는 시기에 유럽, 미국, 가까운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한국디자인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후 1996년 유경민은 역시 시각디자인 분야를 대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시각디자인이 산업사회와 대중문화 속에서 형성으로 발전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와 오창섭이 디자인사 서술에 대한 관점을 논하면서 한국디자인사를 언급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한국디자인학회에서 학회10주년 기념으로 특별세션으로 구분하여 한국디자인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학회지에 여러 편의 논문이 실리면서 한국디자인사에 대한 논문 심화 연구, 단행본,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프로젝트 및 전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학술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전문적인 식견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한국디자인사 연구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현재는 단순히 통시적 접근으로 들여다보던 한국디자인사가 인물, 일상, 문화, 산업, 교육 등 주제별 분야별로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면서 연구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에 있다.

(3) 보고서

한국디자인사 문헌 연구 중 보고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해 실행된 규모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보고서 내용 구성면으로 본다면 크게 텍스트 중심과 디자인 자료 대상 중심으로 구분된다.

먼저 텍스트 중심은 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포럼 형식으로 논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기관의 행적을 기념하여 정리한 방식이다.¹³⁾ 디자인 자료 중심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디자인 자산 중에서 발굴하거나, 선별·선정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연구 성과를 단행본과 전시를 진행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디자인역사 연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실질적인 디자인 자료 발굴에 해당된다.¹⁴⁾

12) 권명광,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형성과 그 전개」 :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4

13) 김용욱 외, 어울림 보고서 Oullim Report - 2000년 '어울림' 이코그라다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보고서, 안그래픽스, 2001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국 디자인 선진화를 위한 개혁·정비 3년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996
인하대학교, 책임연구자 강현주, 한국디자인사 서술을 위한 기초 연구: 기업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 변천을 중심으로, 2007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

K-DESIGN FORUM 2012 결과보고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1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순중, 한국의 디자인 50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서울디자인자산 1, 서울특별시, 2010

사례	대상	시기	특징	지원기관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1999)	사료 가치가 있는 디자인 결과물	1850-2000	기록, 수집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2002)	선행사업으로 수집된 기록		웹사이트 개발	
한국디자인유산 (Korea Design Heritage 2008)	생활 문화의 결과물	20세기 후 — 21세기 초	목록화, 기록, 의미 부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
Korea Design Heritage 2010	시각, 제품, 건축 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디자인자산 1 (2010)	서울의 건축물, 공간, 유물	조선시대 ~ 현재	서울 유산 중심, 기록, 수집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자산 2 (2012)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2012)	디자인 박물관 · 아카이브	1800-2014	기록, 수집, 보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디자인 50선 연구(2014)	시각, 제품, 건축 디자인	1945-2014	목록화, 기록, 의미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표 3. 공공기관의 디자인 사료 연구사업의 비교

이 외에 발굴한 디자인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디자인 사료와 내용이 복합된 방식이다.¹⁵⁾ 그 중에서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와 ‘서울디자인자산 1, 2’는 알려지지 않았던 ‘디자인 자료’ 발굴에 가깝고, ‘한국디자인 유산(Korea Design Heritage 2008)’, ‘Korea Design Heritage 2010’, ‘한국의 디자인 50선 연구’는 통계 결과에 의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정하는 취지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 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디자인자산 2, 서울특별시, 20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코리아디자인헤리티지 201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0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코리아디자인헤리티지 2008, 한국디자인문화재단, 2008

15) 동서울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암중,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 1850-2000년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1999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상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동서울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암중,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 산업자원부, 2002 웹사이트 개발, <http://www.designdb.com/history/index1.html>

각주 4), 5)는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에 직접 관련 있는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로젝트로써 처음 시작한 ‘한국디자인유산 2008’을 보완하거나 참고하여 선정 디자인을 변경하여 선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 프로젝트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불모지였던 한국디자인 자료 발굴과 함께 기초 자료 기록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9년도 사업과 2002년도 사업은 모두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1999년도의 결과물은 1041 페이지(A4 기준)의 방대한 양의 보고서로, 2002년도의 사업은 이 자료를 가지고 웹사이트 개발로 DB화를 진행하려는 취지였다. 최근에 진행된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는 해외 디자인 보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디자인 전문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예로 한국디자인 자료 보존 및 아카이브 현황이 전무한 현실을 드러난 보고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는데, 디자인 자료 발굴 보다는 아카이브 구축에 중점을 두어 아카이브 설립 전단계인 국립디자인박물관 설립,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서의 고려사항인 관리 시스템 개발, 수장 공간 확보, 아카이브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출판 지원, 아카이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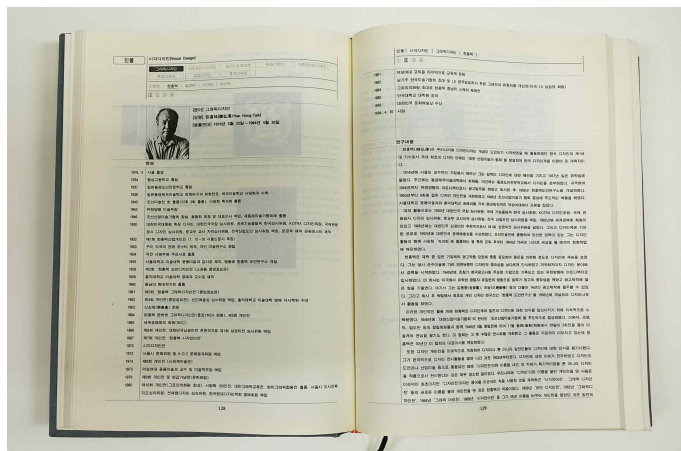


그림 108.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보고서(1999) -한홍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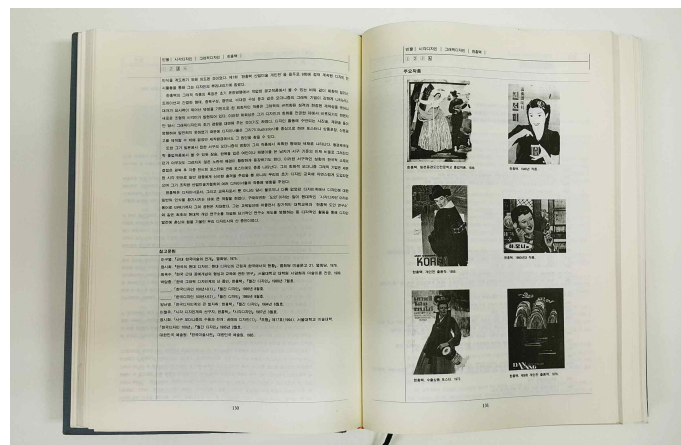


그림 109.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보고서(1999) -한홍택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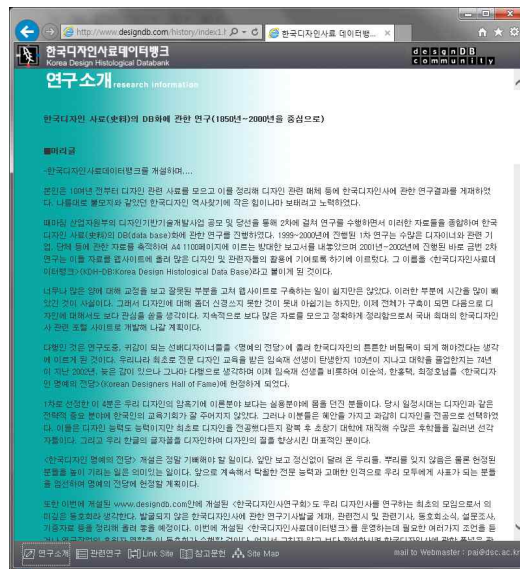


그림 110.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2002, 1



그림 111.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2002 -한홍택 1



그림 112.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2002-한홍택 2, 작품 1점 당 평균 사이즈 130x190 pixel, 흑백, 18.4K



그림 114. Korea Design Heritage 2008 전시 포스터



그림 115. Korea Design Heritage 2008 전시 2



그림 116. Korea Design Heritage 2008, 쿠쿠밥솥(1998), 철가방, 돌침대(1990년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17. 서울디자인자산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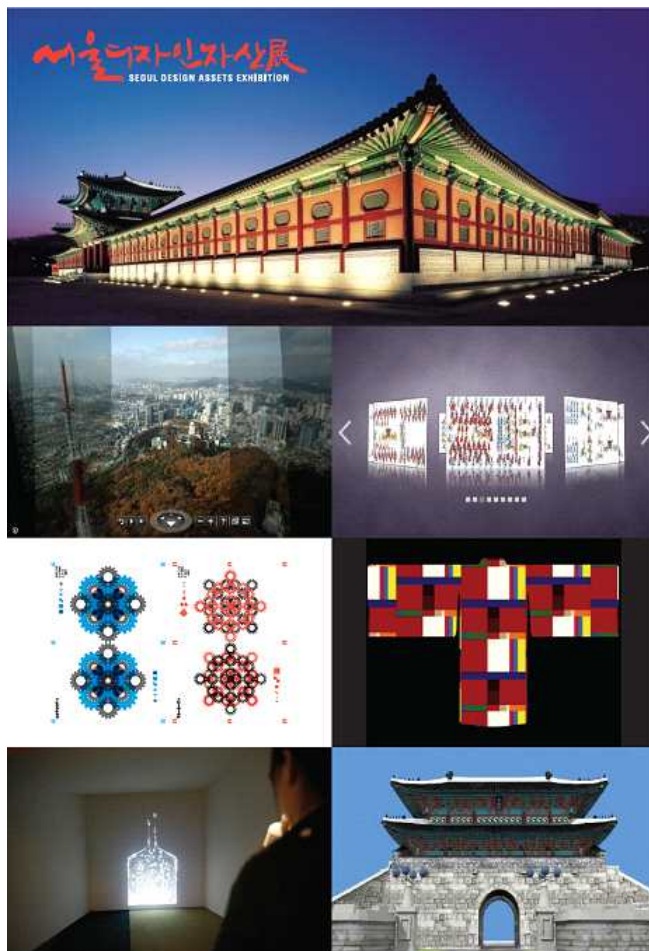


그림 118. 서울디자인자산전 2010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19. 서울디자인자산전, 홍대앞



그림 120. 서울디자인자산전에서 관객의 인터랙션 참여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60년대



〈금성라디오〉

그림 121.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0, 1960년대, 금성라디오

70년대



〈오리표 싱크대〉

〈아름로 가전〉



〈포니〉



〈담배〉

그림 122.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0, 1970년대아폴로가전, 오리표 싱크대, 포니, 담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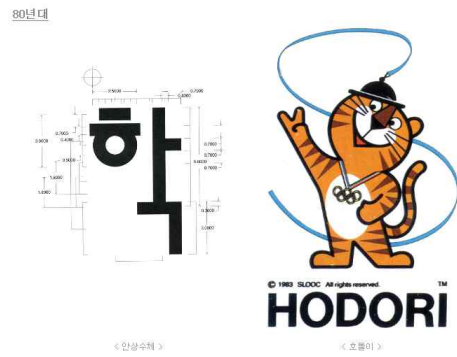


그림 123.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0, 1980년대, 안상수체, 호돌이



그림 124.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1, 뉴욕 전시 1



그림 125.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1, 뉴욕전시 3



그림 126.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1, 뉴욕전시 5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27.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표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목차

1. 서론	5
1.1 연구 배경 및 목적	6
1.2 연구 범위	8
2. 디자인 아카이브의 유형과 체계	11
2.1 디자인 아카이브의 위상과 기능	12
2.2 디자인 자료의 특성	13
2.2.1 디자인 실무 및 문화 모델	13
1) 디자인 실무의 유형 분류	15
2) 디자인 문화	24
3) 디자인 제도	24
2.3 디자인 자료의 유형별 분류	25
2.3.1 디자인 실무의 자료 유형	25
1) 디자인 생산물	25
2) 디자인 프로세스 관련 자료	25
3) 자료 선정 방식	26
2.3.2 디자인 문화의 자료 유형	26
1) 전시와 출판 중심의 자료 수집	26
2) 시대별, 주제별 기획에 따른 자료 수집 방향 결정	26
2.3.3 디자인 제도의 자료 유형	27
1) 디자인 정책 자료	27
2)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	27
3) 디자인 정기간행물 및 도서	27
2.3.4 디자인 자료 유형별 분류	28
1) 디자인 실무의 자료 유형	28
2) 디자인 문화의 자료 유형	29
3) 디자인 제도의 자료 유형	29
3. 디자인 아카이브 및 디자인박물관 사례	31
3.1 국내외 사례	32
3.1.1 국내 예술문화 관련 아카이브 사례	32
1) 한국영상자료원	32
2) 사진아카이브연구소	35
3.1.2 유럽 디자인 아카이브 사례	38
1)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40
2)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미술관	78

그림 128.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 1

3) 영국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아카이브	116
4) 네덜란드 디자인 패션협회Premsele	166
5) 네덜란드 건축연구소NAI	171
6) 네덜란드 스테델릭현대미술관	176
7) 네덜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NAGO	178
8)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184
9) 독일 뮌헨국제디자인 박물관	185
10) 독일 바우하우스 아카이브 및 베를린 디자인박물관	188
11) 이탈리아 트리에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191
12)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195
13) 프랑스 퐁피두 센터	199
14) 벨기에 겐트 디자인박물관	202
15) 스위스 포스터 컬렉션	205
16)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207
17)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210
3.1.3 일본 디자인 아카이브 사례	212
1)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212
2) 인쇄박물관	248
3) DNP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252
3.1.4 미국 디자인 아카이브 사례	257
1) 쿠퍼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257
2) 뉴욕현대미술관	271
3)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275
4)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벨리 디자인센터	277
5) 뉴욕국제디자인센터	279
3.2 디자인 아카이브의 유형별 분류와 사례	280
3.2.1 유형별 분류	280
3.2.2 운영주체별 분류	280
3.2.3 디자인박물관 종류별 분류	281
1) 근대 이전의 장식미술 컬렉션 소장 기반	281
2) 명칭에 '디자인'을 사용하는 디자인뮤지엄	281
3) 특정 분야의 디자인뮤지엄(패션, 자동차, 사진,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등)	282
4) 명칭 자체에는 '디자인'이 없지만 디자인 컬렉션과 디자인부가 있는 일반 미술관	282
4. 디자인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	285
4.1 디자인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고려사항	286
4.1.1 디자인 아카이브의 성격 규정: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286
4.1.2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의 관계 설정	287
4.1.3 디자인 자료 수집의 선정 방식 결정	287

그림 129.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 2

4.2 디자인 아카이브의 역할과 과제	290
4.2.1 자료의 문화적 생태계로서의 디자인 아카이브	290
1) 자료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90
2) 디자인 아카이브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보급	290
3) 수장 공간의 확보	291
4.2.2 디자인 아카이브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출판 지원	291
1) 디자인 실무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 지원	291
2) 디자인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역사 연구 지원	291
3) 기존 및 신생 디자인 아카이브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	292
4) 디자인 아카이브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지원	292
5) 정기 간행물 및 디자인 아카이브 총서 출판 기획	292
4.2.3 체험 교육의 미디어로서의 디자인 아카이브	293
1) 전시 기획 및 지원	293
2)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293
3) '디자인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93
4.3 디자인 아카이브의 단계적 추진 과제	294
4.4 디자인 아카이브의 향후 추진 방향	296
4.4.1 디자인 아카이브로서의 국립 디자인박물관 설립	296
1) 아카이브 기능에 중점을 둔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설립	296
2) 디자인박물관의 필요성	296
3) 세계 각국의 국립디자인박물관 설립 현황	297
4) 박물관의 일반적 기능 및 유형	298
5) 디자인 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	299
6) 전시자료 확보 및 관리	300
7)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304
8) 해외 사례: 쿠퍼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미국미술아카이브	308
4.4.2 디자인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318
1) 디자인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318
2) 국립 디자인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구조	319
3) 디자인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가치와 기대효과	325
4) 향후 선행되어야 할 기초 연구	326
5)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례분석: 도서관 협력망, 미국의 박물관, 미술관 정보네트워크, 무사시노 미술대학 정부지원 사례	327
5. 결론	335
6. 부록	341

그림 130.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 3

(4) 정기간행물

잡지와 기사는 6하 원칙에 의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를 반드시 포함해서 기사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특성 상 다루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있다.

일간지와는 달리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발행된 잡지는 매일 급하게 기사를 작성해야하는 부담이 없는 미디어로 주제를 깊게 다루고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싣는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지 않은 디자인 자료가 비교적 우수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기사의 장점인 정보도 정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잡지사의 기획에 따라 주제가 선별되므로 당시의 부분적인 디자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1970년 발간된 <디자인>은 현재 <design db>로 제호를 변경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계속 발행하고 있으며 1976년 발간된 <월간 디자인> 역시 (주)디자인하우스에서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다. 그 외에 <코스마>, <디자인네트>와 같이 전문 매거진 회사에서 발행하다 폐간, <D + []>처럼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이 발간하다 재단의 성격이 변경되어 폐간, <WD(world design)>처럼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잡지를 만들었다 폐간되는 등 다수의 디자인 잡지들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문제는 이 잡지들의 보존 상태이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수십 년 간 발간된 정기간행물을 보존하는데 ‘디자인’ 기록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약하다 보니 대부분 처분되었고 미술 전공에 대한 인식이 높은 홍익대학교에 일부분 누락된 채로 보존되어 있다. 심지어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모 대학도서관에서 공간부족으로 다른 분야의 정기간행물은 보관하고 디자인 매거진을 가차 없이 처분한 경우도 발견하였다.

매거진	발행 사항	발행처
월간디자인 DESIGN	vol. 1(1976)–vol. 448(2015 현재 계속 발간)	디자인하우스
design db (디자인포장–산업디자인–design db로 제호 변경)	(1970년 창간호)–vol. 188(현재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월간코스마 COSMA	vol. 1(1988)– vol. 59호(1994)	코스마디자인
디자인네트 Design net	vol. 1(1997)– vol. 179(2012)	디자인네트
WD(world design)	vol. 1–vol. 5	디자인연구사
D + []	vol. 1(1999)– vol. 5	한국디자인문화재단

표 4. 홍익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디자인 정기간행물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발행되는 <design db>와 <월간 디자인>은 각 발행처에서 모두 보존하고 있으나 기사가 필요할 경우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월간 디자인>은 회원 가입을 한 정기구독자에게만 옛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design db>는 최근 기사는 사이트에 오픈되어 있으나 오래된 기사는 검색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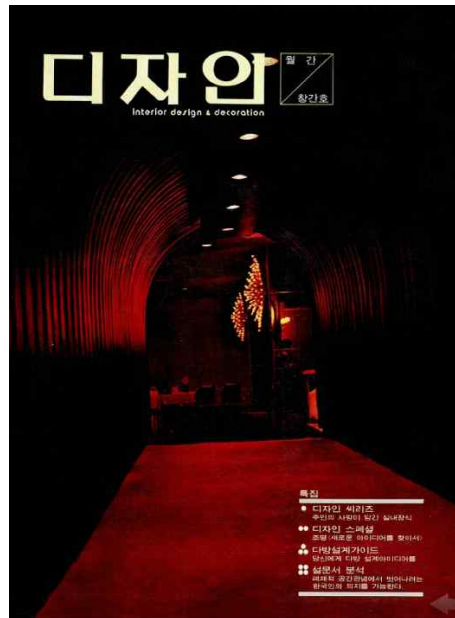


그림 131. 월간디자인 vol.1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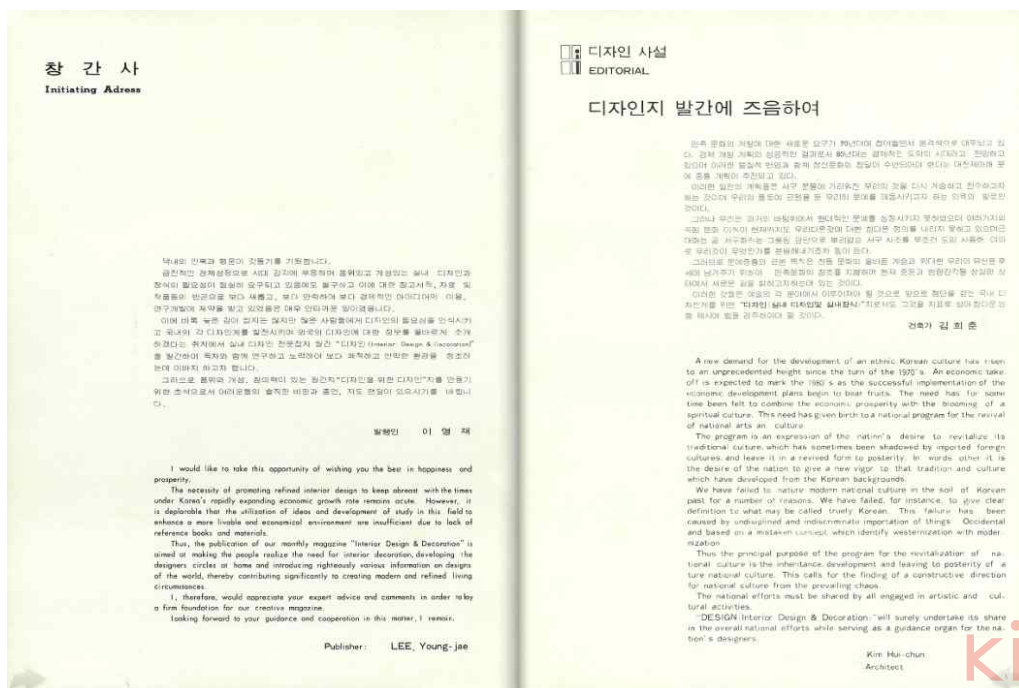


그림 132. 월간디자인 vol.1 창간사



그림 133. 월간디자인 vol. 400



그림 134. 월간디자인 vol.445



그림 135. 디자인포장 창간호



그림 136. 산업디자인 vol.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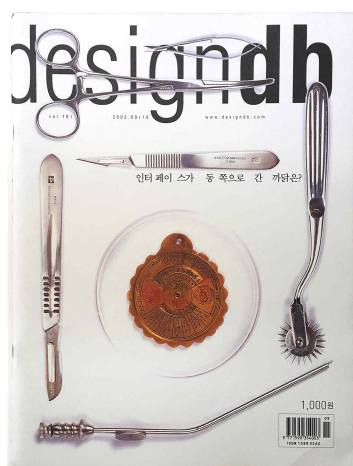


그림 137. design db vol. 132, 181, 155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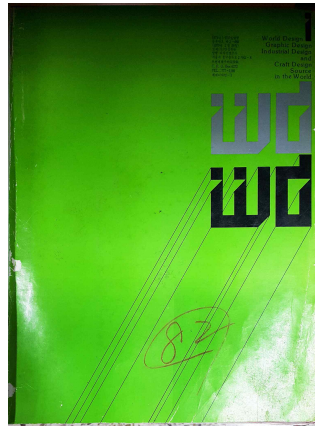


그림 138. WD(world design)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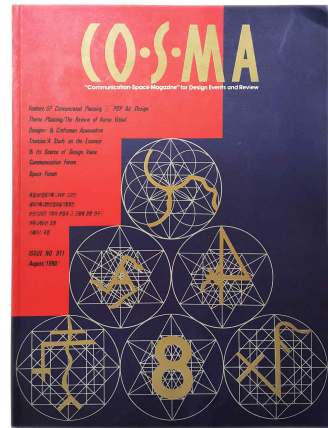


그림 139. COSMA vol. 11



그림 140. D+ vol. 1 창간호



그림 141. D+ vol 4



그림 142. 디자인네트 vol.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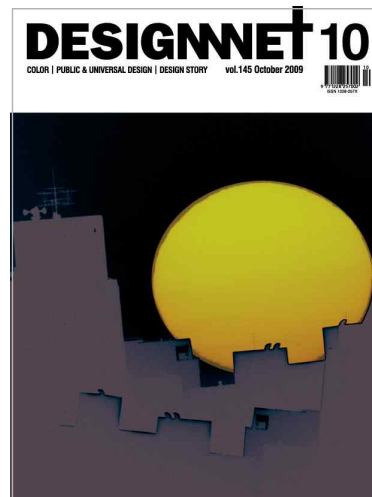


그림 143. 디자인네트 vol. 145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매일 발간하는 기사는 잡지와는 달리 기록이 더 풍부하다. 기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나 6화 원칙을 반드시 지켜 작성하므로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가장 정확한 편에 속한다. 무엇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 매거진은 일부분만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발간하고 있고 대부분은 폐간되었고 그 일부도 1970년대에 나오기 시작해 그 이전의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일간지의 신문은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발간된 신문은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의 디자인과 디자인을 둘러싼 인접 분야와의 관계, 주요인물, 디자인 작품 등 자료를 추적하고 정보화시키기에 많은 참조를 할 수 있다. 한국에 디자인이 산업과 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발전 과정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디자인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기 전 시행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에서의 표절 사건과 공예와는 다른 독립된 분야로 성장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이슈에 대한 신문사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당시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래된 기사는 디지털화되어 라이브러리로 보존되어 있어 검색할 수 있다. 오창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계, 투시법, 미인대회, 우량아 선발대회, 문화주택, 백화점, 기차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한 이미지는 모두 동아일보의 옛 기사의 내용과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낮은 해상도와 흑백이미지로 보존되어 있어 생생한 시각자료는 아니지만 당시의 생활상과 디자인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144. 外國(외국)것 본뜬 것, 경향신문5면, 1966.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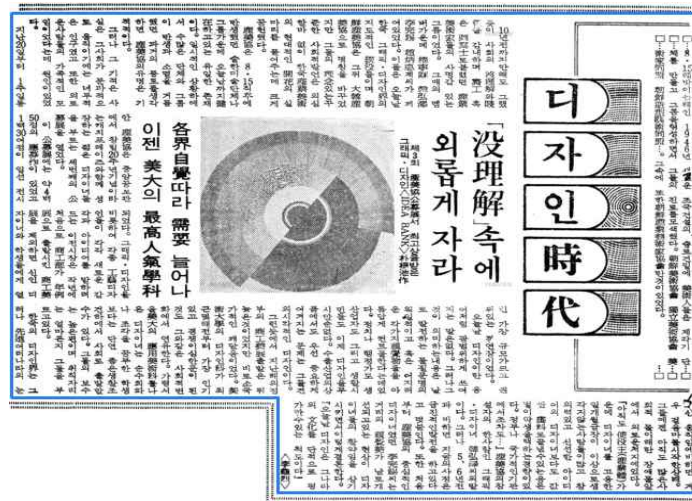


그림 145. 디자인시대(시대), 경향신문5면 1967.06.26.



그림 146. 산업디자인 현재에서 미래까지-서울 속 영국 600, 매일경제 1994.10.16.

(5) 기타 : 도록 - 개인, 협회, 그룹 작품 전 등

전시회 작품을 수록한 도록은 디자인 자료의 가치가 높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는 없어진 협회나 작고한 원로 디자이너 등 작품을 접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도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작고한 디자이너의 작품 공개를 꺼려하는 유족의 경우 사료 보존 이전에 작품 접근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료 보존은 물론이고 현황 파악도 어렵다. 또한 현재 활동하지 않는 디자이너의 작품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작품 도록이다. 둘째, 디자이너에 대한 아카이빙에서 작품 변화를 추적해볼 수 있다. 외부에 공개될 때 일관된 디자인 작품 성향을 보여주는 디자인 외에도 그 디자이너의 성향과 스타일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셋째, 시대상을 반영한 주제로 협회나 그룹전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이미지 기록물로서의 가치이다.

문제는 도록 자체의 보존이다. 현재 존속하건 그렇지 않건 협회의 도록을 꾸준히 누락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도서관에는 일부 기증자의 도록이 몇 권 정도 소장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보존하는 경우라도 일정 시기가 되면 부피와 관리 문제로 처분해버린다. 1960-70년대부터 꾸준히 개인전, 협회전, 그룹전 활동을 해왔던 디자이너들에게 도록을 문헌자료로 협조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였다.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보존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협회도 마찬가지인데, 해방 이후부터 존속해온 협회들 중 지금까지 존속하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없어졌다. 활동 멤버가 비슷해 다른 명칭으로 협회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도 전시도록이나 협회의 활동 문헌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무국 이전 시 이전 자료들은 대부분 정리한다고 한다. 그룹전도 역시 유사한 현황이다.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를 비롯해 저장 공간이 다양해지고, 촬영에서 보존까지 간단한 과정을 거치지만 옛날 작품은 컴퓨터가 아니라 직접 제작하고 슬라이드로 촬영한 후 필요할 때마다 인화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이 녹록치 않다.

그 외에 안그라픽스의 바바프로젝트처럼 시리즈로 동시대 디자이너들의 작품집 출판하거나 개별 디자이너의 작품집이 출판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47. 안그라픽스의 바바프로젝트, 왼쪽 위부터 조영제, 권명광, 윤호섭, 이성표, 안상수, 김현, 서기훈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48. 그래픽디자이너인 김교만의 공예작품, 혼합재료



그림 149. '에너지'를 주제로 한 KOGDA창립전 도록, 표지 디자인 류재우



그림 150. 안상수, '에너지'를 주제로한 KOGDA 창립전에 출품한 작품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6) 결론과 제언

- 단행본, 논문, 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기사는 디자인 자료 자체보다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미디어이다. 유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이 상이하므로 아카이빙에 활용할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 단행본은 통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한국디자인사가 대표적이나 비평, 특정인물의 대답이나 인터뷰, 디자이너가 저자이면서 자신의 글과 작품을 신는 경우, 기업의 사사이지만 한국디자인 역사로 활용 가능, 타분야(공예, 회화 등)에서 디자인사 분석, 세계 디자인사 일부로 한국을 다루는 관점 등으로 저술된다.

- 논문은 한국디자인역사의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며 연구 필요성 인식 제고와 고취 효과가 뛰어나다. 학자로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면서 단행본, 연구프로젝트(보고서), 기사나 칼럼 등 주변 연구 활동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 보고서의 경우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근현대디자인사 발굴 및 자료 보존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성과물이며 전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 일반인에게 한국디자인 역사의 식 공감대 형성 효과가 높다.

- 디자인 전문 정기간행물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발행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몇 권 발행한 후 폐간된다. 잡지는 기사를 깊게 파고들 수 있으며 신는 이미지 자료의 질이 높고 일간지 기사는 질 낮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6화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술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간지는 오래된 기사라도 오픈하여 디지털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매거진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료 검색에 비용과 절차가 따른다.

- 문헌 정보 중 작품집은 단행본 형태로 나오거나 전시 도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자료로 활용하기에 가장 질적 수준이 가장 높으나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미디어의 편리함이나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 디자인 자료 발굴 및 보존이 어렵지 않으나 1990년대 프린팅 미디어까지의 디자인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원로 디자이너의 경우 자료 발굴과 협조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현재의 한국디자인사의 연구자는 논문을 비롯해 단행본, 보고서, 칼럼이나 기사 등 대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단조롭고 편향된 연구로 치우칠 수도 있다. 자유로운 역사관과 해석은 보장되어야 하나 다소 의도적인 왜곡이나 누락, 과장 등에 의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박물관, 아카이브

(1) 유럽

①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www.vam.ac.uk/>



영국의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은 1852년 런던에서 열린 '만국산업박람회'의 성공을 기념하고 그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품 박물관(Museum of Manufactures)'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모든 예술 작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람들을 교육 시키며, 영국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85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으로, 189년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으로 개명하였다.

■ 특징

위치 : Cromwell Road, London SW7 2RL, United Kingdom

- 1,197,637점의 예술품, 1,079,668점의 도서 자료, 878점의 기록문서 등 총 2,278,183점의 자료를 보유 중이며, 소장품의 24.4%인 60,124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2015년 3월 31일 기준)
- 소장 분야는 건축, 도예, 디자인, 인쇄물, 드로잉, 패션, 가구, 유리공예, 장신구, 금속공예, 직물, 공연예술, 사진, 페인팅, 조각 등이다.
- 문화행사, 문화교육,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및 박물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소장 자료 및 연구 자료에 대한 라이브러리(The National Art Library)를 운영한다.
- The Art Fund와 V&A를 후원하는 회원들,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약 130만 파운드)에 의해 2013-2014 한해 250만 파운드 정도의 가치를 지닌 수집품들을 아카이브에 추가하였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¹⁶⁾

- 수집 범위는 유럽과 미국 작가들의 건축 도면, 산업 디자인, 의상, 조각가의 스케치

16)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p.76-88

등 예술가와 디자이너 개인의 작품에서부터 기업의 디자인 제품 생산과 관련된 홍보물, 제품 주문 서류, 서신류, 일반 기록, 회계 장부, 사진류 등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 총 3백 여 가지의 수장 분류 항목에 따라 8만 여장의 드로잉을 포함한 'V&A 예술 디자인 아카이브'의 모든 소장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20세기와 21세기 영국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A 박물관은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비트릭스 포터 컬렉션(The Beatrix Potter Collections), V&A 아카이브 인스티튜셔널(The V&A Archive Institutional), V&A 공연예술 아카이브(The V&A Theatre and performance archive)의 4개의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V&A 박물관의 다른 아카이브들과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박물관 아카이브에서 실제 작품이나 유물들을 수집하는 반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특정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의 작품 뿐 만 아니라 작품 유통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의 예술 작가, 디자이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도서 관리자, 박물관 큐레이터, 그리고 아카이비스트들 사이의 입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 소장품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V&A 디자인 아카이브는 총 3개의 수장고가 있는데 각 수장고의 거대한 선반이 바닥에 전달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여유 공간을 두고 배열되어 있으며, 소장품의 형태와 형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관되고 있다. 위치, 보관 형식에 따라 습도, 온도 등 소장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선반은 다양한 종류의 소장품이 섞여있다. 일반인은 카탈로그를 통해 수장고의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통해 원하는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수장고 입구에 마련된 자료실을 통해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지하에 마련된 수장고는 공기 정화 장치가 마련되어 24시간 265일 가동된다. 수장고가 있는 건물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중 기후와 일조량 변화에 따라 온도 조절 장치를 가동한다.

V&A 아카이브는 공간과 예산의 현실성과 박물관 아카이브와의 차별적 성격을 고려하여 거대한 부피의 자료는 배제하는 대신 예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의 경력, 예술과 디자인 비즈니스, 디자이너의 디자인 과정, 그리고 현대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영국 예술 카운슬(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비바 백화점(Biba department store)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디자이너 루시엔과 로빈 데이(Lucienne and Robin Day, designers)
 - 패션 사진가 존 프렌치(John French, fashion photographer)
 -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에일린 레이(Eileen Gray, architect and interior designer)
 - 가구 제자사 ‘힐 앤드 선’ (Heal & Son Ltd, furniture manufacturers and retailers)
 - 크라지 캣 20세기 대중문화 아카이브(Krazy Kat Archive of Twentieth Century Popular Culture(Eduardo Paolozzi’ s collection)
 -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사 ‘제임스 포웰 앤드 선’ (James Powell & Sons Ltd, stained glass manufacturers)
 - 의상디자인 회사 ‘더 하우스 오브 워스’ (The House of Worth, Paris, couture firm)
- 그 밖에 현대 광고, 패키지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의 인쇄된 자료들이 있다.



그림 151.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전경



그림 152.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내부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53.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내부 2



그림 154.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수장고 1



그림 155.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수장고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②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www.britishmuseum.org

The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은 과학자이며 수집가였던 한스 슬론이 71,000여점에 달하는 자신의 수집품들이 자신의 사후에 잘 보존되기를 바라며 국가와 조지 2세에게 기증한 것을 기초로 설립 되어 1759년 1월 15일 대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재단 이사회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영국 여왕에 의해 1인, 국무총리에 의해 15인, 이사회 자체 내에서 5명인,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에 의해서 나머지 4인이 임명된다. 대영 박물관은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와 3년 자금 지원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비정부 공공기관이다.

■ 특징 및 소장품¹⁷⁾

- 위치 : Great Russell Street, London WC1B 3DG
- 강가 유물 61점, 네바문 무덤 벽화 11점, 앵글로색슨 유물 8287점, 폼페이 유물 94점, 중국 도자기 1630점, 밀텐홀 유물 40점, 동전과 메달 23,000점, 인쇄물 50,000점, 식물 표본집 포함 800만개의 소장품 보유하고 있다.
- 소장품의 분류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와 미대륙(Africa, Oceania and the Americas), 고대 이집트와 수단(Ancient Egypt and Subdan), 아시아(Asia), 그리스와 로마(Greece and Rome), 중동(Middle East), 휴대용 유물과 보물(Portable Antiquities and Treasure), 영국, 유럽과 선사시대(Britain, Europe and Prehistory), 인쇄물과 드로잉(Prints and Drawings), 동전과 메달(Coins and Medals), 보존 및 과학 연구(Conservation and scientific research)으로 분류되어 있다.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술연구 프로그램이 있으며 2009년부터 삼성의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운영되는 Samsung Digital Discovery Centre이 있다.
- 영국내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 대표적인 유물

· 고대 이집트와 수단(Ancient Egypt and Sudan)

대영 박물관은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주요한 이집트 유물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집트와 수단의 역사 상 거의 모든 시대를 커버하

17)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7889

는 주요한 시대적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나일강 유역의 BC. 1만년, 신석기 시대부터 12세기 콥트 시대에 이르는 1만 1천여 년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집트 유물은 초기부터 주요한 컬렉션이었는데, 1753년 한스 슬로안의 기증품에 160점의 이집트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866년 대영 박물관의 이집트 유물 컬렉션은 1만여 점이 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영국 내에 이집트탐사기금이 조성되어 이집트 유물 출토 작업이 더욱 활발해졌고, 출토된 유물들은 속속 대영 박물관으로 옮겨왔다. 1924년에는 컬렉션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유물의 수가 5만 7천여 점이나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많은 유물들이 유입되었으나, 이집트에서 유물 발굴과 유물을 국외 반출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면서 감소되기 시작했다. 현재 대영 박물관의 이집트와 수단 유물은 11만여 점에 달한다. 대영박물관에서 이집트와 수단 유물들은 가장 큰 전시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대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집트 유물 컬렉션의 4%에 불과하다고 한다.

· 그리스와 로마 유물(Greek and Roman Antiquities)

대영 박물관의 그리스와 로마 유물 부문 역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주요한 고대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10만 점이 넘는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BC.3200년 경 그리스 청동 시대로부터 AD.4세기 로마제국 콘스탄틴 1세 시대까지의 주요 유물들이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분리해온 주요 조각품들이 포함,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영묘(Mausoleum at Halikarnassos)의 유물,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Temple of Artemis at Ephesos)에서 출토된 유물, 이탈리아, 에트루리아의 고대 보석류, 청동, 그리스 화병들, 로마의 유리와 은제품 등이 있다.

· 중동 유물(Middle East)

과거에는 고대 근동유물(Ancient Near East)로 불리던 이 컬렉션은, 아시아 유물 부문으로부터 이슬람 유물들이 유입되면서 그 명칭이 ‘중동 유물(Middle East) 부문’으로 바뀌었다. 약 33만여 점의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라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시대부터 7세기 이슬람 문명 초기까지를 커버하는 컬렉션들은 고대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 님루드(Nimrud)와 코사바드(Khorsabad), 니스웨(Nineveh) 등에서 발견된 부조들과 수메르인들의 보물들, 니스웨에 있던 왕립도서관의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동 유물 부문의 대표적인 컬렉션들은 13개의 전시실에 나뉘어 약 4천 5백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도자기, 회화, 타일, 유리 공예품, 비문 등의 이슬람 미술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 아시아 유물(Asian)

대영 박물관의 아시아 유물은 한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의 BC.4000년 경 신석기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물들이다. 한국의 유

물은 고려청자매병, 신라 시대 금귀고리, 조선 지국천왕 등이 있다. 인도의 라임스톤으로 제작된 부처 부조인 ‘아마라바티(Amaravati)’, 일본의 고전 그래픽 아트 작품, 중국 둔후양 동굴에서 출토된 부처 그림들, 청동 유물, 옥 제품들 등이 유명하다.



그림 156. 대영박물관 전경



그림 157. 대영박물관 자료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58. 대영박물관 내부 1



그림 159. 대영박물관 내부 2

③ 영국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아카이브 Design Museum

<https://designmuseum.org/>

**DESIGN
MUSEUM**

1989년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고, 흥미진진하며, 매력적인 디자인 박물관이 되는 것이 디자인 박물관의 목표이다.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인 박물관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디자인은 세계적인이다.

디자인은 단순히 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포함된다.

디자인은 필요에 응답하고, 발전과 변화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디자인은 세계를 설계하는 필수적 도구이다.

■ 특징

- 위치 : 28 Shad Thames, London SE1 2YD
- 2003년부터 유럽 각국이 참여하는 디자인 쇼인 디자인 비엔날레(Design Biennial)를 주최하며, 동시에 매년 런던디자인페스티벌(London Design Festival)과 연계한 디자인 마트Design Mart도 개최한다. 디자인마트는 부스에서 디자이너나 일반 참가자가 작품을 전시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일종의 디자인 페어이다.¹⁸⁾
- 새롭고 재능 있는 영국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해 ‘Designers in Residence’ 라는 연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년 한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명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한다. 이 프로그램은 Art Council England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디자인 박물관은 190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가구, 조명, 가전제품, 통신기술에 관련된 3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개관 이후로 꾸준히 디자인 관련 물품들을 기증받고 있으며, Conran Foundation의 기부를 받아 소장품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림 160.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아카이브 전경

18)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115



그림 161. 런던 디자인 뮤지엄 내부 1



그림 162. 런던 디자인 뮤지엄 내부 2

④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University of Brighton Design Archives

<http://arts.brighton.ac.uk/collections/design-archives>

영국 디자인과 20세기의 세계적 디자인 기관들의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모든 자료는 외부 학자들과 그들의 학술연구를 위해 공개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AHRC,

DESIGN
archives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JISC와의 협력활동과 후원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2010년 HEFCE 박물관 기금으로부터 막대한 후원을 받았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자세한 소장품 정보는 아카이브 허브라는 영국 대학 아카이브 포털에 추가 되어 있다.

Archive Hub : <http://archiveshub.ac.uk/index.html>

– 수장 시설¹⁹⁾ : 새로운 디자인 아카이브가 신설되면 확보된 자료를 분류하여 아카이브 허브Archive Hub에 가장 먼저 등록한 후 추가 세부 분류 및 정리 과정을 거쳐 상세 수준의 설명을 추가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종이 문서 형태로 입수되기 때문에 디지털 변환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현재 그랜드 퍼레이드 건물 지하에 2개의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4년 디자인협회가 보유하고 있던 디자인 아카이브를 유치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적절한 수장고를 구비하였다. 주 수장고에는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인 이동식 저장고, 포스터를 보관하기 위한 서랍식 보관고, 산성 보호 상자, 일부 실물 다지인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있고, 디지털자료화 팀이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 수장고는 2011년에 습도 유지 시스템을 구비했고,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디자인협회 자료들이 이동식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실재 여러 단체들로부터 수상했던 물건들이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다.

– 일반 시설²⁰⁾ : 디자인 아카이브는 대여 받은 수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갖지 않고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다. 디자인 아카이브 안에는 디자인협회 도서관Design Council's library, 헨리온 도서관The Henrion library, 이코그라다 도서관ICOGRADA library 등의 도서관을 아카이브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다. 사우스 이스트 영상아카이브Screen Archive South East: 영국의 남동지역의 공공 영상아카이브이다. 1992년에 설립된 영화와 비디오 아카이브로써 이 지역의 대표적인 영상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계된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다.

Richard Hollis Archive	Theo Crosby Archive
Design Council Archive	FHK Henrion Archive
ICOGRADA Archive	ICSID Archive
Alison Settle Archive	HA ROTHolz Archive
EDwin J Embleton Archive	Brighton School of ArtArchive
Willy de Majo Archive	James Gardner Archive
Paul Clark Archive	Joseph Emberton Archive

19)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p.42-43

20)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p.42-47

WH Mayall Archive

Anthony Froshaug Archive

Vokins Archive

Natasha Kroll Archive

Bernard Schottlander Archive

Barbara Jones Archive

연구 강사, 방문 강사, 교수의 장기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과 진행 중인 연구 작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관련 회의를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공간, 교수 연구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이용하는 2개의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브라이튼 대학 디자인 아카이브는 대부분의 소장품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50-60년 많게는 100년이 훨씬 넘는 낡고 오래된 종이 문서들을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하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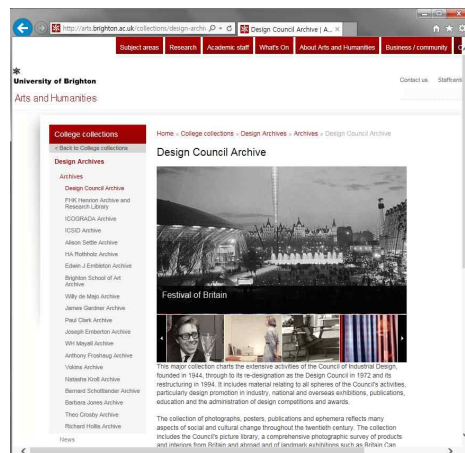


그림 163.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검색 화면

⑤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Stedelijk Museum

<http://www.stedelijk.nl/en>



스테델릭 현대미술관은 1874년 C.P. van Eeghen을 주축으로 한 암스테르담 시민 단체의 기증품과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이전까지 Rijksmuseum에 보관 중이었던 기증품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들을 1895년, 건축가 A.W. Weissman이 디자인한 미술관 건물로 모두 이전하였다. 현대 미술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암스테르담의 국제기관으로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독창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예술가와 대중들에게 독창성을 가진 예술 생산을 가능케 하는 쉽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징

- 위치 : Museumplein 10, 1071 DJ Amsterdam, Netherlands
- 액수에 관계없이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일정 금액이상을 5년 넘게 기부하는 고액기부자들은 미술관의 회원이나 이사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
- 스테델릭 미술관은 1874년부터 현재까지 90,000여점이 넘는 예술품 및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데 스틸, 바우하우스, 팝아트, CoBrA, 신인상주의 관련 예술품들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는데, 이러한 소장품들은 20세기와 21세기 디자인 변화의 중요한 움직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존되고 있다.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많은 양의 드로잉과 페인팅, 후기 인상과 폴 세잔과 빈센트 반 고흐의 주요 걸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²¹⁾
-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관 아카이브, 오디오나 영상 자료, 예술 서적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대여는 불가능하지만 스캔이나 복사는 가능하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분야	수량	구분	수량	구분	수량
디자인	913	공예	948	직물	488
가구	434	드로잉	4657	예술서적	1848
페인팅	2042	그래픽	3858	영상	682
조각	957	사진	3551	설치	41
포스터	3919				

- 수집품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미술관의 핵심 업무이며,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 연구 파트너로는 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RCE), the Dutch Postgraduate School for Art History(OSK) ,the University of Amsterdam이 있다.
- 현재는 후원을 받아 2012년 6월 부터 “Photographs & Preservation. How to

21) https://en.wikipedia.org/wiki/Stedelijk_Museum_Amsterdam

save photographic artworks for the future?" 라는 현대 사진작품 보존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디지털화 도입 : 2010년 초, 스테델릭 미술관은 디자인 기관 FABRIQUE와 증강현실 프로그램 개발 회사 Layar와 제휴하여 "ARtours" 라는 가상 아트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은 스마트폰으로 박물관과 주변 도시들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들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서 미술관은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중이 자신들의 이미지나 이야기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는 1895년부터 1980년 사이의 역사적 자료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했다. 아카이브는 150만개의 자료들을 7,000여개의 폴더로 나누어 정리하고, 관장과 구매한 사람의 서신이나 기록도 함께 기록으로 보관하였다. 현재, 아카이브의 소유권은 Amsterdam City Archive에게 귀속되었지만 전체적인 아카이브의 디지털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스테델릭미술관에서 보관할 예정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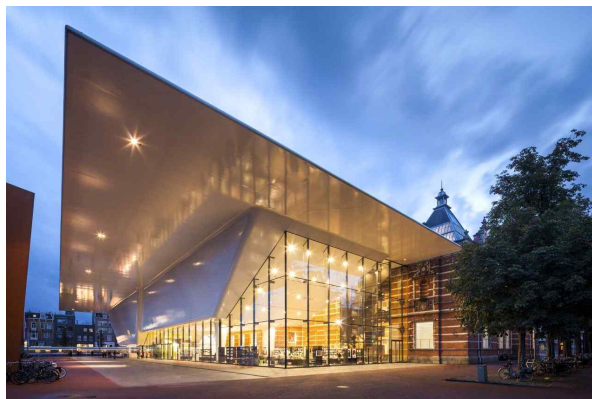


그림 164.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전경



그림 165.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수장고

22) https://en.wikipedia.org/wiki/Stedelijk_Museum_Amster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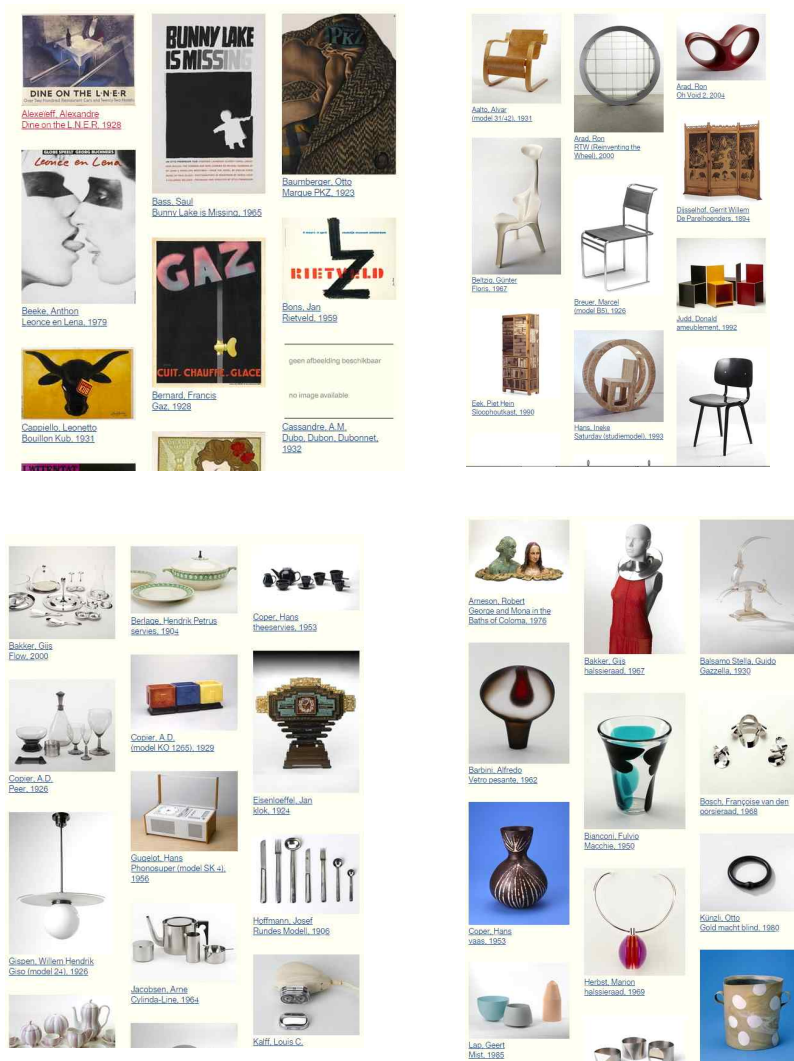


그림 166.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⑥ 네덜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Het Nieuwe Instituut(NAI + Premisela)

<http://hetnieuweinstituut.nl>

Het Nieuwe Instituut

Premisela,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Design and Fashion와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가 2013년 1월에 합병하여 Het Nieuwe Instituut가 되었다. **빠**

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맵핑하는 동시에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기관의 활동은 디자인과 혁신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특징

- 위치 : Museumpark 25, 3015 CB Rotterdam, The Netherlands
- 2013년 1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지원을 받아 국제 방문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데, 매년 12명 정도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Het Nieuwe Instituut 를 방문하고 있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아카이브 자료 검색 페이지 제공 : <http://zoeken.nai.nl/>



그림 167. 네덜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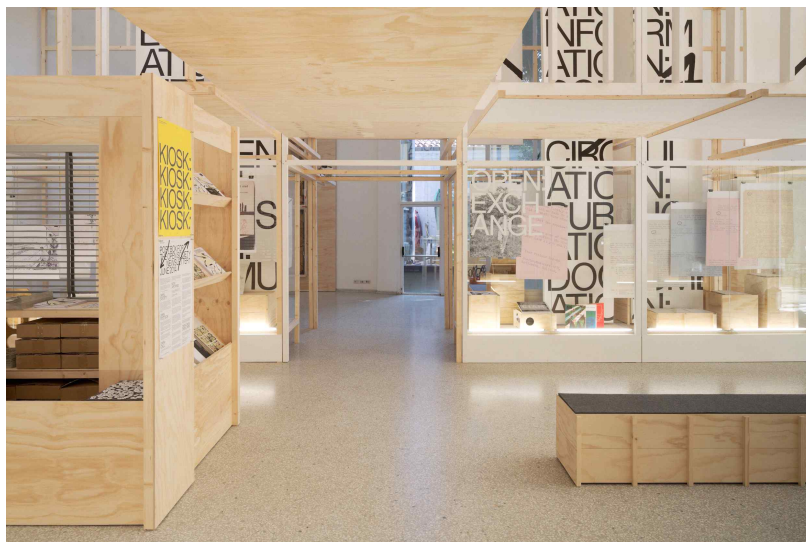


그림 168. 네덜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내부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69. 네델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델란드 건축연구소 내부 2

⑦ 네델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Nederlands Archief Grafisch Ontwerpers(NAGO)

<http://www.geheugenvannederland.nl/?/en/instellingen/>



1992년 네델란드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작품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유지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특징 및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100개 기관의 133개의 컬렉션에 포함된 883,928개의 작품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 자료 유형은 이미지, 영상, 오디오, 서적, 웹사이트이며 주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Art and Culture

Visual Art

Arts and Crafts

Fashion

Communication and Media

Theatre and music

Religion

Pop music

Geography and environment

Landscape and architecture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Maps and Atlases

Advertising

TV and Radio

Film

Cartoons

Literature

History and Society

Archeology

Economy and social structure

Politics and royals

War

Colo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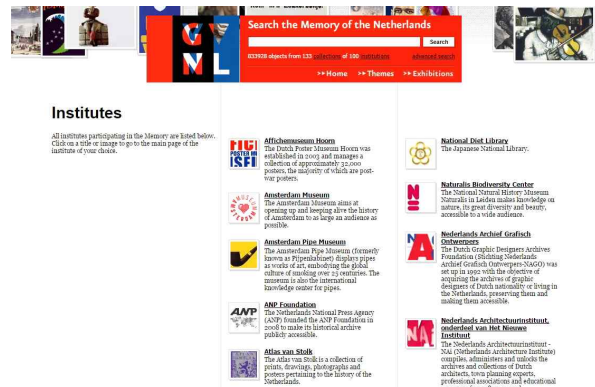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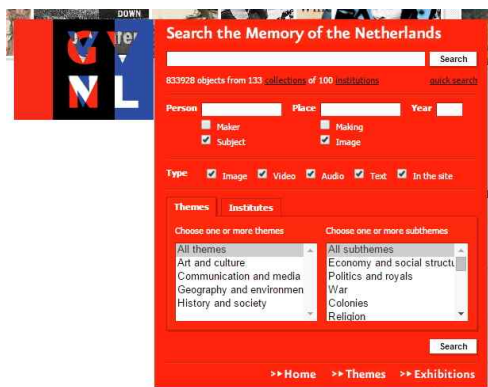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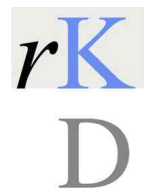


그림 170. 네덜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검색 사이트

⑧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Central Register of Design Archive(CRDa)

http://english.rkd.nl/Databases/Designer_Archives



CRDa는 네덜란드 전체 디자인 아카이브들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디자인 에이전시, 제조업체, 디자인 갤러리, 디자이너 집단별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카이브는 1700명의 디자이너와 기업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몬드리안 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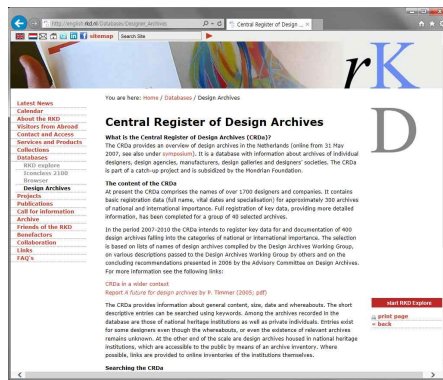


그림 171.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검색 사이트

⑨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Die Neue Sammlung, The International Design Museum

<http://die-neue-sammlung.de>

(Pinakothek der Moderne) <http://www.pinakothek.de/en/alte-pinakothek>

(Neues Museum) <http://www.nmn.de>

(블로그) <http://www.die-neue-sammlung.de/blog>

Die Neue Sammlung
The International Design Museum Munich

독일 공작 연맹(German Werkbund)이 1907년에 설립한 공립박물관으로 20세기와 21세기의 예술과 디자인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박물관의 목표이다. 뮌헨 국제 디자인뮤지엄(Die Neue Sammlung, e International Design Museum Munich)은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 디자인 뮤지엄으로 피나코테크현대미술관(Pinakothek der Moderne) 안에 위치한다. 독일어 ‘Die Neue Sammlung’은 ‘새로운 컬렉션’이라는 의미로 국립 디자인 뮤지엄을 이르는 말인데, 몇 해 전부터 명칭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e International Design Museum’이라는 영어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 특징²³⁾

– 위치 : Barer Str. 40 80333 Munich, Germany

– 뮌헨국제디자인뮤지엄은 뮌헨, 뉘른베르크, 바이덴 총 세 지역에서 디자인 교육 프로

23) [국가 대표 디자인 뮤지엄] 공립으로 운영되는 독일 내 독보적인 디자인 뮤지엄 “뮌헨 국제 디자인뮤지엄”, 월간디자인, 2012년 2월호

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룹보다는 개인 위주로 진행한다. 각계 전문가, 큐레이터, 교육 담당 직원이 직접 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세미나,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투어,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워크숍도 경험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협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²⁴⁾

- ‘국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발한 디자인 제품인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컬렉션을 구성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디자인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디자인 분야나 상황에 따라 이목을 끄는 디자인 분야도 포함한다. 특히 관심을 갖는 디자인 분야는 스포츠용품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수단인 스마트폰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의 디자인이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일본 디자인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국 등 미국과 유럽 외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디자인을 통한 소통이 그 나라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 폴 랜드의 IBM 포스터, 마리오 벨리니의 라디오(Totem), 레이몬 로이의 롤 필름(Purma Spezial) 등 공업·그래픽·응용 디자인의 대표적인 디자인 외에 80,000점 이상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품디자인과 산업디자인 분야의 소장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소장품 분류는 다음과 같다.

Design Vision	Audi Design Wall(아우디 디자인)
Vehicle Design(운송 디자인)	Computer Culture(컴퓨터)
Design History(모더니즘부터 현재까지)	Danner Rotunda(보석)
Bentwood Plywood(합판, 가구)	Perpetuum 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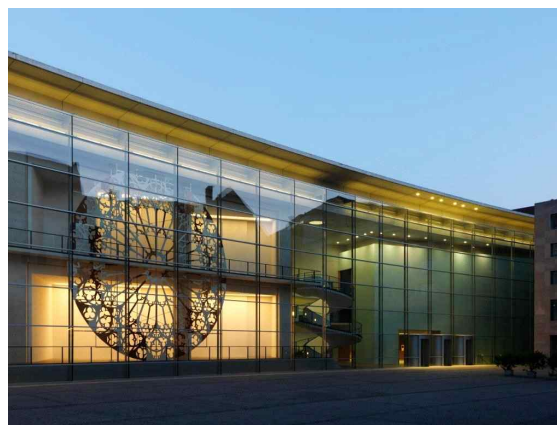


그림 172.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전경

24) 앞의 기사, 월간디자인, 2012년 2월호



그림 173.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내부 1



그림 174.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내부 2



그림 175.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3



그림 176.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4

⑩ 국립독일박물관 Deutsches Museum

<http://www.deutsches-museum.de/en/information>



Walther von Dyck(1856-1934)가 제안하여 1903년에 독일 엔지니어 협회(VDI) Oskar von Miller에 의해 설립된 국립 독일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과학 기술 박물관이며, 과학 기술과 관련된 세계의 역사적 물건들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특징 및 자료 보존 현황

– 위치 : Masterpie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sinsel 1, 80538 Munich

–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테크놀로지 박물관이다. 대략 일년에 1.5백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며,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의 전시 물품을 28,000점 가량 보유하고 있다.

– 전시장 구성

4~6 층 천문학, 해시계, 아마추어 라디오

3층 천문학, 지도제작 및조사, 컴퓨터 및자동화, 농업, 시간 관리, 중량 및 측정

2층 알타미라 동굴, 도자기, 유리, 기술완구, 종이, 인쇄, 사진&필름, 텍스트ایل, 우주 항해학(술)

1층 박물관 역사, 신 에너지 기술, 물리, 항공, 실험실, 악기

지층 입구, 미네랄 오일과 천연 가스, 야금, 공작기계, 전력 기계, 전기 전력, 해양 항법, 항공, TUM Lab, 엔지니어링, 교량 건설 및 터널 건설

지하 광업, 환경, 해양탐색, Kinds' Kingdom

– 박물관은 과학과 기술에 관한 50여 개의 전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자연과학 분야는 천문학, 측지학, 무게와 계량, 수학, 물리학으로 나뉘어 있다. 재료와 생산 분야는 농식품 기술, 광업, 석유 가스, 유리 기술, 도자기, 기계부품, 금속, 종이, 섬유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동력기, 전력, 에너지 기술·환경에 관해 전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출판 기술, 사진, 영화, 컴퓨터, 반도체, 통신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교통 분야에는 선박, 비행기·우주·철도·터널과 교량·하이드로 엔진에 관련된 전시물들이 있다.

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7484&cid=43128&categoryId=43128>

특히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가 만든 세계 최초의 비행기, U1 잠수함, 최초의 프로그램화된 컴퓨터(Conrad Zuse' s Z3), 벤츠사의 첫 모터카, 첫 디젤엔진, 더글러스 DC3(Douglas DC3), 최초의 플러그(Fischer wall plug) 등이 있다. 운송수단이나 동력기 등의 작동 원리와 방법을 설명 듣고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다. 슈라이스하임 항공전시관(the Flugwerft schleissheim), 교통전시관(the new Verkehrszentrum on the Theresienhöhe), 본 전시관(the Deutsches Museum Bonn) 등 3개의 분관이 있어 소장품을 나누어 전시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박물관이 워낙 방대해서 주요한 곳을 모두 돌아보려면 보통 2일 정도 일정을 잡아야 한다.

－ 음악 도구 분야, 3~8세 어린이들만 들어가는 동력기와 빛의 집, 대형 기타 등 1000여 가지의 재미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어린이 왕국, 박물관 타워를 보면서 라디오 송수신과 풍차, 터빈 엔진 등을 살펴보는 야외 전시공간, 나노와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그리고 특별 전시 공간 등이 있다.

－ 박물관은 교통, 항공, 컴퓨팅, 물리와 화학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양의 문서와 사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

－ Scholar-in-Residence Program : 6-12개월동안 제공하는 학술 연구 후원 프로그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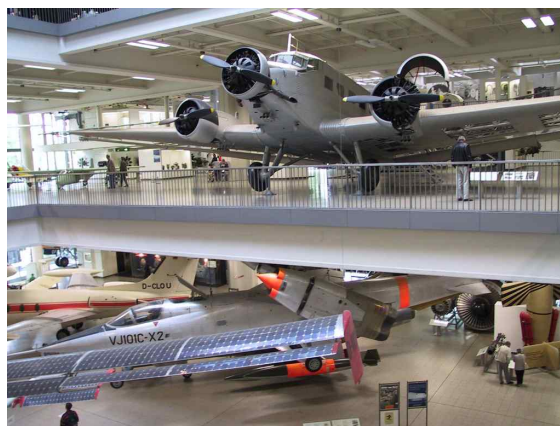


그림 177. 국립독일박물관 내부 1



그림 178. 국립독일박물관 내부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⑪ 뮌헨 BMW 박물관 BMW Museum

<http://www.bmw-welt.com/de/location/museum/concept.html>



1973년 BMW Museum 설립하여 올림픽 이후 개관하였으며 2004~2008년 BMW Welt와의 연결을 위해 시설 재편성하여 2008년 6월21일 재개관하였다. BMW welt는, 광범위한 BMW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의 유통과정을 보여주고, 방문객들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고객이 주문한 수집 차량을 전시함으로써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 특징 및 자료 보존 현황

- 위치 : Am Olympiapark 2, 80809 München, Germany
- BMW Museum : BMW의 90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전체 전시장의 규모는 5,000m² 정도이며, 25개의 다른 전시 공간에 120개 이상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바뀌는 특별전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BMW Plant : BMW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전시장 구성

House of Design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House of Company	BMW의 역사
House of Motorcycle	BMW의 오토바이
House of Technology	공기역학, 엔진 등 기술
House of Motor Sport	BMW의 레이싱카
House of Brand	광고 포스터 등 홍보물
House of the Series	BMW의 모든 시리즈



그림 179. 뮌헨 BMW 박물관 내부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80. 뮌헨 BMW 박물관 전경



그림 181. 뮌헨 BMW 박물관 내부 1



그림 182. 뮌헨 BMW 박물관 내부 3



그림 183. 뮌헨 BMW 박물관 내부 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⑫ Benz 박물관 Mercedes-Benz Museum

<https://www.mercedes-benz.com/en/mercedes-benz/classic/museum>

Mercedes-Benz Museum.

200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된 자동차 전용 박물관으로, 125년의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벤츠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벤츠 박물관은 125년 이상의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하나의 타임라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160개의 자동차와 1,500개 이상의 전시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 특징 및 자료 보존 현황

- 위치 : Mercedesstraße 100, 70372 Stuttgart, Germany

- 박물관은 120년 벤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2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886년 특허를 얻었던 전동차부터 특수 용도로 제작한 희귀 자동차, 경기용 스포츠카,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전시하고 있다. 첫 차종인 1886년 칼 벤츠가 발명한 최고 시속 16km의 가솔린 삼륜차를 비롯하여, 1927년 산 스포츠왜건 'S', 지금까지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193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500K '스페셜 로드스터', 다양한 원리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 등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²⁶⁾

- 벤츠 박물관은 9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6,500m²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 구성은 다음과 같다.

Legend 1	Pioneers	Mythos 7	Silver Arrows
Legend 2	Mercedes	Collection 1	Gallery of Voyagers
Mythos 3	Times of Change	Collection 2	Gallery of Carriers
Mythos 4	Post-war Miracle	Collection 3	Gallery of Helpers
Mythos 5	Visionaries	Collection 4	Gallery of Celebrities
Mythos 6	New start	Collection 5	Special Exhibition

2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87007&cid=40942&categoryId=34684>



그림 184. Benz 박물관 전경 1



그림 185. Benz 박물관



그림 186. Benz 박물관 내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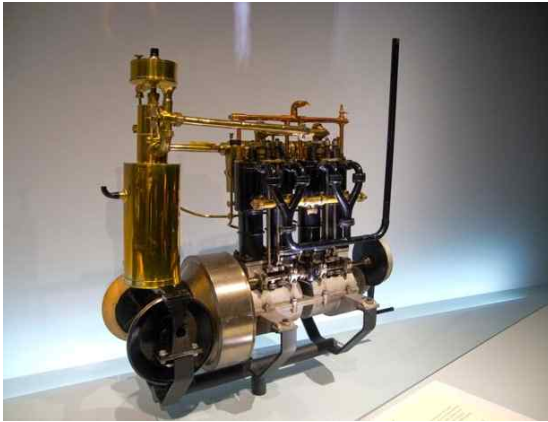


그림 187. Benz 박물관 소장품



그림 188. Benz 박물관 소장품



그림 189. Benz 박물관 내부 전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90. Benz 박물관 내부 전시 2

⑬ 독일미술공예박물관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ttp://www.mkg-hamburg.de/en>

MKG&G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MKG는 1866년 Museum for Art and Industry라는 이름으로 개관 된 것이 시초이며 과거와 현재의 좋은 디자인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할 목적으로 1877년에 Jusuts Brinckmann에 의해 설립되었다.

■ 특징 및 자료 보존 현황

- 위치: Steintorpl., 20099 Hamburg, Germany
- 지하에 Hubertus Wald Kids' World, 도서관이 있고, 지층에 고대 미술, 르네상스 컬렉션, 건반 악기, 토기와 도자기, 1층에 아르누보, 현대미술, 이슬람 예술, 불교 예술, 일본 예술, 영구 컬렉션, 2층에 동아시아, 영구 컬렉션을 소장품 중에서 선별하여 전시한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소장품 분류는 디자인, 포스터, 그래픽 아트(프린트, 드로잉, 사진 등), 현대 미술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도자기, 패션, 악기, 고대 미술, 유럽 장식 예술과 조각, 바로크부터 고전주의 작품, 동양의 예술, 이슬람 예술이다.

- 주요 소장품으로는 Buyan Kuli Chan의 무덤에서 발견된 71점의 타일 조각과 도자기, 카펫, 책 등이 있는데, 16세기 초반 Lune Abbey의 카펫은 1년에 한 번,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 짧은 기간 동안 공개된다. 또한 헨리 반 데 벨데와 폴 고갱의 가구, 일본의 다도와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인수한 아르누보 가구들을 모아 전시하는 "Paris Room"이 있다. 바우하우스의 일상 용품들, 바로크 조각들이나 공예품, 극동 지역의 유물, 디자인, 책, 그래픽, 사진 외에 1914-1945 현대미술가인 Richard Haizmann, Ernst Heckel, Karl Schmidt-Rottluff, Ewald Mataré 등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다.²⁷⁾



그림 191. 독일미술공예박물관 전경



그림 192. 독일미술공예박물관 내부 1

27) https://en.wikipedia.org/wiki/Museum_f%C3%BCr_Kunst_und_Gewerbe_Hamburg

⑭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Triennale di Milano Design Museum

<http://www.triennale.org/en>



1922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탈리아 최초의 디자인 전문 박물관으로 가치 있고 유용하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 박물관의 목표이다. 이탈리아 최초의 디자인 전문 뮤지엄으로 200년 이탈리아의 디자인 사료를 접할 수 있다. 2007년, 3년에 한 번씩 디자인 · 건축전을 연다는 의미로 명칭에 ‘트리엔날레’를 붙였고 이후 실험적인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트리엔날레 디자인박물관은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흡수하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이다. 개인 컬렉션, 기업의 주체로 운영하는 뮤지엄 등의 교류로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이탈리아 디자인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특징

- 위치 : Viale Alemagna, 6, 20121. Milano.
-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TDMKids’ 라는 프로그램으로 University of Milano Bicocca와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중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 위주의 워크샵이다.
- 디지털 정보 제공 :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트리엔날레 플러스는, 아이패드를 이용한 박물관의 멀티미디어 가이드이다. iBeacon 기술을 사용하여 관람자의 위치를 감지하고 관람자에게 적절한 위치와 시간에 예술 작품 정보를 제공한다. 트리엔날레 플러스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와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축소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은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개인 태블릿이 없는 경우, 박물관에서 유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Triennale Plus 소개 : https://youtu.be/vdAnQOSA_nc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대표적인 디자인 자료로는 에토레 소트사스의 책꽂이(Carlton), 마르첼로 니콜리의 타자기(livetti Typewriter) 등이 있으며 이탈리아 미술 · 디자인 · 건축 분야가 주 관심사이다.
- 컬렉션 분류는 Collezione Permanente del Design Italiano(영구 컬렉션), Le sedute del Design Cafe(의자), Collezione Giovanni Sacchi(지오바니 사치의 스튜디오)

모델), Il segno dei designer(디자인 도면, 스케치 등)이다.

- 아카이브는 이름, 유형, 디자이너, 회사, 프로젝트 진행 연도, 제작연도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93.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전경



그림 194.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내부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95.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내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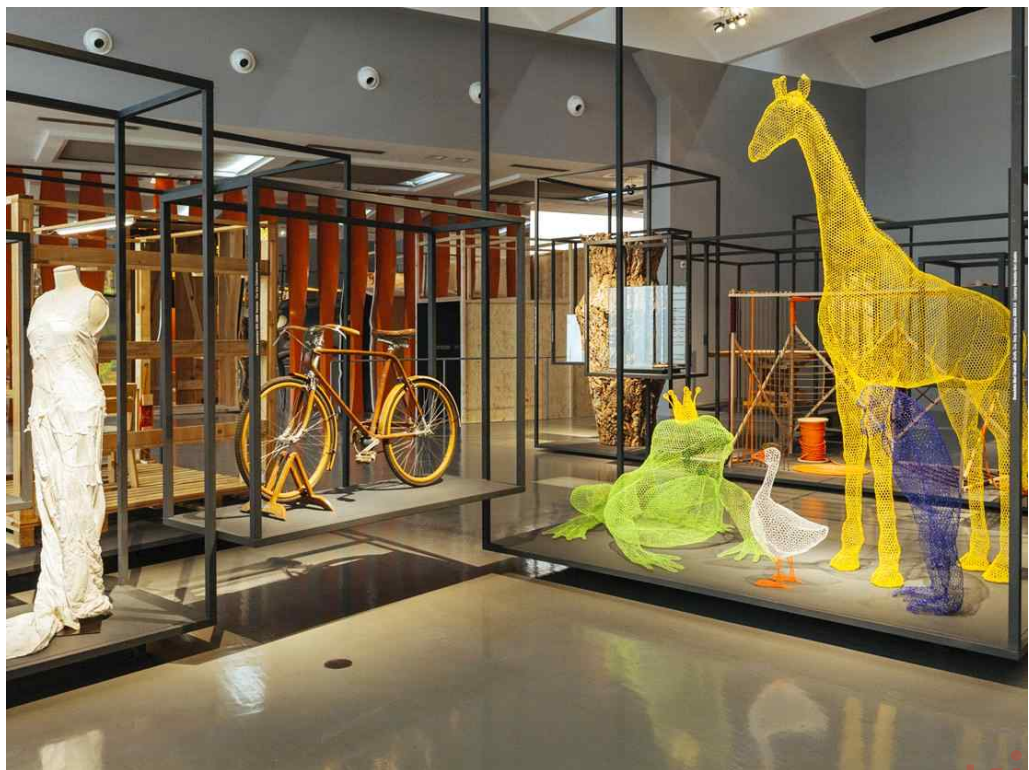


그림 196.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내부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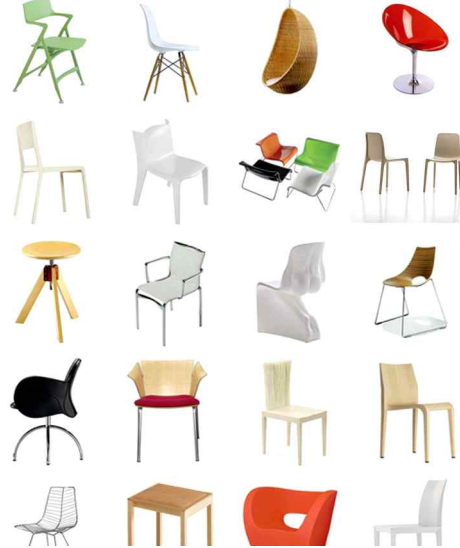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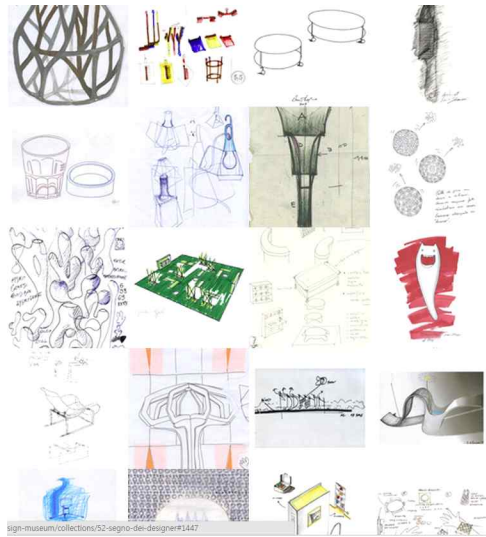


그림 197.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소장품

⑮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Museumsquartier Wien

<http://www.mqw.at/>



독일공작연맹(German Werkbund) 재단의 지원으로 2001년 설립된 MQ는 다양한 미술관과 문화 공간이 한데 모여 있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1만 8000평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과 문화를 위한 복합 공간인 MQ에서는 미술, 디자인, 디지털 아트, 건축, 연극,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유럽의 명문가인 합스부르크(Habsburg Haus) 왕가의 마구간을 개조해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1년 개관했다. 건물의 중앙 출입구를 통과하면 10개 이상의 미술관과 각종 문화 공간이 있다. 현대미술관 뮈목(MUMOK)은 20세기 중반부터의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다루며 팝아트, 극사실주의인 포토 리얼리즘, 신체의 일부를 사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에로틱한 폭력을 탐구하는 빈의 액션리즘(Viennese Actionism)이 컬렉션의 중심을 이룬다.²⁸⁾

28) 앞의 기사, 월간디자인, 2012년 2월호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특징

- 위치: Museumsplatz 1, 1070 Wien

- Artist-in-Residence program이라는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 공간

· mumok : 10,000여 점이 넘는 1,600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1959년에 첫 작품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 90개의 작품을 기반으로 개관하였다. <https://www.mumok.at/>

· musiktank : 오스트리아의 첫 온디멘드 음악 전문 스토어. 음악 역사학자와 음반 수집가를 위한 각종 희귀 음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http://www.sra.at/list>

· Az W : 오스트리아의 건축 박물관으로 건축과 건물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우르는 건축 관련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이드 투어를 포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azw.at/startpage.php?style=default&lang_id=de

· Leopold Museum : 1994년 루돌프 레오폴드가 자신이 수집한 5,000점이 넘는 예술품들을 한데 모아 민간 재단을 설립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2010년 그가 사망한 후, 오스트리아 정부와 오스트리아 국립 은행이 그의 수집품을 인수하였다. 비엔나의 분리주의 운동과 비엔나의 모더니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작품들을 포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스트리아 현대 예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곤 쉐레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http://www.leopoldmuseum.org/en/visiting/lmshop>

· Buchhandlung Walther König : 독일에서 건축과 예술 분야의 서적을 다루는 서점. 예술, 건축, 사진, 디자인 분야 뿐 아니라 국제 출판물도 다루고 있다.

웹사이트 : <http://www.buchhandlung-walther->

· Komische Kunste :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한 비엔나의 전시 공간
<http://www.komischekuenste.com/>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mumok²⁹⁾ : 현재 모든 항목에 대한 디지털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립 아카이브 법 및 기타 데이터 보호 규정에 의해 아카이브의 부분적 공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 모더니즘 : Mumok 의 모더니즘 컬렉션은 베르너 호프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표현주의, 입체파, 미래주의,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등 현대 예술사의 주요 움직임과 관련된 작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29) www.mumok.at

· The Hahn & Ludwig Collection : 이 컬렉션은 리얼리즘, 플렉서스, 퍼포먼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05년 Hahn Library의 자료들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다.

· 빈의 액서니즘 : 빈의 액서니즘은 20세기의 가장 호전적이고 급진적 예술 운동의 하나이다. Mumok은 대표적 액서니즘 작가인 Gunter Brus, Otto Muhl, Hermann Nitsch, Rudolf Schwarzkogler의 작품 뿐만 아니라, 현대 다큐멘터리와 녹음 자료, 노트북, 활동 사진, 스케치, 서신 등의 자료도 수집, 관리하고 있다. 이 컬렉션은 세계에서 액서니즘을 다루는 유일한 컬렉션이다.

· 현대미술 : 오스트리아 및 국제 예술가들의 현대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2006년에는 필름, 사진 분야의 작품을 다량으로 사들였다.

－ Leopold Museum³⁰⁾ : 컬렉션을 완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50년이나 걸렸다. 박물관은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 예술작품을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에곤 쉴레와 구스타브 클림트의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에곤 쉴레와 구스타브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환영받는 작가가 아니었으나 루돌프 레오폴드는 대중의 시선이나 의견보다는 자신의 심미적 판단을 믿었고, 그들의 작품을 꾸준히 수집하였다. 그 결과 레오폴드 박물관은 오스트리아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세계적 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 컬렉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에곤 쉴레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술
구스타브 클림트	19세기
비엔나 미술공예생산조합	세계 1차, 2차 대전 사이의 예술
비엔나의 1900&아르누보	



그림 198.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전경

30) <http://www.leopoldmuseum.org>



그림 199.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내부 1



그림 200.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내부 2



그림 201.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내부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⑩ 프랑스 퐁피두센터 The Centre Pompidou

<https://www.centrepompidou.fr/en>



1969년 퐁피두 대통령이 보부르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을 포함한 종합 문화 센터 건설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된 후 도서관 대신 국립 현대 미술관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1977년 1월 31일 지금의 퐁피두 센터가 설립되었다. 프랑스 문화 예산부처 소유의 국유 행정기관이다. 1977년 2월 2일 대중에게 개방하였고, 1997년~1999년 대규모의 리노베이션을 진행, 2000년 1월 1일 대중에게 재개방하였다. 국립 근대 미술관을 비롯해 도서관(BPI), 현대 음악 연구소(IRCAM) 등이 들어서 있다. 이 센터는 내부 보수 공사로 2년간 폐관되었다가 2000년 1월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미술관이 확대되고 도시에 최신 설비가 도입되면서 파리의 미술과 문화의 중추로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특징³¹⁾

면적 : 100,000 m²

– 위치 : Place Georges-Pompidou, 75004 Paris

–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4~5층에 위치한 국립 근대 미술관은 20세기의 미술 소장품은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한다. 프랑스 미술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미술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영화,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등의 약 1400점이 전시된다. 특히 5층에서는 '근대 컬렉션(1905~1960)' 약 900점을 공개하는데 마티스, 피카소, 칸딘스키, 레제, 미로, 자코메티 등 유명 미술가의 대작이 한곳에 모여 있다. 4층에 위치한 '현대 컬렉션'에서는 정크 아트 거장 장 텅겔리를 비롯해 앤디 워홀, 세자르, 바자렐리, 조셉 보이스 등 컨템포러리 아트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바우하우스 학교 교수들의 작품들과 현대 프랑스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작품들을 포함, 6만점 이상의 작품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2000여 점은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 자료 검색을 위해 Kandinsky Library를 운영한다.

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2792&cid=42864&categoryId=50859>



그림 202. 프랑스 폼피두센터 전경



그림 203. 프랑스 폼피두센터 내부 1



그림 204. 프랑스 폼피두센터 내부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05. 프랑스 폼피두센터 내부 3



그림 206. 프랑스 폼피두센터 내부 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⑰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Design Museum Gent

<https://stad.gent/design-museum-gent-en>

Design museum Gent

1903년 산업과 장식 예술 협회 설립으로 시작하였으며 1922-1923년에 Hotel de Coninc로 모든 소장품을 이전하였고 후에 1958년 겐트시에서 컬렉션에 대한 모든 보호 권리를 얻어 유지하다가 1992년 5월 박물관 건물 확장 후, 재개장되었다. 2014년 1월 박물관은 AGB Kunsten end Design의 일부로 귀속되었다. 벨기에에서 유일한 디자인 박물관으로, 20세기 디자인과 실제 디자인 작품의 수집과 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겐트 디자인 박물관의 핵심 목표는 컬렉션 수집 및 보존, 학술활동과 교육에 있다.

■ 특징

- 위치 : Jan Breydelstraat 5, 9000 Gent
- 박물관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가이드 투어, 워크샵, 강의 등 다양한 문화·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박물관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모든 전시장은 계단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디자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에토레 소트사스의 Memphis 디자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세라믹 공예, 유리·가구 디자인 등 아르누보부터 근현대 전반에 걸친 디자인아르누보부터 근현대 디자인까지 벨기에 장식예술 문화와 현대 디자인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 꾸준히 컬렉션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최근 구입한 작품으로는 Andrea Branzi의 "Mirro closet with porcelain decoration", Karim Rashid의 "Silver Ray", Humberto en Fernando Campana의 "Nazareth N° 5",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제작한 자동 음료 디스펜서, "Coca-Cola Freestyle"(2011년 굿디자인 수상작), Andrea Branzi의 "Artist Proof nr 2", Barbara Nanning의 "Mikado" 등이 있다. 주요 소장품 및 작가는 다음과 같다.

18세기 벽화	에토레 소트사스	Paul Hankar
실크 벽지	Henry van de Velde	Gustave Serrurier-Bovy
18세기 상들리에	미카엘 드 루찌	마이클 그레이브스
프랑스 가구	Massimo Iosa-Ghini	Marco Zanini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아르누보 컬렉션

Victor Horta

Mateo Thun

Martine Bedin

Nathalie Du Pasquier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세라믹, 유리공예, 가구



그림 210.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전경



그림 211.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1



그림 212.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13.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3



그림 214.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⑱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Museum Fur Gestaltung

<http://www.museum-gestaltung.ch/en>



■ 특징

- 위치 : Toni-Areal, Pfingstweidstrasse 96, 8005 Zürich
- 500,000여 점의 포스터, 디자인, 응용 미술, 그래픽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5-7차례의 특별 전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의 정보와 성격을 알리고 있다. 주요 분야는 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이다. 연계되어 있는 벨리브 미술관(The Museum Bellerive)은 매년 과거와 현재 디자인 경향과 그 관계에 중점을 둔 2-3차례의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분야는 디자인, 그래픽, 응용미술, 포스터이며, 현재는 흔히 사용되는 일상의 물건을 포함, 현대미술 작품과 해외 작품, 스위스 디자인 제품을 주력으로 수집하고 있다.
- 박물관에서 출판된 고전 디자인, 디자인 이론과 활용, 현재 디자인 테마와 실험 등의 분야에 관한 서적들은 박물관 전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모든 연구 자료와 결과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전시 되거나 문서로 존재하며, 박물관 외부의 연구자들에게 모두 공개 된다
- 컬렉션 분류는 다음과 같다.³²⁾

· 디자인 : 일상 디자인을 포함한 10,000여 개의 제품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명 디자이너들의 20,000개의 패키지 디자인도 보유하고 있다.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의 대량 생산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컨셉, 프로젝트 연구, 디자인, 드로잉, 사용가이드, 특허, 광고, 텍스트, 디자인 스튜디오, 기업 및 단체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스위스 디자인에 대한 학술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 그래픽 : 박물관이 설립되던 시점부터 시작되었는데 활판인쇄를 발명한 독일의 구텐베르크부터 현재까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그래픽 디자인의 미적, 문화적 변화들을 담고 있다.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스위스 박물관 중 유일하게 유럽 그래픽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의 예술 공예 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그래픽 분야를 모두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드로잉, 인쇄물, 일러스트 북, 15세기~20세기 사이의 교과서에 초점을 맞추

32) https://en.wikipedia.org/wiki/Museum_of_Design,_Z%C3%BCrich

어왔다. 근래에 예술서적, 동아시아 그래픽 작품, 판화, 사진, 광고 등의 분야를 추가하였다. 현재는 광고, 인포그래픽, 폰트, 타이포그래피와 책 디자인 분야의 작품이나 자료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혁신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와 광고 에이전시, 중요 디자이너들의 작품, 기업 디자인등과 관련된 작품을 집중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규모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

· 포스터 :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의 포스터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컬렉션이다. 330,000여 점의 포스터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120,000점은 사진자료와 색인 작업을 끝마쳤다. 포스터 컬렉션은 정치, 문화 및 상업 등 다양한 장르의 포스터를 비롯해,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세계 포스터의 역사를 문서화해 보관하고 있다.

· 응용미술 : 15,000점이 넘는 작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응용미술 컬렉션 중 하나이다. Museum of Art and Design에서 교육 목적으로 시작된 이 컬렉션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유리, 세라믹, 섬유, 가구 분야의 다양한 작품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 미국과 현대 일본 작품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예술가와 디자이너, 장인들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윌리엄 모리스, 에밀 갈레, 르네 라 리크, 헤르만 오브리스트와 헨리 반 데 벨데의 작품들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Sophie Taeuber-Arp와 Alexandra Exter의 마리오네트와 꼭두각시 인형들의 컬렉션도 보유하고 있다. 응용미술 분야에는 악기도 포함되는데, 200여개의 역사적 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 아카이브의 목적과 소장품 설명³³⁾

취리히 디자인 뮤지엄의 디자인(제품디자인) 컬렉션은 그들의 4가지 컬렉션(포스터/디자인/응용미술 컬렉션/그래픽스) 중 한 부분이다. 원래는 모델, 교육 재료, 공예와 디자인 교육 매뉴얼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분야로 발전시켜 1987년에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디자인 컬렉션은 20세기 디자인(대량 생산품과 시대의 철학)을 나타낸다. 수집된 디자인 자료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아이템 뿐 아니라 무명의 혼한 물건들도 포함한다. 10,000개가 넘는 디자인 소장품과 20,000개 정도의 패키지와 제한된 수로 제작된 프로토타입과 모델들이 추가되었다. 교육적인 조사 작업에 필요한 디자인 자료 수집과 아카이빙은 병행되는데 디자인 드로잉, 사용자 매뉴얼, 저작권 기록, 광고 재료, 자료 텍스트, 스튜디오, 회사 등의 데이터는 서로 연계되어 기초 정보가 된다.

디자인 자료 수집은 주로 스위스 모던 디자인이다. 특히 아직 생존해 있는 디자

33)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pp.158-159

이너, 디자인 스튜디오(회사)들의 작품에 집중한다. 기능, 미적가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한다. 디자인상을 받은 것도 모은다. 중요한 스위스 디자이너의 전체 작업을 모으는 것도 디자인 컬렉션의 중요한 업무이다.

아카이빙 과정은 먼저 20여 개의 주요 그룹들로 나눈다(건축, 책 디자인, 사진, 그래픽, 핸드크라프트 아트, 가구,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패키지 디자인 등). 그래픽 밑에는 인포그래픽이나 아트그래픽과 같은 많은 하위 범주들이 있다. 후에 다음과 같은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아카이브 번호	오브젝트 이름/제목	미디어
정의	인물	날짜(제작 시작일/종료일)
설명	크기	재료
전시		

‘이름’ 밑에는 성, 이름, 표시 이름, 국적, 기관. 이에 더해 왜 이 아이템이 디자인 컬렉션에 선택되었는지의 이유도 추가한다. 각각의 아이템은 목록으로 만들고 온라인 카달로그에서 프리뷰로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촬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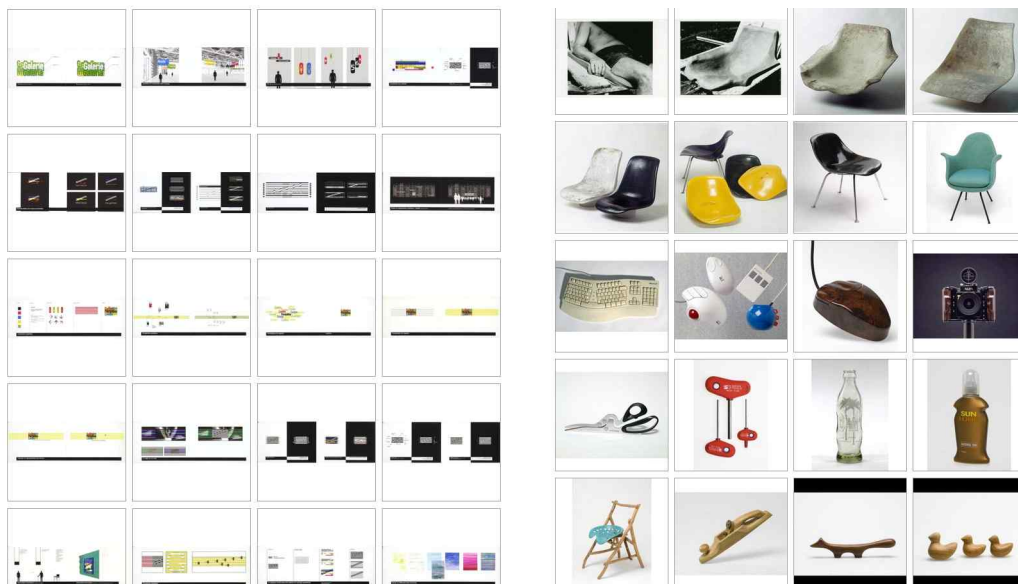


그림 215.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소장품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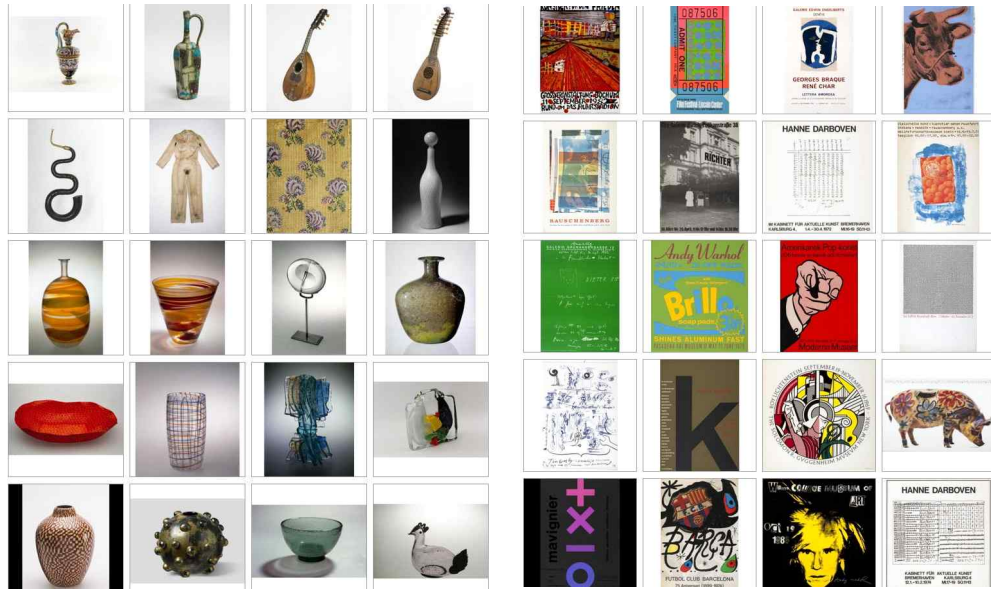


그림 216.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소장품 2

①9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MUDE

<http://www.mude.pt/>



국립 관광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리스본 지방 자치제 당국이 소유하고 있다. MUDE는 학교와 대학, 기업, 박물관, 문화 및 창조적 기관, 생활상 등을 하나로 엮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장소 역할을 한다. 또한, 디자인, 미술, 공예 혹은 오늘날 사회 경제적, 기술적 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다.

■ 특징

- 위치 : RUA AUGUSTA №24 - 1100-053 LISBOA
- 작가나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포함, 디자인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 관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행사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다.
- MUDE는 교육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연구, 수집, 꾸준한 교육프로그램, 컨퍼런스,

수업, 워크숍, 실험, 국제적인 모임, 전시 안내, 출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자료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Francisco Capelo's Collection : 2002년 리스본 시의회는 프란시스코 카펠로와 그의 작품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의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컬렉션은 포르투갈 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컬렉션이다. 컬렉션에서 가구와 작은 물건들은 1937년대부터 20세기까지 주요 디자이너들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의류, 신발, 공예품들은 시대에 따른 패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컬렉션은 알렉산드로 맨니디, 알렉산더 맥 쿨, 발렌시아가, 조지 넬슨, 지오폴티, 파코라 반, 마크 뉴슨, 비비안 웨스트 우드를 포함한 여러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 Eduardo Afonso Dias Collection : 인테리어, 그래픽 디자인, 식기 디자인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여러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 Daciano Da costa Collection : 건축가, 디자이너, 사업가 이며 교육자였던 Daciano Da Costa는 포르투갈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박물관은 2010년 6월, 그가 만든 모형과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38세트의 작품들을 컬렉션에 추가하였다.

· Antonio Garcia Collection : 2010년 6월 1일, 디자이너가 리스본 시청과 박물관에 기증한 드로잉, 포스터, 스탬프 등, 138개의 작품을 바탕으로 컬렉션이 완성되었다.

– 아카이브의 목적과 소장품 설명은 다음과 같다. ³⁴⁾ 리스본의 디자인패션박물관(Design and Fashion Museum)은 2500여 개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고, 최근 100년 동안의 디자인과 패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 디자인 자료를 모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프란체스코 카펠로 컬렉션(the Francisco Capelo Collection)은 리스본 시청에 의해 오로지 디자인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박물관을 설립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 컬렉션은 20세기 디자인과 패션분야의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가구, 부엌 가전기기 또는 소품들은 제품디자인의 변화와 경향을, 옷, 신발, 악세사리 등은 그 시대의 패션을 잘 알려준다. 후에 점차 국가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소장품들이 구입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MUDE는 리스본 지방 자치제 당국이 소유하고 있고 국립 관광청의 지원을 받는다.

34)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p.161-162

- MUDE의 기반은 Francisco Capelo 소장품이다. 여기에 포함된 디자이너들은 지난 세기 디자인 분야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작업은 상징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난 세기 그리고 현재의 디자인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독특한 물건들, 리미티드 에디션들, 생산품 시리즈들로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 아카이브 과정은

디자이너 이름(선택사항: 태어난 곳, 년도) / 작업의 이름과 년도 / 재료 / 번호 / 재정과 예산과 같은 데이터로 등록된다.



그림 217.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전경



그림 218.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내부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19.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내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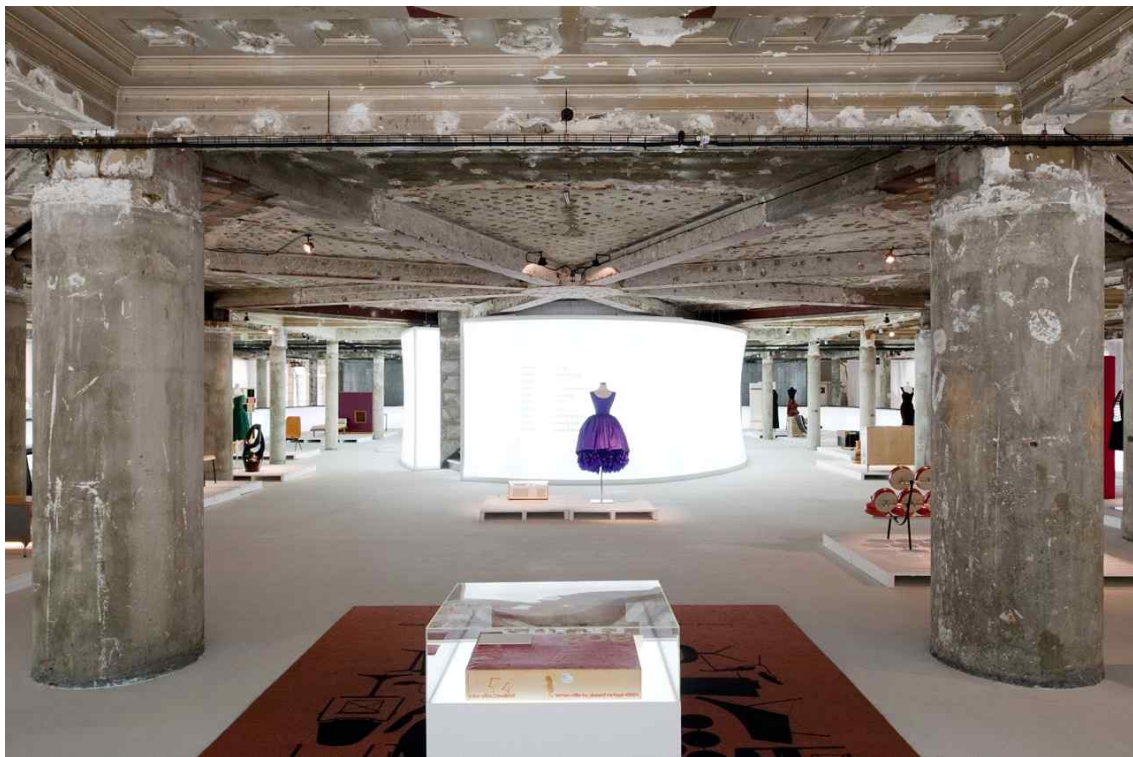


그림 220.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내부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 미국

① 쿠퍼휴이트 국립디자인박물관 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http://www.cooperhewitt.org/>



1897년 쿠퍼유니온 예술·공과대학이 순수예술의 위계 속에서 디자인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분리시키고, 디자인 전공자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쿠퍼유니온 장식미술뮤지엄을 설립한 것이 시초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67년 스미소니언(Smithsonian) 협회 산하기관이 되면서다. 스미소니언 협회는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스슨(James Smithson)이 미국 중앙 정부에 기증한 기금으로 설립한 곳이다. 이곳 외에도 미국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뮤지엄, 미술관, 각종 문화 기관이 스미소니언 협회 기금으로 설립, 운영된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현대적 디자인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디자인박물관이다.

■ 특징

- 위치 : 2 East 91st Street, New York, NY 10128, United States
- Parsons School of Design과 협력하여 디자인 역사와 큐레이팅 2년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매년 National Design Awards를 후원하고 있다.
- 세계적인 디자인 도서관을 포함해 25만 개의 디자인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파슨스 디자인 대학과 연계한 디자인사 석사학위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교사 20명을 선정해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교육 방법을 알려주는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섬머 디자인 인스티튜트(Summer Design Institue)’와 지역 주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커뮤니티의 디자인을 고민하는 ‘도시 이웃(City of eighborhoods)’ 프로그램 등. 이런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은 디자인 컬렉션과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디자인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이 된다.³⁵⁾

35) 앞의 기사, 월간디자인, 2012년 2월호

- The Pen : 2015년부터 시작된 쿠퍼휴이트박물관만의 전시 관람 보조도구인데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호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The Pen을 사용하면 관람자가 자신만의 디자인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다.

(소개영상) <https://youtu.be/ejIvwwmtX8M>

■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 찰스 임스의 의자(No.670), 바우하우스의 벽지(Bauhaus), 피터 베렌스의 포크 등 제품 디자인·장식미술, 드로잉·판화·그래픽 디자인, 직물, 벽 장식지 등 217,000 점이 넘는 디자인 작품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라이브러리 보유하고 있다.

13,557 점의 디자인 스케치, 드로잉

16,032 점의 제품디자인, 공예품

25,551 점의 직물

8,234 점의 벽지 디자인

5 점의 디지털 작품

- 주요 소장품³⁶⁾

· 찰스 임스의 의자(No.670), 바우하우스의 벽지(Bauhaus), 피터 베렌스의 포크 등 제품 디자인

· 장식미술, 드로잉·판화·그래픽 디자인, 직물, 벽 장식지

·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시계(West Clock), 전화기(Bell Telephone),

폴라로이드 카메라(Polaroid Camera), 트랙터(John Deere),

온도조절장치(Honeywell thermostat), 주방용구, 기선(American Export Line), 기차(Mercury) 등

- 현재 소장품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아니며 계속 진행 중이다.

- 소장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품디자인/장식미술(Product Design and Decorative Arts): 고대부터 현재까지 4만 여점이 있다. 세라믹, 가구, 금속, 조명, 유리, 주얼리, 건축 관련 요소, 산업디자인 분야, 특히 가구컬렉션이 풍부하며, 의자 분야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자인박물관에 비해 조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의 조각된 나무로 만든 벽 패널(The Deloux Collection of carved wooden wall panels)은 인테리어에서 뛰어난 자료로서 쿠퍼휴이트에만 있는 소장품이다. 프랑스 18세기의 길드 청동 가구, 연철 대문, 은 식탁용식기류도 수집하고 있으며 세라믹은 그리스시대부터 콜럼비아항아리까지, 시리안 및 로마시대 유리부터, 아일랜드식 유리 식기류, 20세기 식탁용 식기

36)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p.215-216

류 등이 있다.

· 드로잉/판화/그래픽디자인(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16만 여 개의 종이 작품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수장고 규모를 자랑한다. 가장 집중적으로 수집한 분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디자인과 장식미술이다.

2002년 봄에 미켈란젤로 작품인 ‘양초대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 Candlestick)’ 오리지널을 소장하고 있다. 14세기 북이탈리안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부터 15세기 독일 고딕양식 드로잉과 동시대의 미국과 유럽의 유명작가 작품들(Donald Deskey, Henry Dreyfuss, Jean Puiforcat, Edward McKnight Kauffer, Dakota Jackson, Eva Zeisel, Elaine Lusting Cohen, and Robert Wilson)의 작품을 모두 보존하고 있다. 미국 전체에서 어떤 박물관도 쿠퍼휴잇 만큼 17세기~19세기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특히 영국 브라이튼(Brighton)에 있는 로얄 파빌리온의 이색적인 인테리어를 창조한 프레드릭 크레이스(Frederick Crace)의 드로잉과 일본 카타가미(스텐실) 패턴의 텍스타일 400여점, 20세기 그래픽디자인 인쇄물, 포스터, 북커버, 문구류 등 깊이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 직물(Textiles): 편물뜨기, 코바늘뜨기, 땀기 등을 포함한 텍스타일 컬렉션에는 3만 여 점의 대표적인 텍스타일 기법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다양한 염색재료들로부터 직물페인팅, 운봉법으로 표현된 작품과 206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13세기~18세기의 유럽식 실크, 18세~19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의 직물까지 아우른다.

· 벽 장식지(Wallcoverings):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1만 여가지의 실질적인 벽 장식지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대표적인 프랑스식 꽃무늬 벽지, 윌리엄 모리스 패턴들, 17세기 네덜란드 길드 상인들의 가죽벽지, 18세기 프랑스식 아라베스크 패턴벽지까지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다. 1929년 바우하우스의 학생에 의해 디자인된 20세기 벽장식지, 1956년 프랭크 일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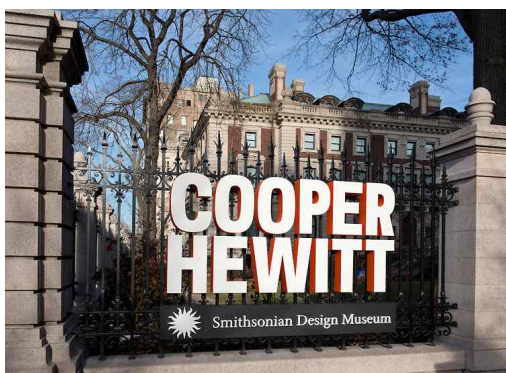


그림 221. 쿠퍼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전경



그림 222. 쿠퍼휴이트 국립디자인박물관 내부 1



그림 223. 쿠퍼휴이트 국립디자인박물관 내부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24. 쿠퍼휴이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들

ki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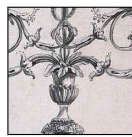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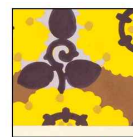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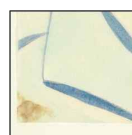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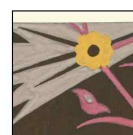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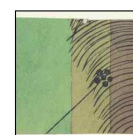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Drawing (Pencil) Purchased for the Museum by the Advisory Council 1988-26-548
This object is part of the Drawings, Prints, and Graphic Design collection.

그림 225. 쿠퍼휴이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들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② 뉴욕 현대 미술관 Museum of Modern Art

<http://www.moma.org/>

MoMA

1929년 Miss Lillie P. Bliss, Mrs. Cornelius J. Sullivan, and Mrs. John D. Rockefeller, Jr., 5인의 컬렉터들의 노력으로 창립되었다. 개관 이후로 3차례나 미술관의 위치를 옮겨 다니다, 1939년 현재 장소에 자리 잡았다. 1950-60년대 건축가 Phillip Johnson에 의해 건물이 확장, 1984년 Cesar Pelli에 의해 기존 보다 2배 더 넓게 리모델링된 후 2006년 Yoshio Taniguchi에 의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현 시대의 시각 예술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뉴욕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관을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중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고, 현대 예술과 디자인 관련 서적을 즐겁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점과 디자인 스토어를 구축해 놓았다.

1932년 세계 최초로 건축·디자인 학예부(Department of Architecture & Design)를 창설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해 한 시대의 예술 형태로 디자인을 인정하기 시작한 의미로 여겨지는 디자인 부서 설립은 전 세계 각지의 뮤지엄에서 본격적으로 디자인 컬렉팅에 주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모마는 개관 이래 꾸준히 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인 컬렉션과 전시를 선보여 왔으며 영화, 사진, 건축, 디자인 등을 미술의 중요한 영역으로 동등하게 여기며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설정해놓은 최초의 미술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⁷⁾

■ 특징

－ 위치 : 11 W 53rd St, New York, NY 10019

－ 전시장은 지하1층, 2층에 상영관이 있다. 지층에는 로비, 야외 조각 정원, 식당, 뮤지엄샵이, 2층에는 현대 미술 갤러리, 도서, 인쇄물, 영상매체, 특별전시, 카페, 3층에는 건축과 디자인, 드로잉, 사진, 특별전시, 4층, 페인팅과 조각, 카페, 5층은 특별 전시를 열고 있다.

－ MoMA에는 맨하탄과 퀸즈에 각각 도서관 하나씩을 운영하고 있다. 두 도서관 모두 학술 연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각, 인쇄, 사진, 필름, 공연, 건축 등 18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현대 미술 작품들의 정보를 문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은 DADABASE라는 도서관 카탈로그를 발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 시 누구나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³⁸⁾

37)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222

38) https://en.wikipedia.org/wiki/Museum_of_Modern_Art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다양한 버전의 오디오 가이드 사용할 수 있다. 특별 전시(영어) 상설 전시(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동(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시각 장애인을 위해 작품의 디테일을 설명해주는 오디오 가이드 제공(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전시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in-house storage warehouse)를 소유하고 있지만 미술관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타 장소에 바닥면적 600평(21,000 sq.ft) 정도 크기의 수장고를 운영 중이다(수장고내 보관품의 2-10%정도만 전시되고 있음)³⁹⁾
- 150,000 여점의 페인팅, 드로잉, 조각, 인쇄물, 사진, 건축모형과 디자인 작품 보유하고 있으며 22,000 여점의 영상 자료와 400만개의 영화 스틸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
- 300,000개 이상의 도서, 예술서적, 정기 간행물 보유하고 있으며 70,000명 이상의 예술가의 개별 자료가 있다.



그림 226. 뉴욕현대미술관 입구

39)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222



그림 227. 뉴욕현대미술관 내부 1



그림 228.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 1



그림 229. 뉴욕현대미술관 내부 1

③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The Herb Lubalin Study Center of Design and Typography

<http://lubalincenter.cooper.edu>

*THE
HERB
LUBALIN
STUDY
CENTER*

The Cooper Union 과 Herb Lubalin의 친구들에 의해 타이포그래퍼 Herb Lubalin의 방대한 수집 자료들을 보존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1985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된 허브루발린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는 학생들, 교수, 디자인전문가, 공공에게 실질적인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보존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타이포그래퍼 허브루발린의 타이포그래피 연구와 전통을 이어 가고 있는 장소이자,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다.

■ 특징 및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위치 : 41 Cooper Square, Room LL119, New York
- 연구센터는 Herb Lubalin의 작품과 광고, 편집, 서체, 포스터, 로고 디자인 등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의 디자인 자료들을 25,000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에는 다량의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잡지와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다.
- Otl Aicher, Rudi Baur, Anthon Beeke, Lucian Bernhard, Lester Beall, Will Burtin, Lou Dorfsman, Karl Gerstner, Tibor Kalman, Alvin Lustig, The Push Pin Studios, Paul Rand, Bradbury Thompson, Massimo Vignelli 등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 모든 자료들은 사전 예약 시 모두 열람 가능하며, 정기적 전시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편집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저널, 매거진 (U&Ic, Avant Garde, Eros, fact), 레터헤드, 로고, 아이덴티티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25,000여 개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으며, 기증품이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부터 업데이트 되고 있다. 컬렉션과 아카이브 종류와 명칭은 아래와 같다.

- Lou Dorfsman/CBS 아카이브
- Leslie and Alice Batko Schreyer 포스터 컬렉션
- Aaron Burns Type Specimens
- Arnold Roston 포스터 컬렉션
- George Salter German Type Specimens
- 인터내셔널 신문 컬렉션
- Lou Silverstein 컬렉션

- 슬라이드 아카이브 : 21,000개에 이르고, 허브 루발린의 작품들을 비롯해, 디자인 역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 개개인 디자이너들의 자화상, 학생들과 교수들 작품들, 전시와 출판에 관한 도큐먼트, 인쇄물 아카이브 등이 있으며, 그 중 일부분은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다.

- 디지털 아카이브 : 내셔널 그래픽디자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National Graphic DesignImage Database), <http://ngda.cooper.edu>

이 아카이브에는 국제적인 그래픽디자인 전반의 역사, 이론, 현실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자료 보존이 우수하다. 특히 20세기 그래픽디자인 자료를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으로는 로체스터 공과대학, 시카고 일리노이스 대학이 있다. 이 아카이브에는 전자도서관, 뮤지엄, 리서치 자료 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난 2년간 10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과 30,000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갔다. 쿠퍼유니온대학이 개

발한 독자적이고, 최상의(state-of-the-art) 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서, 각각의 이미지가 비슷한 유형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공통의 테마와 형태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⁴⁰⁾



그림 230.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1



그림 231.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2

40)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p.224-225



그림 232.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3



그림 233.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34.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수장고

④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Vignelli Center for Design Studies

<http://vignelllicenter.rit.edu>



Vignelli Center for Design Studies

2010년 9월 10일 디자이너 마실리 비넬리와 켈라 비넬리 부부가 평생 모은 자료를 기증받아 설립되었다. 로체스터 공과 대학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집품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징 및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위치 : 73 Lomb Memorial Drive, Rochester, New York 14623-5603, 로체스터 대학 내부에 위치.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국제 온라인 디자인 아카이

브, 디렉토리 프로젝트, 새로운 제품 디자인 수집, Vignelli 컬렉션 카탈로그, 새로운 수집품의 디지털화하고 있다.

– 아카이브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Unimark Archive

George Lois Archive

Monroe Calculator Company

International Online Design Archive

Digitizing Vignelli Collection imagery

Digitizing new collections

Archival Project Timecapsule, ID Initiative

Jeff Miller Clipt Chair, Ceruti Baler Furniture

Bruno Monguzzi Poster Donation

Vignelli Center Archivist Position

Interactive database program

Directory project

Helen Federico Archive

New product design acquisitions

Cataloging of Vignelli Collection



그림 235.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의 기증자



그림 236.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전경



그림 237.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내부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38.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내부 2



그림 239.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내부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3) 일본

①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http://mauml.musabi.ac.jp/en/>



1967년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개관하였으며 2010년 현재의 모습으로, 2011년에 새로운 대학 미술관으로 리뉴얼 되었다.

■ 특징

- 위치 : 1-736 Ogawacho, Kodaira, Tokyo 187-8505
- 3개의 갤러리, 뮤지엄홀, 현대 의자 디자인 갤러리로 구성된 박물관과 도서관, 포크아트갤러리, 이미지도서관, 리서치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30,000여 점의 포스터와 350 점의 의자 디자인 작품과 함께, 일본 예술가들의 그림과 목판 인쇄물, 조각 등 다수 보유하고 있다
- 도서관은 13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100,000 권의 도서와, 5,000권 이상의 디자인 관련 정기 간행물, 50,000개의 카탈로그, 5,000권의 그림책을 보관하고 있으며 스테디룸, 도서 갤러리, 그림책 갤러리가 있다.
- 포크 아트 갤러리에는 일본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도구, 식기, 도자기, 대나무 공예품, 천, 공예품, 장난감, 연, 종교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한 90,0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 이미지 도서관에는 일본 영상물,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한 17,000여 점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
- 구체적인 보존 현황은 다음과 같다.⁴¹⁾

· 회화작품 수장고

· 포스터 수장고 : 포스터는 투명 케이스 보관되며, 거는 형식이다. 각 투명 케이스에는 정보를 알 수 있는 ic tag가 붙어있다. 투명 케이스는 무사시노미술대학 자체 제작하였다.

· 이미지 라이브러리image library⁴²⁾ : 종합적인 학습, 연구활동을 원할 하게

41)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167-187

42) 이미지 라이브러리와 민속자료실은 귀중 도서 및 자료 수장고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청설비 등이 있다.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상 등의 영상자료(DVD / VHS / LD / 16mm필름 등)를 모아 놓았으며 작품에 따라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증된 영상 미디어 졸업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미지라이브러리 뉴스>를 1999년부터 간행하고 있고 지금 까지(2011년 12월) 29호가 간행되었다. 수집 작품 수는 약 17,000 점이다.

· 민속자료실 : 민속자료실의 소장자료는 약 9만점이다. 이 수집품은 다양한 수집경로와 전시기획에 따라 수집되었고 토기, 천, 대나무 등의 소재 별이나 향토완구, 신앙자료 등의 테마 별로 각각 수 백점에서 수 천점의 수집품이 있다. 민속자료실에서는 1990년부터 수장자료의 공개와 활용을 위해 매년 1회 <생활의 조형>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기획전을 미술관·도서관 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13호관 2층 갤러리(민속자료실 전용 건물)에서 <민속자료갤러리 전시>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수장 자료들은 웹을 통해 민속자료의 이미지는 볼 수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일부 학내에서 시범적으로 공개 중이다.

· 디지털 아카이브(박물도보와 디지털 아카이브) : 2008년부터 시작된 미술관·도서관과 조형연구센터 근대디자인자료연구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박물도보의 도판과 텍스트 전 페이지의 고해상도 스캐닝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1기, 2기, 3기, 4기 전시가 진행되었다. 박물도보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8세기 이후의 유럽을 중심으로 제작된 박물학 자료로 실물을 전시를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터치패널 시스템을 이용하여 액정모니터,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화가 된 박물도보는 각 페이지를 확대하여 볼 수 있음은 물론 해당하는 자료의 배경과 상세정보 등이 함께 기재되어있음으로 관람자가 직접 원하는 이미지를 확대하고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4기 전시부터 아이패드를 휴대하며 실물을 보면서 관련 이미지를 확대,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40.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수장고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41.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아카이브



그림 242.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실외



그림 243.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내부 1

② 인쇄박물관 Printing Museum, Tokyo

<http://www.printing-museum.org>



일본과 아시아의 인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인쇄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 특징

- 위치 : Toppan Koishikawa Building 1-3-3 Suido, Bunkyo-ku, Tokyo 112-8531
- 상시 전시장에서는 인쇄의 역사와 공예의 시작부터 현재를 다섯 개의 주요 기간으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나누어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6만 점 이상의 작품을 수장하고 있다.
- 주요 소장품은 다음과 같다.

사가본-쓰레즈레구사(요시다 겐코)

제프리 초서의 책들

아우구스트 피츠마이어의 책

중국 목판화

hoso-e(목판화)

나마즈에(목판화)

나가사키 목판화

펀치 자모

백만탑다라니경

라이노타입 인쇄기

프랑스 백과사전

해체 신서(번역 의학서)

스루가반활자(동활자)

Theatrum Universale Omnium Animalium(저자 Jonston. J)

-인쇄박물관의 소장품은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⁴³⁾

- 아름답게 보이다: 매력적인 활자 서체 경향을 알 수 있는 포스터나 서물, 판화
- 생활을 색칠하다: 취미나 오락등 생활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인쇄물
- 넓게 전하다: 뉴스 속보나 기업광고등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쇄물

- 지식을 넓히다: 선인의 지식을 공유하고, 인류는 새로운 문화를 펼쳐왔다.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문화 재산

- 인쇄박물관 아카이브 : 현재 작품은 6만점의 작품을 수장하고 있다. 운영 인원은 학예원 출신 정사원 6명, 스태프 15명(계약직)이며 연간 예산은 기업운영의 업적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수장작품의 품목은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특화하지 않고 인쇄라는 개념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 특별히 현대 작가 작품을 수장하는 프로젝트는 없으며, 소장품의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메이커를 이용하여 하고 있다.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하였으나 이에 어려움이 있어 2003년, 2004년부터 파일 메이커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244. 인쇄박물관 입구

43) 4가지 분류의 소장품과 인쇄박물관 아카이브에 대하여는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197 참조



그림 245. 인쇄박물관 소장품들

③ 21_21 Design Sight

<http://www.2121designsight.jp/en/>

21_21

21_21 미술관은 일본 내 디자인 박물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이세이 미야케가, 사토 다쿠, 후카사와 나오토와 함께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2007년 일본 롯폰기에 설립하였다.

■ 특징 및 자료 보존 현황

- 위치 : 9-7-6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 건물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다.
- 전시와 함께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21_21은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후원사는 다음과 같다.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이름으로 혼용되나 미술관에 더 가깝다. 디자인 자체보다 디자인 정신을 내세우며 세계디자인 발신지로 일본 정신을 표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사무 노구치 등 디자인 역사 자료를 전시하기도 하나 컨템포러리 성격이 강하다.

Main Partner	Mitsui Fudosan Co.,Ltd. MIYAKE DESIGN STUDIO	ISSEY MIYAKE INC. SHISEIDO CO., LTD.
Partner I	Canon Marketing Japan Inc. TAISEI CORPORATION KOMATSU SEIREN Co.,Ltd.	TAKEO CO.,LTD. TORAY INDUSTRIES, INC. TOPPAN PRINTING CO., LTD.
Partner G	KAZUMA CO., LTD CASSINA IXC. Ltd. growb marketing inc. KOKUYO Furniture Co.,Ltd. SEIREN CO., LTD. TSUMORI CHISATO DESIGN STUDIO MAXRAY INC. SEIKO NEXTAGE CO., LTD	DENTSU INC. Nishikawa Living Inc. NISSHO INTER LIFE CO., LTD Nihon Unisys, Ltd. Fukuske Corporation Motherhouse Co.,Ltd MARI-ART CO.,LTD.



그림 246.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21_21 박물관 전경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47.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21_21 박물관 전경 2



그림 248. 21_21 내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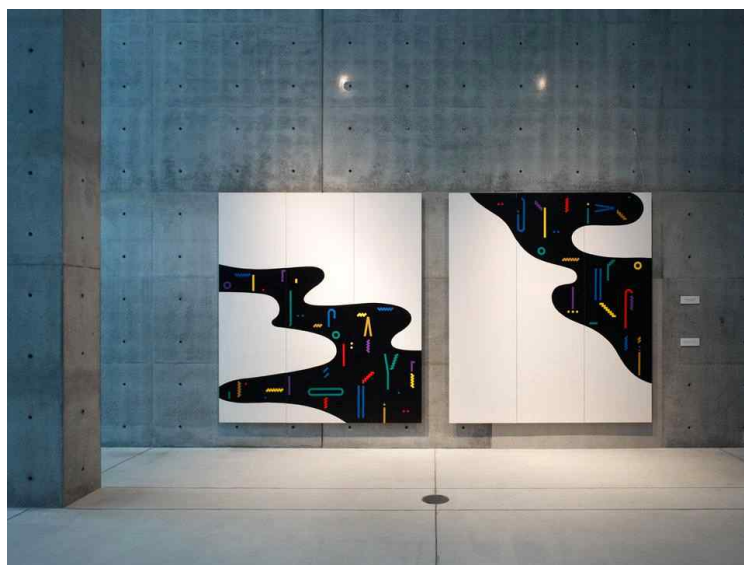


그림 249. 21_21 내부 2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50. 21_21 내부 3



그림 251. 21_21 내부 4

kic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④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DNP Foundation for Cultural Promotion

http://www.dnp.co.jp/foundation_e/archives

公益財団法人 DNP文化振興財団
DNP Foundation for Cultural Promotion

대일본인쇄주식회사의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DNP 문화진흥재단은 그래픽 디자인 관련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국제교류 등의 사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는 이 재단이 관리하는 아카이브 중의 하나이다.

■ 특징

- DGA는 재단이 관리하는 아카이브 중의 하나로 나머지 재단은 Tyler Graphics Archive Collection, Ikko Tanaka Archives / Shigeo Fukuda Archives / Kazumasa Nagai Archive이다.
- Tyler Graphics Archive Collection은 판화가 Kenneth Tyler가 1974년 뉴욕에 설립한 판화공방으로, 뛰어난 판화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판화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컬렉션에는 타일러 그래픽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던 여러 작가들의 현대 판화 작품이 1,000점 가량 포함되어 있다. 타일러 그래픽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던 작가로는, Frank Stella, Roy Lichtenstein, Robert Motherwell, Helen Frankenthaler 등이 있다.

■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 DNP Graphic Design Archives : 여러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대표작을 기증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200명이 넘는 작가들의 10,0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컬렉션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Ikko Tanaka, Shigeo Fukuda, Kazumasa Nagai 등 일본을 대표하는 세 작가들의 아카이브는 작가의 사후에 유족들로부터 작품 2만 점 가량을 기부 받아 보존하고 있다.
- DNP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시설 : DGA의 수장 관리는 CCGA 현대그래픽아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CCGA는 대일본인쇄가 1995년 4월, 대일본인쇄가 후쿠시마 스카가와시의 우쓰미네 산록에 개설한 작은 미술관이다. 2008년 7월 이후부터 DNP문화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CCGA의 역할은 훌륭한 그래픽디자인이나 그래픽아트 작품과 자료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아카이브 센터이다.

수집품의 큰 축은 미국 현대미술사에 빛나는 아티스트들이 판화공방 Tyler Graphics와 합작한 판화작품 <Tyler Graphics 아카이브 컬렉션>과 국제적으로 높이 평

가되는 일본의 현대 그래픽디자인 작품을 모은 <DNP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두 곳이다. CCGA에서는 전람회나 이벤트를 통해 이 수집품을 공개함과 동시에 교육기간과 연구자로부터 컬렉션이나 그래픽아트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일본의 그래픽아트 문화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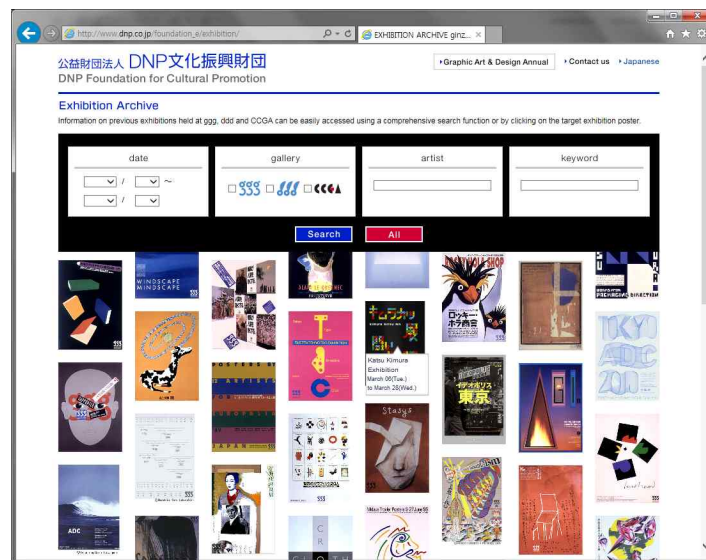


그림 252. DNP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검색 화면



그림 253. DNP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 1

44)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보고서, p201



그림 254. DNP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 2



그림 255. DNP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256.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의 아카이빙 과정 1



그림 257.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아카이빙 과정 2



그림 258.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의 소장품 전시 1



그림 259.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소장품 전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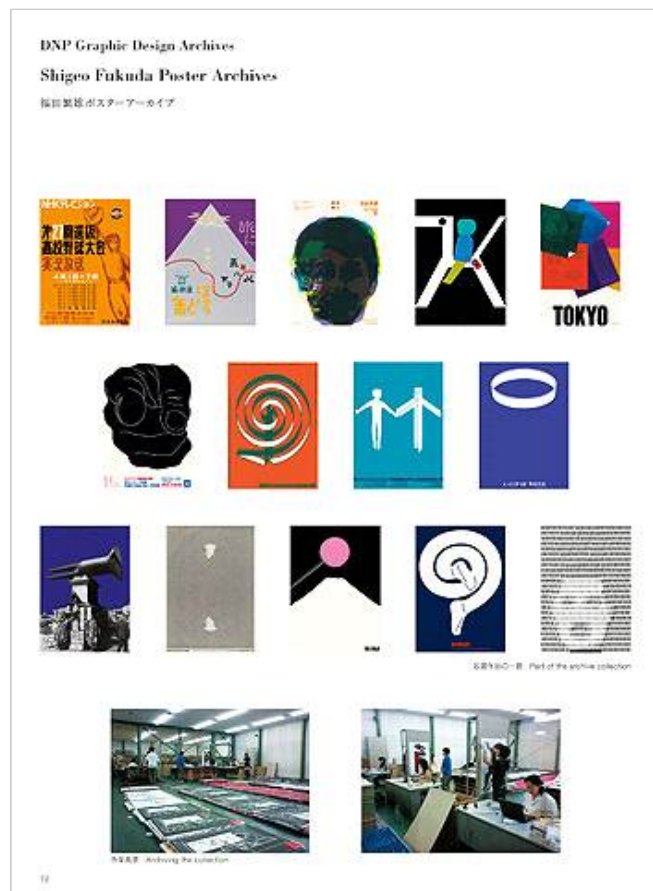


그림 260. DNP 그래픽 디자인 후쿠다 시게오 아카이브 1



그림 261.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의 후쿠다 시게오 작품 전시

4) 결론 및 제언

(1) 결론

디자인 사료를 모으고 관리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시작은 1850년대부터 최근 2010년까지 각기 다르지만 그만큼 다양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 역사와 규모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디자인만 집중적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디자인 자료를 발굴하고 아카이브화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이며 전문적이다.

디자인 자료 보존현황에 대한 국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물관과 아카이브가 결합된 경우 많다.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아카이빙 작업이 병행되기 때문이다. 그 중 영국의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와 같이 연구 자료나 정보검색에 특화된 아카이브만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결합, 아카이브 단독 운영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전시(상설전시, 기획전시)를 통해 외부에 개방한다.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는 아카이빙이 주 업무이면서도 기획 전시를 통해 디자인 사료에 가치 재고와 자료 보존 의식을 디자인계와 일반인에게 공유하려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② 박물관이나 아카이빙의 개념이 분명하다. 일상의 디자인 결과물을 모두,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 전체, 포스터를 집중적으로, 그래픽을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조형 분야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순수미술·공예와 포괄해서, 컨템포러리 중심 등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자료 보존의 수가 방대하지만 개념이 분명하여 디자인 보존 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도 각 기관별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③ 아카이브의 경우 자체 기관 자료 뿐 아니라 외부와 연계를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다. 자국 내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하거나 국외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디자인 역사 연구와 자료 보존에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④ 개인의 기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출발은 개인의 관심사와 역사적 가치 인식으로 자료를 보존하였으나 기관에 귀속시키거나 지원 단체에 기증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연구를 지속하는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 제언

① 처음부터 차별화되는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취지와 방향으로 기획해야 한다. 지원 기관에 따라 디자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규모는 달라진다. 특히 자료의 수준과 추후 심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자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수집하기 시작해도 자료가 모아질수록 원형 그대로 관리 및 아카이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으로 전이되는데 그 후속 작업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면서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② 디자인 자료 수집의 범주와 분류 계획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각 나라마다 디자인이 전개된 과정이 다르며 주도한 세력도 다르다. 독일(무테지우스 주도)과 같이 국가에서 디자인 정책을 세우고 활성화, 매킨토시나 앙리 반데 벨데와 같이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 미국과 같이 경제와 함께 발전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료 발굴의 범주는 앞의 상황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아카이빙에 다른 정보 수집 범위는 당연히 자세할수록 활용도가 높겠지만 디자인 자료마다 정보 추적이 만만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헌들마다 세세하게 정보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정확한 기록으로 완결되었다 싶어도 추후 다른 자료에서 더 정확한 기록을 발견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디자인 사료 보존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는 발굴 진행 속도와 정보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덧붙여 아카이빙 연계 기관의 범위(국내, 해외 등)도 사전 검토해야 한다.

③ 포괄적인 디자인 사료 수집 중요하나 ‘디자인의 수준’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 역사를 연구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최초’도 중요하나 ‘의의’도 중요하다. 디자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파급 효과가 있으며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접할 수 없었던 디자인이라도 후시대 디자인 발전과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디자인사적 가치가 있는 실험적이었던 디자인을 발굴을 시도해야 한다. ‘디자이너’, ‘기업’, ‘단체’, ‘문헌’ 등 다각도에서 한국 디자인의 전반적인 변화와 수준을 끌어올렸던 사료에 더욱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자료 수집의 양과 시초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④ 시간과 ‘전문’ 인력, 지원이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 발굴과 연구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는 작업이 아니다. 해외의 경우 디자인 자료 수집과 관리에

대하여 일찍 눈을 떠서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은 처음 시작하였다. 그 외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개인의 자료 수집이 박물관, 아카이브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이제 출발점에 선 한국디자인 역사 연구와 자료보존의 시도는 빠른 성과를 내려다 오히려 부실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한국디자인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 발굴과 연구의 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과 비용의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3. 한국근현대디자인사 흐름 및 주요 이슈

1) 시기별 주요 사건 요약⁴⁵⁾

(1) 1945-1950

디자인 개념은 일본에서 유학했던 임숙재가 1928년 동아일보에 2회에 걸쳐 ‘공예와 도안’이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도안으로 번역된 디자인은 “우리 의식주에 관한 제반 물건과 기물에 대하여 자기 두뇌에 착상되는 형상과 문양, 색채 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라 하였다.⁴⁶⁾

이후 이순석도 국내 최초 도안개인전을 열어 ‘도안’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한국에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유학에서 도안을 공부하고 귀국한 이순석, 한홍택, 권순형, 박대순 등은 작품과 전시를 개최하였다.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에 도안과가 신설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예술대 미술학부에 도안 정공이 신설되었으며 유학을 다녀온 1세대 디자이너들에 의한 후학 양성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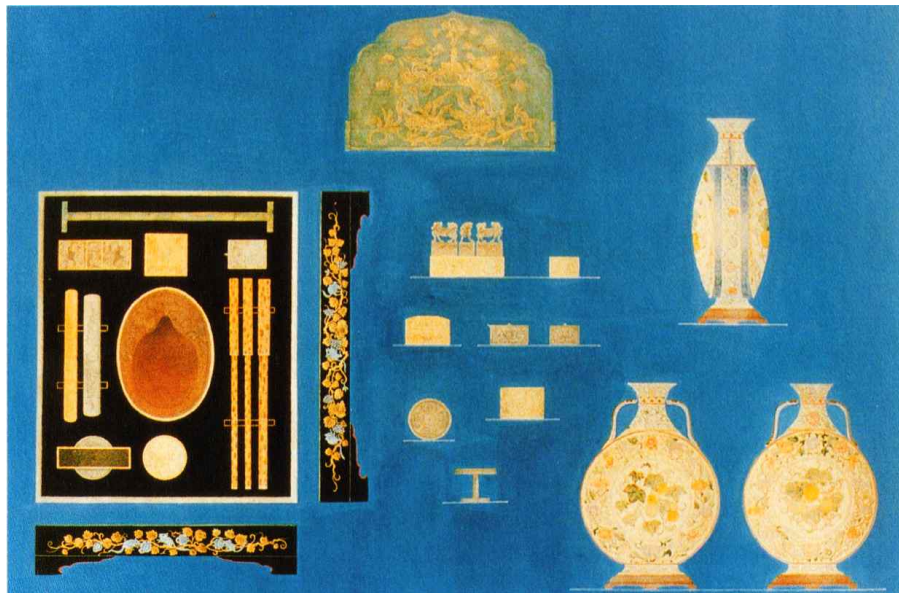


그림 262. 임숙재, 서봉급식부공예품 도안, 1928, 종이에 채색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활동하던 미술가들 즉 회화, 조각, 공예, 도안 작가들은 여전히 영역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활동하였다. 1945년 창립된 조선미술건설본

45) 시기별 주요 사건의 내용은 뒤에 정리한 디자인연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46) 최공호,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 재원, 1996, p.80; 임숙재, 공예와 도안 1, 1928.08.16. 동아일보3면, 공예와 도안 2, 1928.08.17. 동아일보3면

부와 조선미술가 협회에 각각 공예부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사진예술연구회(1945년), 조선공예가협회(1946년), 조선미술동맹의 선전미술부와 공예부(1946년) 등도 설립되었다. 당시 1세대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여러 분야의 단체에서 중복 활동을 하였으나 점차 ‘디자인’ 전문 분야를 구축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확립해나갔다. 대표적으로 1946년에 창립된 조선산업미술가협회⁴⁷⁾와 조선상업미술가협회는 공예와 회화가 아닌 ‘도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그룹전을 열면서 디자인 활동을 하면서 영역을 구축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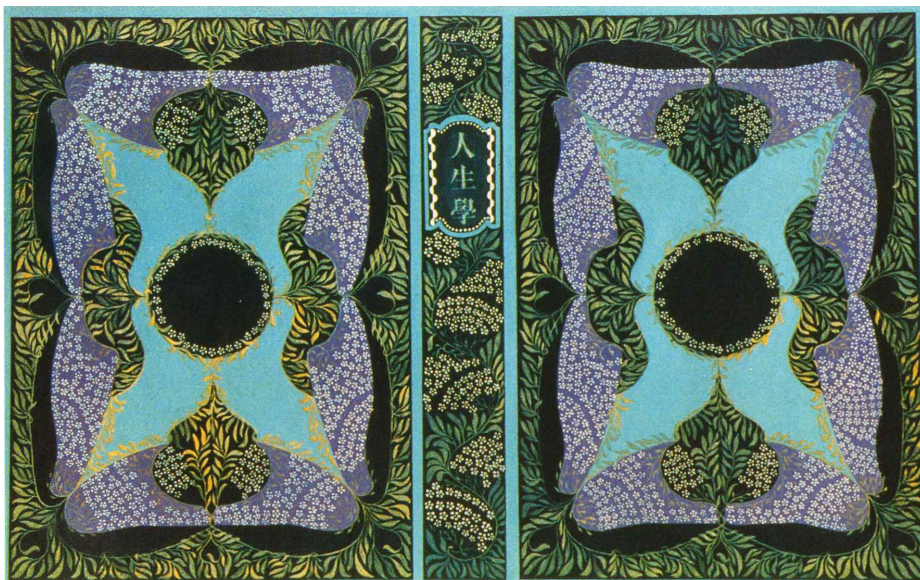


그림 263. 이순석, 인생학, 1931, 종이에 채색

이 시기 한국에 디자인이 뿌리를 내리는 또 다른 중심축은 기업이었다. 해방 전 창업한 유한양행, 조흥은행은 물론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현, 현대자동차), 락희화학(현, LG생활건강), 태평양화학공업사(현, 아모레퍼시픽) 등의 기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광고에 디자인과 브랜드를 적용하여 한국의 근현대디자인 역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공예와 디자인을 비슷한 범주로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기업은 처음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다. 동종 업계 간 기술 경쟁에 의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유 브랜드 창출, 특수 인쇄기법 적용 등 기업의 발전과 디자인에 의한 차별화는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그림 265의 멜로디 상표 라벨). 특히 한 기업 내에서도 상품군이 다양해지면서 디자인에 의한 제품 정체성 확립은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었다(그림 265의 ABC 포마드 제품군).

47) 1948년에 대한산업미술가협회로 개칭된 단체로 현재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림 264. 행남사, 식기세트(일괄), 1940초-1950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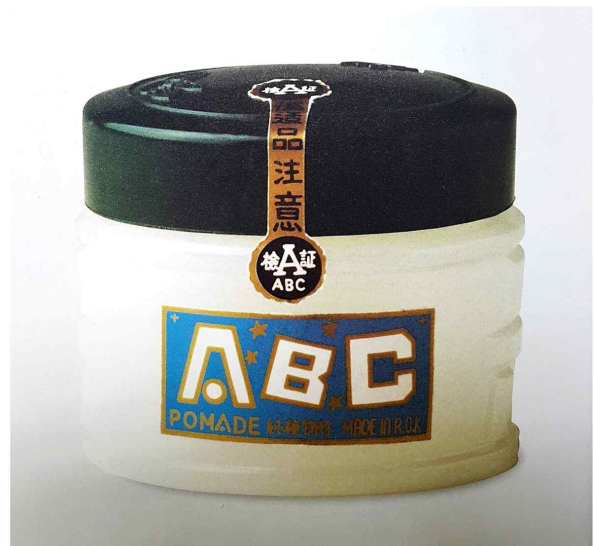


그림 265. 멜로디 상표(1948)와 ABC 포마드(1951)

그러나 전반적인 한국 산업에서 디자인은 아직도 공예와 혼재되어 있었다. 특히 전통공예품, 가발 등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에서 손으로 만드는 공예의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의 전통 이미지가 부각된 일상품 위주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아니라 공예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그림 266. 신성공예사의 수출공예품 도록, 1950년대

공병우의 고성능 한글타자기기 개발된 1949년에 한홍택은 한국관광포스터를 발표하며 이후 인상적인 그래픽디자인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처럼 해방 이후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서, ‘디자인’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교육, 디자인 단체 조직, 산업, 작품 활동을 이끌어나갔으며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가던 중심에 있었다.



그림 267. 한홍택, 유한양행 소화 광고, 1940년대



그림 268. 한홍택, 관광포스터 2, 1949

(2) 1951-1960

6.25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디자인이 정착되는 과정은 지속되었다. 1951년 제 1회 수출공예품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영에 나전칠기기술원을 도립기관으로 설립해 전문 인력 양성을 하였다. 특히 한홍택은 1952년 <제 1회 산미 개인전>을 개최하여 1940년대의 개인전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1958년의 개인전 <모던디자인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의 개인전에 붙인 명칭의 변화를 관찰하면 디자인 성격이 점차 분명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⁴⁸⁾ 1세대 디자이너로서의 활발한 활동은 최초의 도안연구소(1956년 창립, 현재의 디자인전문회사)를 설립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69. 한홍택, 모던디자인전 전시도록, 1958

대학교 내에 미술전공에서 디자인과를 개설하기에 녹록치 않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공예도안과가 신설되었다.⁴⁹⁾ 점차 다른 대학교에서도 디자인과를 신설하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 미술대학 중 가장 선호하는 과로 자리

48) 1955년 <산업미술제일회개인전>, 1958년 <모던디자인전>, 1961년 <산업미술개인전>, 1966년 <그래픽아트전>, 1969년 <시각언어전> 등 개인전의 명칭에서 디자인의 본질을 담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49)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였던 한홍택은 디자인과 설립 당시의 고충에 대하여 “..... 어려움이라면 우선 디자인과를 설치함에 있어서 교육적 제반여건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타과 특히, 회화과의 반대가 심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사회인식이 부족하여 디자인은 예술 그 자체를 모독시키는 질 낮은 행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린다’라는 동일 표현방식만 가지고 회화와 디자인을 같은 맥락에서 비교 평가하는 모순이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홍택님을 찾아서, 홍익디자인 1987 창간호, p.54

를 잡으면서 전문디자이너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⁵⁰⁾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6.25가 끝난 후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최초의 제품,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58년에 주목할 만 디자인 이슈는 박용귀의 금성사 입사이다. 금성사(현, LG전자)의 공업의장실에서 박용귀를 최초의 산업디자이너로 채용하여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에 한국 최초 진공관식 라디오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 선풍기, 전화기, TV 등 생활가전용품에 전문디자이너의 감각이 입혀졌고 금성사는 이러한 효과를 직접 경험하면서 금성사는 디자인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모를 키워나가서 1977년에 디자인연구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한편 1957년 한국공예시범연구소가 영입한 미국인 노만 디 한(N. R. De Hann)는 1960년에 ‘공업미술전’을 열어 해외 제품디자인을 소개하고 공업제품 컨설팅 활동을 하였으며, 민철홍⁵¹⁾, 권순형, 배만실을 유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을 보냈다.⁵²⁾ 이들은 한국에 귀국하여 디자인 분야 활성화와 디자이너 후진 양성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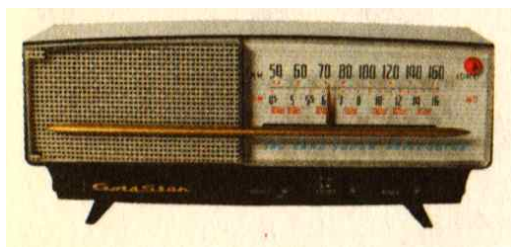


그림 270. 국내 최초 진공관 5구 라디오, 골드스타 A-501,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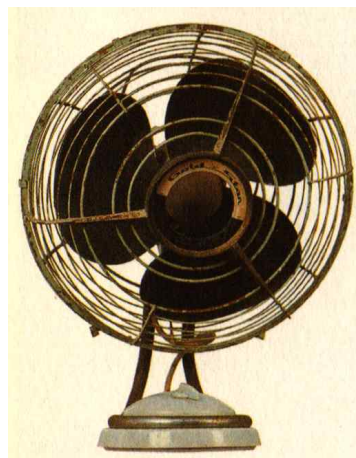


그림 271. 국내 최초 선풍기, D-301, 1960

개인전을 통한 디자이너의 작품 소개와 활동도 계속 지속되었는데 1957년 백태원이 개인전을 열었다. 권순형은 미국에 갔다 귀국하면서 스크린톤을 가져와 한국에 처음 소개시켰는데 이를 그래픽디자인에 접목하여 1960년에 전시회를 열었으며 디자인에 다양한 재료 활용으로 인식을 재고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디자인과 공예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공예,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역을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하

50) ‘디자인時代(시대)’, 경향신문 5면 1967. 06. 26.

51) 민철홍은 해외 교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해외 제품 디자인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며 귀국 후 Industrial Design 시대를 열게 되었다. 오창섭, 제로에서 시작하라_민철홍과 한국의 산업디자인, 디자인플러스, 2011, p.128

52) <http://www.designdb.com/history/museum/chart/3/1.html>

던 시기는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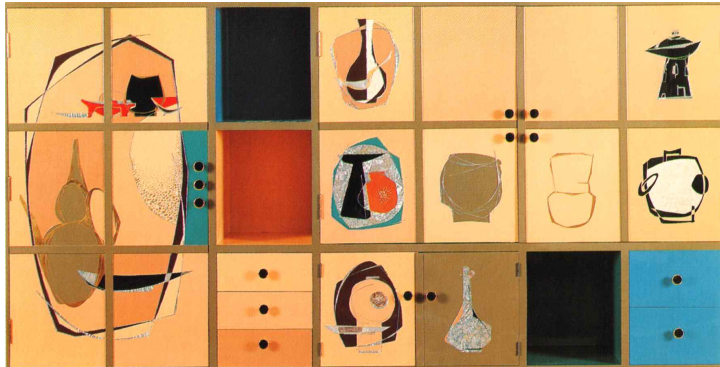


그림 272. 백태원, 장식장, 1960, 나전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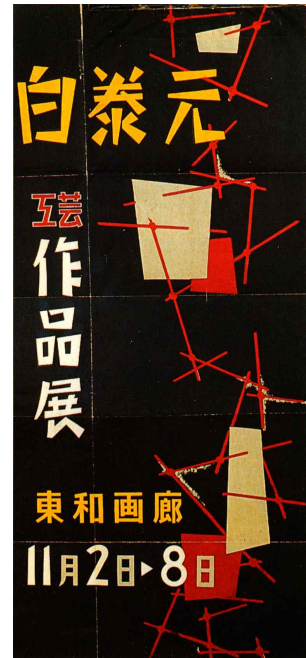


그림 273. 백태원 개인전 포스터, 1957



그림 274. 민철홍, 아악기상감과반, 19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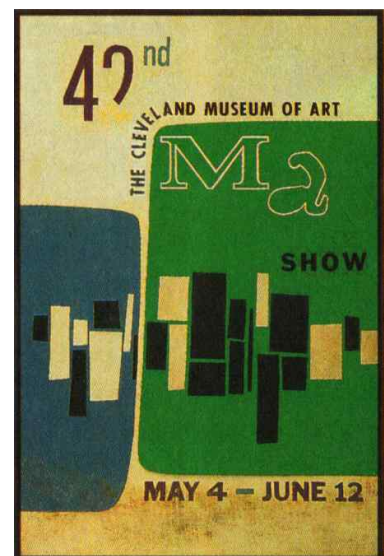


그림 275. 권순형, 칼라톤, 스크린톤을 사용한 포스터, 1960

(3) 1961-1970

1960년대까지도 대학교 교육에서 디자인과 공예의 분야가 아직 모호한 상태였다. 공예와 디자인 영역은 여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제1회 상공미전 대통령 수상자인 강

찬균이 그래픽디자인으로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할 때는 공예 전공으로 갔으며 이순석, 박대순, 백태원, 한홍택, 민철홍, 김교만 등 한국디자인사를 정착시키던 원로디자이너들은 공예와 디자인의 구분 없이 폭넓게 활동한 것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예계 내에서는 예술가를 지향하는 작가주의와 실생활 용품을 만드는 작가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고, 여기에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디자인 드러나는 산업공예 사이에서 지향점을 찾고 있었다. 이순석, 백태원, 유강렬 등은 공예 작업을 하면서 각각 서울대학교, 서라벌예대,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도안전공)과에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순석은 「국전」의 공예부 심사위원장(1961년)이면서도 1966년 시작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위원장이기도 하였다. 1946년부터 1966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만 공예, 상업, 공업디자인 각 분야에 걸쳐 200명 이상이 배출되었으나 디자이너로서 산업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였고 디자인 전공자 역시 「국전」을 비롯한 각종 공모전으로 물리면서 구조적인 혼재가 지속되었다.⁵³⁾



그림 276. 김교만, 수난, 1959, 혼합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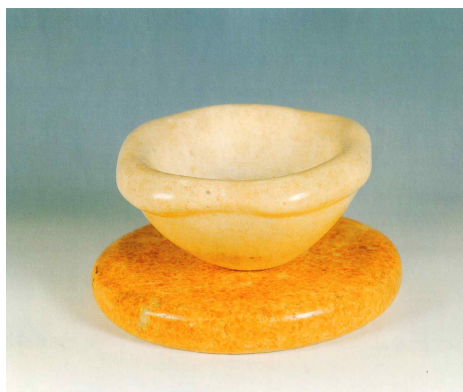


그림 277. 이순석, 수반, 1960년대, 대리석

53) 최공호, 앞의 책, 1996, pp.90-113, 김은영, 공예에 관한 소고_1945년 이후를 중심으로, 홍익미술, 1983 제5호, p.124



그림 278. 박대순,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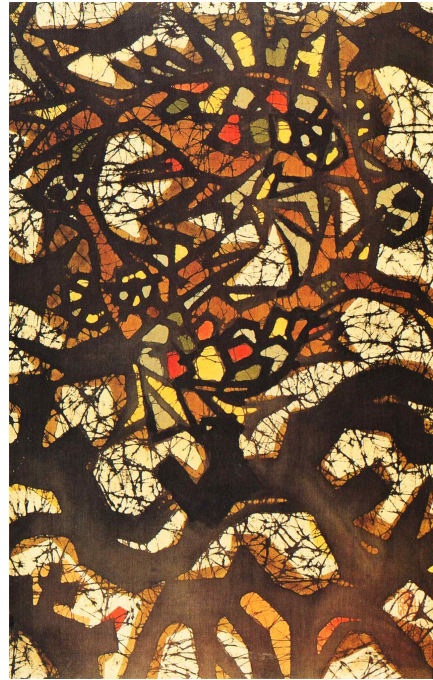


그림 279. 유강열, 해풍, 1956, 납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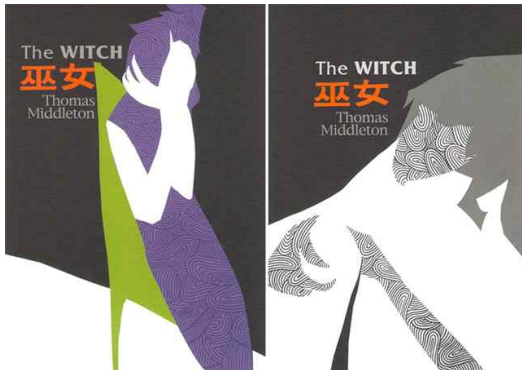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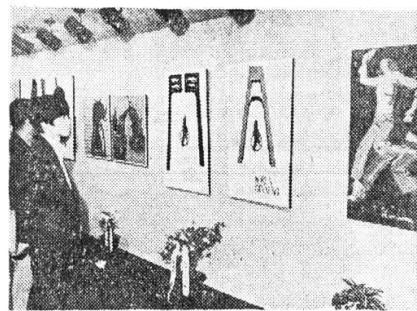


그림 280. 양승춘, 제2회 프리즘 그래픽 디자인전 출품 포스터(1968)와 제 4회 프리즘그래픽전 전시장



올봄엔 그림전이 성행, 프리즘 그래픽 디자인 그림의 제4회 작품전이 명동화랑서 열리고있다.

프리즘 그래픽전
은 제4회 작품발표회를
10일부터 16일까지 明東
화랑에서 연다. 출품자는
김부흥·김진홍·김문호·
김영기·배천남·부수연·
안정연·안종호·양승춘·
이준희·이태영·이효일·
임무근·정대유·정시·최
동신·한필용.

그러나 1945년부터 공예와 디자인계 모두 이러한 혼재된 경향을 직시하고 지향점을 찾고 있었으며 작품과 신문의 논설로 이를 표명해 왔다.⁵⁴⁾ 그리고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디자인의 영역이 틀이 잡혀가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도 개인의 작품 활동이 이어졌는데 한홍택은 <상업미술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1963년도에는 권명광이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부

54) 최공호, 앞의 책, p.89. 김재석의 '공예의 조선적 사명(신문예, 1945. 12월호)', 이경성의 '윤봉숙 자수 개인전평(대중일보, 1947. 8. 20)', 이여성의 '조선의 죽공예(신문화, 1948. 5월호)', 엄도만의 '산미전을 보고(중외일보, 1946. 5월)', 조능식의 '산업미술의 신생면(新生面)(한성일보, 1946. 10월)', 한홍택의 '산업미술의 특집-산업미술과 산업건설(경향신문, 1947. 5. 22.)', 최영수의 '이순석 도안전(자유신문, 1947, 5. 19.)' 등

터 개인전인 <그래픽디자인전>을 여러 차례 열었다. 특히 1966년도에는 그룹전인 제 1회 <프리즘그래픽전>이 개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출신의 도안전공자들이 중심이 된 디자인그룹전이였다.⁵⁵⁾ 젊은 세대 의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그래픽 감각을 보여주며 당대 디자이너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그룹전이였다.⁵⁶⁾

1966년 제 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이하 상공미전)가 개최되어 강찬균이 그래픽디자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나 표절시비로 잡음이 있었고 2회 역시 전람회 홍보포스터에서 표절시비가 발생하여 디자인이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사회적 의식과 같이 전개됨을 보여주었다.⁵⁷⁾ 우여곡절 겪은 상공미전은 제 3회에서 권명광이 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디자인의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과 수출에서 상공미술이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공예와 영영의 구분이 점차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요 수상자와 추천작가로 선정된 디자이너는 산업현장과 교육 분야에서 인지도를 얻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한편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공예 일변도의 커리큘럼에 변화를 주어 디자인 내용이 포함되며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⁵⁸⁾



그림 281. 제 2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포스터 표절 비판 기사

55) 양승춘, 정시화, 이태영, 배천범, 김문홍 외 7인의 초기 창단멤버로 시작했으나 2회에는 약 20여명, 3회에는 약 50여명, 4회에는 약 80~90여명에 이르렀으며 1966년 처음 시작한 그룹전은 1971년 4회를 끝으로 해산되었다.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자료 발굴 및 연구를 통해 재해석해야하는 디자인사료 중 하나이다.

56) <https://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Column.asp?gubun=0&oDm=3&page=1&bbsPKID=21142#heads>

57) -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품을 모방하여 한국에서 생산하던 의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독창성과 모방의 개념이 모호하던 시기였다. 1970년대까지 한국의 수출품은 저렴하고 품질 낮은 제품, 모방품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었다. 商工美術(상공미술)과 輸出戰略(수출전략), 1972.04.20. 경향신문 2면 경제기사(사설)

- 1회, 2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에서 표절 문제로 잡음이 있었으나 디자인계 내외의 비판과 자성을 수렴하여 현재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로 발전시켜왔다. 商工美展(상공미전)에 一言(일언)한다, 1974.03.20. 경향신문4면; 外國(외국)것 본뜬 것 1966.08.10. 경향신문 5면 경제기사; 老教授(노교수)와 캠퍼스와 學生(학생) <148>, <149> 李順石(이순석) (8), (9), 1974.03.19. 경향신문 4면 사회(칼럼/논단), 1974.03.20. 경향신문 4면 사회(칼럼/논단)

58) 도표로 보는 디자인 40년사, 월간 디자인, 통권 17권

1960년대에 사회변화에 따른 계몽과 선전을 그래픽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의한 완성도와 임팩트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동일주제에 따른 그림 282와 그림 283의 비교). 아직은 일상에 디자인이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로 부분적으로는 한층 높아진 디자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각문화와 제품, 생활환경에서 디자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82. 가족계획 계몽 달력,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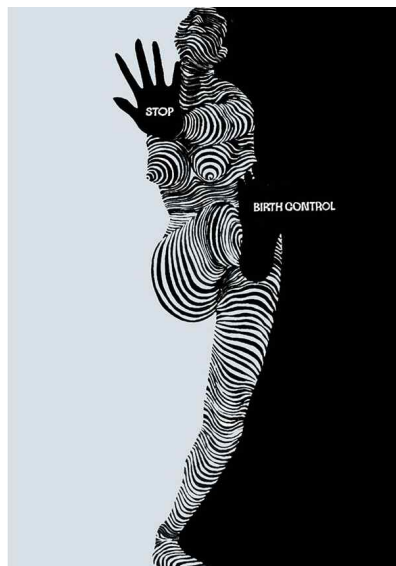


그림 283. 권명광, 가족계획포스터, 1968

산업 현장에서는 디자인이 분명한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1963년 금성사는 디자인이 적용된 최초의 라디오, 최초의 국산전화기 등의 성과를 확인한 것에 힘입어 공업의장과(공업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제품에 디자인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해태제과 역시 포장디자인실을 신설하여 산업에서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의 발전을 이끌어 갔다. 1968년도에 코카콜라가 들어와 광고를 시작하였고 1967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다음에 ‘코티나’를 생산하여 시장에 선보이는 등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시기였다. 1969년에 삼성전자도 설립되어 금성사에 이어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등 1970년대에 전개될 산업디자인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가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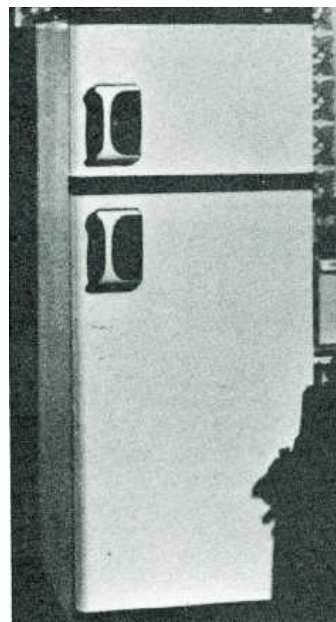


그림 284. 삼성냉장고 SR-196D



그림 285. 해태제과 디자인실의 디자이너, 왼쪽부터 김태중, 김관영, 장윤호, 전후연, 박우덕, 이면희, 신정필, 정병규, 이난규, 임동성, 윤웅전



그림 286. 해태제과의 1960년대 생산제품



그림 287. 해태제과 디자인실 제품, 1960-1970년대.



그림 288. 한국디자인진흥센터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970년에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가 설립되어 대표적인 디자인 전문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의 한국디자인진흥원까지 이르렀다. 상공미술전람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정기간행물 「디자인포장」을 통해 디자인계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소개하였다.

(4) 1971-1980

독자적 영역을 확립한 디자인은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이 시기에 1세대의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전문 디자이너들이 사회와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조영제, 민철홍, 권명광 등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 교육계로 들어오면서 디자이너에 의한 디자이너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교육은 물론 디자이너가 모이는 전문 단체를 섹트별로 설립하였다.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KSGD, 후에 한국시각디자인협회 KSVD),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 현재의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의 전신), 한국공예디자인협회(KSCD), 한국디자이너협회, 한국디자인학회, 한국광고학회 등 디자이너가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아울러 사회적 참여⁵⁹⁾를 디자인 작품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계몽을 주제로 의사소통하려고 하였으며 한국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협회전 활동이 활발하였다.⁶⁰⁾ 1970년대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계몽, 디자이너의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 속으로의 참여 등을 모색하였으며 작품으로는 실험적 시각표현을 시도하며 단체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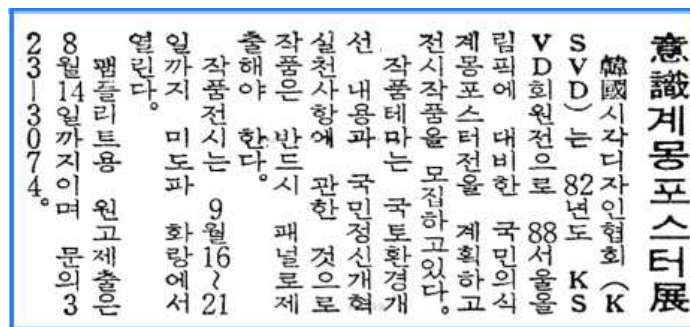


그림 289. KSVD 계몽포스터전 기획 기사, 매일경제 1982.7.19자 기사

59) 의식 계몽포스터전, 매일경제 1982.7.19

60) 1946년 창립된 대한산업미술가협회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KSID 역시 지금까지 지속되는 반면 한국디자인학회는 창립 후 중단되었다 재창단을 하였고 KSVD는 1993년 해산되었다.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출신의 시각디자인전공 인사들 중심으로 뜻을 모아 디자인분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연합하여 창립한 KSVD는 1983년 정기총회에서 회장 중임과 관련된 문제를 계기로 두 과로 나뉘게 되었고 1984년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KOGDA)가 창립되어 각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94년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를 창립하여 다시 연합하게 된다.



그림 290. 민철홍, KSID 창립전 출품작, 좌, 머리맡 조명등, 우, 스프링쿨러, 1972

1970년 디자인포장(현 design db)와 1976년 월간디자인이 창간되면서 전문적인 한국디자인 기록이 시작되었으며 심도 있게 주제를 다루면서 디자인계의 정보 소통에 힘을 얻게 되었다. 매거진 <뿌리깊은 나무>가 발행되면서 아트디렉터에 의한 독특한 잡지와 광고형식이 등장하였다.

산업계의 주요 이슈는 ‘OB 맥주’ 심벌마크의 등장과 현대자동차 ‘포니’, 등 독자적인 기업의 디자인 등장과 파급효과였다. 조흥은행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로 옮긴 조영제의 ‘OB 맥주’ 심벌마크는 당대 업계에 CI 붐을 조성하였다. 1973년 박재진이 디자인한 서린호텔의 아이덴티티 이후 OB맥주를 필두로 제일제당, 제일모직, 신세계, 쌍용그룹, 농시, 대웅제약, 외환은행, 대우 등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의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디자인언어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조영제는 당시 자신의 CI 프로젝트를 모아 <테크마스전>을 열었는데 1970년대 기업의 CI 붐을 대변해주는 사례였다. 또한 이탈리아 디자인(ITAL Design)의 수장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은 포니의 디자인은 독자적인 모델의 성공과 함께 폭발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⁶¹⁾



그림 291. 박재진, 서린호텔, 1973



그림 292. 조영제, OB맥주 심벌마크, 1974



그림 293. 권명광, 대웅제약 로고, 1979

61) http://blog.hyundai.co.kr/Group-Story/Culture/hyundai-PONY-stroy.bl8g#.VcRg5mcw_4Y



그림 294. 조영제, 데코마스전, 1976



그림 295.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모델, 포니, 1976

(5) 1981-1990

1980년대의 대표적인 이슈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게임이다. 국제적인 국가스포츠이벤트를 통해 디자인 산업의 진일보가 이루어졌다. 포스터를 비롯한 엠블렘, 픽토그램, 호돌이 캐릭터는 디자인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전에 출범한 프로야구와 더불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은 스포츠 산업에서 디자인을 통한 제품 개발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96. 프로 출범 당시 6개 구단 엠블럼,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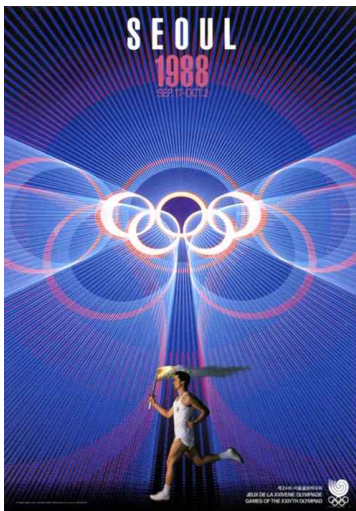



















































그림 297. 조영제, 1988서울올림픽포스터, 1988



그림 298 김현, 19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1988

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아이덴티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OB맥주 이후 제일제당, 서린호텔, 쌍용그룹, 대웅제약, 외환은행이 1980년대까지 뒤이어 신세계 백화점, 제일은행, 국민은행, 삼성, 한일은행, 체신부 등이 대표적인 참여 기업이다. 1970년에 설립된 한샘을 비롯해 가구 및 인테리어는 가전제품과 운송기기, 일상용품 중심의 제품디자인의 영역을 생활환경으로 확장시켰다. 1982년 부수언은 가구디자인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17회, 18회, 19회 연속 대통령상 수상작이 퍼니처디자인이었던 것은 이러한 경향이 단기간 트렌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⁶²⁾ 금성사는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성사 디자인 종합연구소를 발족시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 기업의 디자인 방침이지만 디자이너 영입, 디자인에 의한 가전제품 개발, 디자인 부서 규모 확대 및 디자인 종합연구소 승격, 이후 가전산업 최초 디자이너 중역 임명 등 한국가전제품디자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62) ‘시스템’, ‘스트리트’, ‘퍼니처’는 3회에 걸친 대통령상의 디자인 키워드였다. 제 17회 대통령상 수상작은 변상태와 강병길의 ‘올림픽타운의 보행자 공간을위한 스트리트퍼니처 통합조정계획’, 제 18회 대통령상은 이수봉의 ‘사무처리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퍼니처 디자인’, 제 19회 대통령상은 조벽호의 시스템스트리트퍼니처이다.

1974	1975	1977~78	1979~80	1981	1983	1984~85
 OB맥주	 SSANG YONG	 SSANG 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세일모직	 세일모직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Ssangyon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KOLON	 동방물류














































1986	1987	1988	1989	1990~91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KBS

그림 299. 1990년대까지의 한국의 주요 CI



그림 300. 금성디자인종합연구소, 198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01. 부수연 가구디자인전, 좌, BS34, 우, BD80, 1982



그림 302. 18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이수봉의 '사무처리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퍼니처 디자인', 1987

1985년 안그래픽스를 설립한 안상수는 1987년에 안상수체를 개발하여 보편적인 한글의 탈네모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으며 이후 다양한 한글 서체의 개발에 자극을 주었고 2008년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를 발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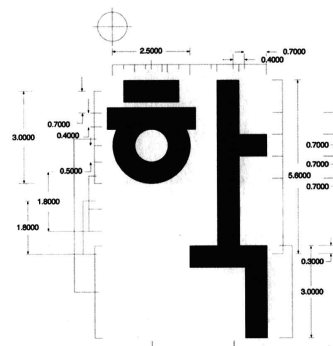


그림 303. 안상수, 안상수체, 1985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945년 개척자였던 ‘디자이너’의 교육과 전시 활동이 부각되고 영향을 주던 경향은 1970년대에 와서 디자이너들이 모인 단체와 조직 의한 활동으로 변화하였다. 1980년대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 재고와 디자이너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후 1997년도 IMF를 겪기 전까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작품 활동, 실험⁶³⁾, 교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디자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아울러 기업의 디자인 접목이 본격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인 디자인 포장센터도 GD마크 실시 및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개최(1987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국회 통과(1990년), 공산품 품질평가 항목에 디자인 포함(1990년) 등 디자인 진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디자이너, 교육, 단체, 기업, 정책 등 디자인계 전반이 균형과 합일점을 찾아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04. 'energy'를 주제로 한 KOGDA 창립전 도록 표지,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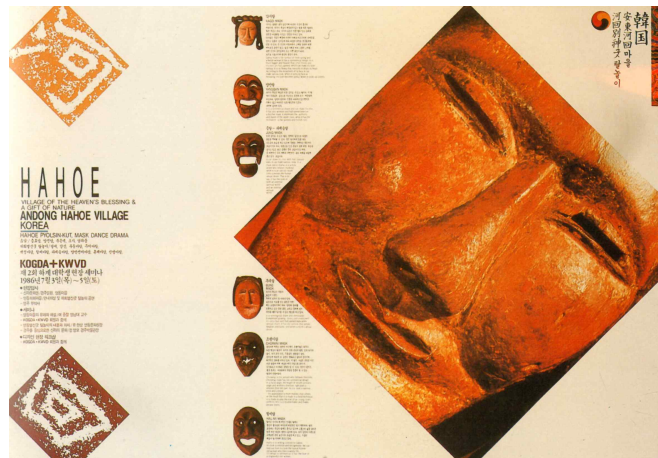


그림 305. 서기훈, '한국인 멋'을 주제로 한 제4회 KOGDA 회원전 출품, 1987

(6) 1991-2000

1991년 랜도어소시에이츠가 한국으로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1992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유호민 원장이 취임하면서 정책에 의해서도 디자인 해외 교류가 활발해졌다. 군출신이 아닌 행정관리 출신의 유원장은 증가한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국내·국외 디자이너들과 기업을 연계한 디자인 개발과 진흥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국제디자인전문가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해외 각국의 디자이너들을 파견하여 크리틱과 제품 개발에 참여시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디자인 개발과 진흥에 참여

63) KSVD에서 분리한 KOGDA는 당시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여 매해 회원전마다 실험적 표현과 창조적 시도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하면서 방송에서도 디자인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주요 디자인단체에서는 사단법인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디자인 작업의 디지털화는 매킨토시에 의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기존의 수작업 시스템에서 현재 디지털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보수적이던 신문사들의 색션화와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할 즈음 디지털편집디자인에 의한 작업의 효율성은 칼라지면의 확대, 과감한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했다. 일반 그래픽디자인은 물론 신문사까지의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의 편리한 접근에 빠르게 적응한 젊은 디자이너 세대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실현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전 시대는 디자이너가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적 참여에 동참하였다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자율과 개성, 튀는, 독자적인 개인 활동 및 뜻이 맞는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모인 그룹 활동이 왕성해졌다. 시스템에 갇히지 않은 이들은 자유분방하게 비슷한 디자인 지향점을 추구하며 기존 디자인의 틀을 탈피한 과감한 작품을 시도했다.



그림 306. 중앙일보 색션 신문, 1995



그림 307. 조선일보 색션화, 가로짜기와 확대된 칼라지면, 1996

<진달래프로젝트>⁶⁴⁾는 미디어의 기능을 과감하게 바꾸는 실험으로 그룹전을 열었는데 이 때 참여하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키워나갔던 멤버들은 현재 그래픽디자이너(김두섭), 미디어아티스트(목진요), CF감독(메스메스에이지 대표 박명천), 일러스트레이터(이우일), 등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

64) 이때부터 진달래는 ‘발언으로서의 포스터의 기능’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 이들은 ‘매체’, ‘적’, ‘대한민국’ 같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인들에게 포스터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돌발적인 도전에 사람들은 의외로 열광했고, 1997년 그들은 <대한민국> 포스터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둘러싼 기존의 상투적인 조형 언어에 허를 찔렀다. 급기야 1998년 6월 19일 자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진달래를 ‘고급 미술에 반기를 든 집단’으로 소개했다. 전가경, ‘에세이와 칼럼-진달래’ 월간디자인, 2012년 11월호

고 있다. 이렇게 활동하던 젊은 디자이너들은 나중에 일선 현장에서 낯설고, 거칠면서 자유분방한, 생소한 디자인까지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한글 풀연구회>에서는 폰트디자인의 활성화 및 보편화로 최정호 활자 디자인에서 벗어하지 못 하던 본문서체가 틀을 깨고 나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보통사람들조차 자신의 개성 적인 폰트를 추구하는 성향까지 끌어올린 출발점이었다.



그림 308. 진달래가 참여했던 <빠-아메리칸 스탠다드> 전시의 한 장면, 1995



그림 309. SK텔레콤 TTL 광고, 감독 박명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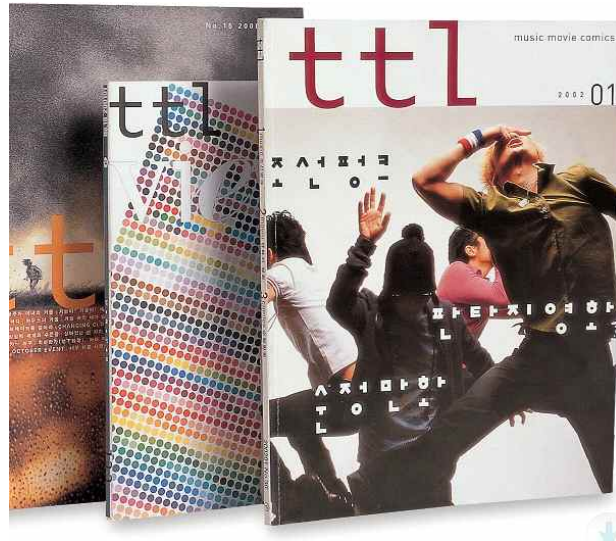


그림 310. SK텔레콤 TTL 매거진

해외 문화의 자유로운 접촉으로 국내외 디자인 경향 속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하던 디자이너 세대는 IMF 이전에는 ‘업’을 삼기 위한 디자인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일을 선택한다는 태도를 한편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7년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해 디자이너의 의식과 직업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앞과 같은 디자인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면서 생계를 위한 일(job)이 더 절대적이 된 것이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절이었으며 당시의 구조조정에 디자인과 광고 분야가 더욱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로 인해 기존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디자이너들이 직업 이동 및 현장을 떠나면서, 현재 현장에서 중견 관리직이나 경력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의 부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시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불기 시작한 디지털콘텐츠의 붐은 디자인 산업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 영향은 현재 스마트제품으로 이어지게 된다. 월드와이드웹(www)이 들어오고 휴대용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디지털’이 주요 미디어로 등장했다. 작품 활동을 추구하던 디자이너들은 현장과 일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어 한때 4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던 FID⁶⁵⁾와 같은 대규모 디자인회사도 등장했다. 반면 프린팅미디어에 의한 디자인 제작을 이어가면서 점차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디자인 회사,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졸업생들, IMF 극복에 인력과 경비를 줄이려는 기업,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 등과 맞물려서 독립된 산업 주체로서의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을 찾는 시

65) 홍익대 출신의 디자이너 4명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의 프로그래머가 공동으로 설립한 F.I.D는 98년 기술신용평가에서 디자인 벤처 1호로 선정되어 창업지원금을 투자받아 창립되었다. ‘웹 컨설팅의 선두주자 F.I.D’, 산업디자인 174호, 한국디자인진흥원

도들이 나타났다.



그림 311. 1999년 다음 메인 화면(1995.2 창립)과 1999년 네이버 메인 화면(1999. 6 창립)



그림 312. 삼성애니콜 SCH-A100, 1999

디자인이 한국에 정착하고 일상에 깊이 들어오면서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뚜렷해지고 일상소품에서도 디자인이 뚜렷이 반영된 제품을 찾으면서 ‘뿌까 캐릭터’ 상품이나 ‘mmmng’와 같은 브랜드가 등장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출발했던 한국근현대디자인이 2000년을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프린팅미디어는 1990년대 초 디지털 디자인(DTP, desk top publishing) 제작이 시작된 지 불과 약 10년 만에 원색필름 출력 과정이 사라진 CTP(computer to plate)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13. 'mmm' 브랜드의 디자인 오피스 제품

Y2K를 넘어 200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디자인계는 '어울림대회'를 개최하여 국제화, 자유로움과 신세대, IMF 극복의 디자인 산업 개편, 뉴미디어 등장 등의 과거와 다가올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대 속에 2000년대 디지털 스마트시대로 넘어오게 되었다.

(7) 2001-2014

2000년도에 첫 민간인 원장이 부임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다음해에 성남 코리아디자인 센터로 이전하였다. 서울시⁶⁶⁾에서도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양쪽에서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가시화되었다. 건물의 사인과 공공기물, 거리 등 도시환경 전반에 디자인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기관에 디자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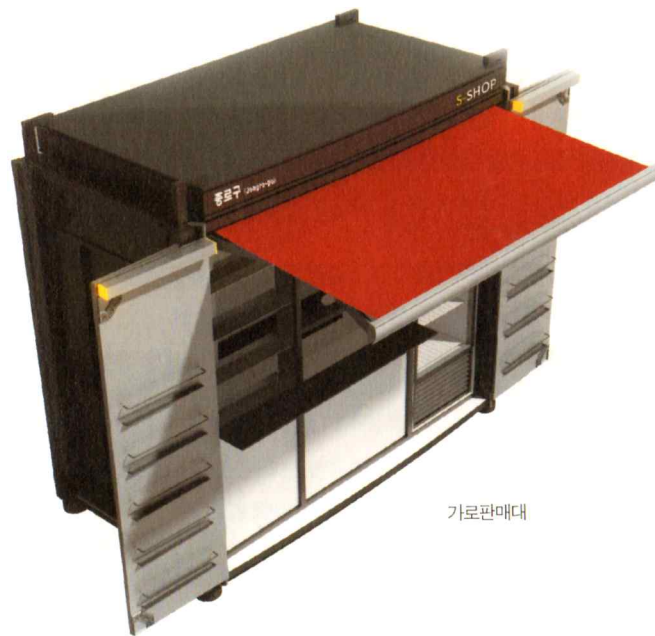


그림 314. 한국디자인진흥원_코리아디자인센터

66) 서울시는 권영걸을 디자인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정책을 진행하였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가로판매대

그림 315. 공공디자인_가로판매대



그림 316. 공공디자인_도로변 분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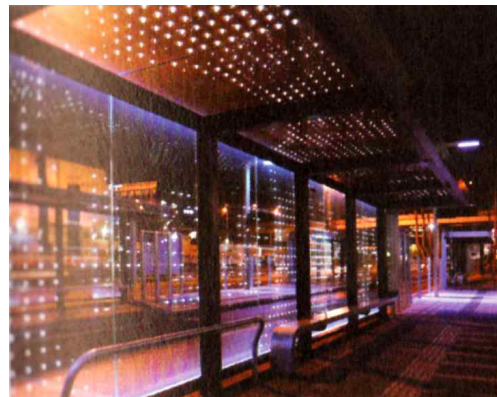


그림 317. 공공디자인_버스정류장

아이리버의 mp3,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 추가, DSLR 등 디지털 상품이 등장하면서 산업, 음악, 체육, 디자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 유저들은 이러한 디지털기기를 도구로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월드와이드웹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콘텐츠를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후에 등장하는 스마트폰은 통신 기능을 뛰어 넘는 스마트 1인 미디어의 대표성과 사물인터넷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삼성전자(갤럭시S, 2010)와 애플(iPhone3GS)은 외면적으로 ‘디자인 침해’를 내세우며 특허권으로 분쟁(2011년)하게 되었다. 다년간의 분쟁은 디자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한국에 강하게 재인식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18. iriver mp3, iFP-180T, 2002



그림 319. 폰LG전자 초콜릿폰(LG-SV590), 2005



그림 320. 갤럭시 s, 삼성전자, 2010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지털의 바람은 전자기기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건물, 키오스크, 사이니지 등 디지털 디스플레이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2004년 갤러리아 백화점의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낯설고 생소한 시도였지만 추후 등장할 디지털미디어 활용의 신호였다. 현재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가전제품, 사물인터넷까지 디자인과 기술은 서로 경쟁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디자인경영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는데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한 기아자동차의 K시리즈 자동차와 현대카드의 디자인 경영은 기업의 이윤에서 디자인에 의한 매출 증가와 한국 디자인의 성장을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321. 갤러리아백화점, 파사드디자인



그림 322. 기아자동차 K5, 2010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23. 현대카드 디자인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6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에 대한 국제적으로 다양한 디자인 경연과 논의를 통하여 21세기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이끌어 갈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세계에 제시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였다. 국제적인 교류를 완전히 한국인의 일상에 정착한 디자인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문화코드로 표현하였다.



그림 32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왼쪽부터 1회~5회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세대부터 시작된 디자인이 한국적 방식으로 모더니즘을 지나 포스트모더니즘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디자이너는 조직과 단체,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과 소그룹에 의한 디자인 산업 활동 성향이 나타나며 세

대교체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2005년 디자인 듀오 슬기와 민, 2006년 디자인스튜디오 워크룸 외에 파머스파티 브랜드를 개발한 액션서울 등 기존의 틀을 깨면서 매체에 구애 받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325. 액션서울, 파머스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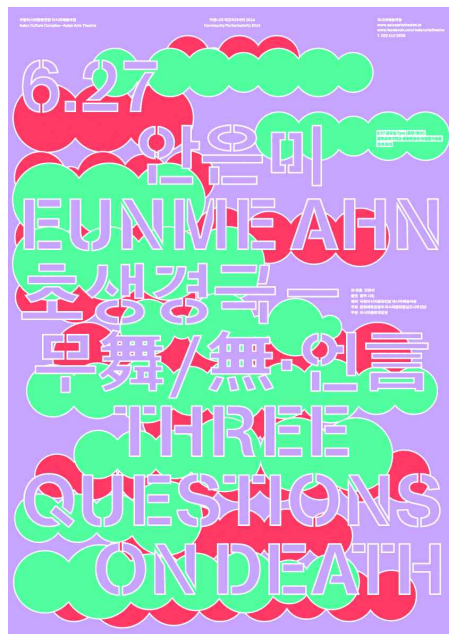


그림 326. 슬기와 민, Poster, Three Questions on Death, 2014



그림 327. 워크룸, 삼국유사 연극만발 5,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201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945년 해방 후 2014년까지 한국근현대디자인사의 흐름에서 좀 더 상세한 디자인계의 시기별 주요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⁷⁾

(8)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주요 사건 연표디자인 연표

1945-1950		1951-1960	
1945	조선미술협회(1949, 대한미술가협회로 개칭) 창립(공예부)	1951	제1회 수출공예품전시회
	이화여대 예림원에 도안과 신설		통영나전칠기기술원 설립(도립)
	김진갑 <신성공예사> 설립	1952	락희화학, 국내최초 플라스틱제품 생산
1946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1949년 대한산업미술가협회로 개칭)		장봉선, 사진식자기 자판 고안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	1953	한국사진작가협회, 칼라사진 발표(임응식, 정인성)
	서울대 예술대 미술학부에 도안전공 신설	1955	국산자동차 효시 <시발>택시 등장
1947	락희화학 '럭키크림' 생산		한홍택, '제1회 산미 개인전' 개최
1948	제4.5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전		최정호, 민간 최초 원도 활자인 '동아출판사체' 개발
1949	이순석 도안전	1956	최초의 TV 광고(HLKZ-TV)
	공병우, 고성능 한글타자기 개발		한홍택, 최초 도안연구소 설치
	한홍택, 한국관공포스터 발표	1957	한국공예시범소(KHDC) 설립
1950	서울 시내 왜색간판 말소 방침		백태원, 제1회 공예작품전 개최
		1958	홍익대 미술대학에 공예도안과 신설
			한홍택 <모던디자인전>개최
			삼화인쇄에서 원색분해 시작
			금성(현 LG전자) 설립, 금성사 공업의장실, 산업디자이너 채용(박용귀)
			태평약화학, 최초 사외보 <화장계>창간
		1959	금성사 설립, 한국 최초의 라디오 생산
			최초의 CM송<진로> 등장
			김한용 상업사진연구소 개업
		1960	최초의 애니메이션 광고 <진로>(신동현 그림) 등장
			전기사정 약화로 네온사인 전면 금지(67년까지)
			금성, 최초 선풍기 생산
			조선일보, 최초 신문용 납작꼴 활자 개발

표 5. 연도별 디자인계 주요 사건

67) 연표 작성은 광주비엔날레, 일상. 기억. 역사 :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광주비엔날레, 1997,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 1999,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2013 ;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편, 기억과 대화 :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인,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4 ; 도표로 보는 디자인 40년사, 월간디자인 1985년 8월호: '한국의 디자인 프로젝트 50', 월간디자인 통권 400호를 참고하여 종합하였다. 디자인계와 뿐 아니라 인접분야(건축, 패션, 만화), 정치 문화계의 시기별 주요 사건을 요약한 연표는 부록을 참조. 디자인이 많은 분야와 연동되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61-1970		1971-1980	
1961	금성, 최초 국산 전화기 생산 한흥택, <상업미술개인전>	1971	제4회 <프리즘그래픽전> 그룹전 최정호, 사체사의 사진식자용 원도 개발
1962	제1회 신상회전(경북공미술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단속		장봉선, 국내 최초 사진식자기와 글자판 제작
	성안기계공업사, 그라비아 인쇄기(1도 인쇄) 개발	1972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KSVD) 창립전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 창립
1963	권명광 <그라픽·디자인전> 개최 KBS TV 광고방송 개시(69년 이후 중단)		중앙대학교 서라벌예대 인수 태평양화학, 최초 캠페인 광고 'Top Color 72' 시작
	금성, 공업의장과(공업디자인 전담부서) 신설		최정호, 모리사와사의 사진식자용 원도 개발
1964	해태제과, 포장디자인실 신설	1973	광고대행사 제일기획 창립
1965	금성사, 국내 최초 흑백TV 생산 조선일보 <조일광고상>, 중앙일보 <중앙광고대상> 창설	1974	OB맥주 CI 개발 지하철 차내광고 등장
1966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 설립		토리노국제자동차박람회에 포니, 포니쿠페 출품 한국공예가협회(KSCD) 창립
	서라벌예대, 공예과 설치	1975	해태포장디자이너협회 창립 및 디자이너 13인전 개최
	한흥택, <그래픽아트전> 개인전		한국최초 신문광고인 <한성주보> 게재 <세창양행> 광고(1886) 발견
	권명광, <그라픽·디자인전> 개최 제1회 <프리즘 그래픽전> 그룹전	1976	월간 <디자인> 창간 조영제, <데코마스트> 개인전
	신진자동차, <코로나> 자동차 생산		김교만, <한국관광포스터전> 개인전
1967	합동통신사에 광고기획실(합동광고의 전신) 설립		현대자동차 <포니> 승용차 생산
1968	제6차 아시아 광고대회에 한국대표 9명 참가 코카콜라판매, 광고 시작		TV 광고 사전 심의 개시 잡지 <뿌리깊은 나무> 창간, 독특한 잡지 광고형식 창조
	현대자동차 '코티나' 생산		해태 써니텐 광고 <흔들어주세요> 대히트
1969	한국수출포장센터설립, 계간지 <디자인> 창간 광고대행사<만보사> 창립	1977	금성, 디자인연구소 발족 삼화인쇄, 국내 최초 스캐너 도입
	경부고속도로 준공으로 야립간판 등장 일동제약 아로나민 광고 <의지의 한국인> 시리즈 인기		농심라면 광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대히트 도시미관, 자연보호 이유로 고속도로 야립간판과 옥상광고물 전면 금지
	한흥택, <시각언어전> 개인전	1978	한국디자인학회 설립
	숙명여대, 산업미술과, 산업공예과 신설/한양대, 응용미술과 신설		서울패키지디자인협회 창립
	삼성전자 설립	1979	김영기, 권명광 세계 '아동의 해' 상징포스터, 캘린더 제작 및 국제 전시(파리 입성)
1970	<합동광고> 창간 한국디자인포장센터(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에서 개칭) 출범		광고대행사 오리콤 창립
	태평양화학, 최초 신문 전면 컬러 광고	1980	권명광, 홍종일 외 한국이미지전 개최 김교만, 김현, 브루노국제그래픽비엔날레 한국 초청작가 선정
	(주) 한샘 창립		태평양화학, 삼성전자 CIP 도입

1981-1990		1991-2000	
1981	정연중, 국풍81 포스터 제작 〈한국의 미 포스터전〉	1991	부천시 지방 도시 최초 CI 완성 대전엑스포, 마스코트, 엠블럼 제정
1982	아시안게임 C발표 부수언 〈가구디자인전〉		금성사 금성국제디자인공모전 개최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
1983	서울올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결정 금강기획, 코레드 설립		금성, 국내가전산업 최초 디자이너 중역 탄생 랜도어소시에이츠, 한국 진출
	금성, 디자인종합연구소 체제(독립적), 제1회 산업디자인공모전 개최, 삼성 굿디자인전 개최 삼성 제1회 굿디자인전 개최	1992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유호민원장취임. 광고대행사 부도사건 속출 한국광고의 해외 모방률 25% 발표 충격(미국 광고전문지 〈애드에이지〉)
1984	체신부, 정부 부처 최초 CI 도입 서울올림픽 포스터 제작		삼성 CI변경을 시작으로 대기업 CI변경 붐(삼성, 한화, 한일, 기아, 미원, LG, 선경, 두산 등)
	한국그라픽디자인협회(KOGDA) 창립 및 창립전		한샘, 서울디자인박물관 개관
	〈샘이 깊은 물〉 창간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 안상수 포스터 제작, 강우현 마스코트 제작
	LG ad 설립		매킨토시에 의한 본격적인 디자인 제작의 디지털화 본격 시작
1985	한국포장디자인센터 GD마크 실시 〈월간 디자인〉 100호 발간		212디자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공인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최초 등록 금성사, 유럽디자인센터 준공
	안상수, 안그라픽스 설립 및 안상수체 개발	1993	한국산업디자인협회(KAID) 설립 퍼니처디자인 활성화
1987	대통령 선거전에서 정치광고 활성화 제1회 한국우수포장대전 개최	1994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결성 한국디자인학회 재발족
	서울올림픽 스포츠픽토그램 완성		주요 디자인단체 사단법인화 상공자원부, 디자인의날 선포(매년 5.2)
1988	광고비 1조원 돌파 서울올림픽 계기로 네온사인 광고 부분 허용 외국인 광고모델 대거 출연(주윤발, 왕조현, 소피 마르소, 케니 로저스 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해외 디자이너 초청 지도사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시작 KBS 〈디자인에 승부를 걸어라〉, MBC 〈왜 디자인인가〉 디자인 특집 방영
	〈COSMA〉 창간		진달래 프로젝트 전시 삼성전자, 디자인연구소 설립
1989	한국시각디자인단체 총연합회 결성 한국광고학회 창립 옥외광고 시장 전면 허용		민철홍, 〈빛의 형상〉 전시회
	다시다 광고의, 〈한국적 표현〉 호평 〈산업디자인〉100호 발간	1995	광고비 4조원 돌파 문화체육부, 한글글자체 · 한글디자인전개최 멀티미디어 광고시대 개막
	롯데 월드 캐릭터 표절 시비 영국문화원, 디자인하우스 주최, 독일 박우하우스전 개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박물관 개관(30평 규모)
1990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국회 통과 공산품 품질평가 항목에 디자인 포함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준공 중앙일보, 전면 가로쓰기 실시
	문화부, 아름다운 한글-글자체 600년전 개최 한샘, 디자인연구소 설립	1996	현대자동차, 제1회 한국자동차디자인공모전 개최 삼성, IDS개원
	광고 2조원 돌파, 광고시장 자유화 허용		초, 중, 고 교과서에 산업디자인 내용 수록 멀티미디어영상 관력학과 대거 신설(홍익대 외)
			통상산업부, 애니메이션산업 등 영상산업에 국고 지원
		1997	산업자원부, 제 1차 산업디자인 기반 기술 프로젝트 공모 실시 산업디자인 병역 혜택 추진
			중앙일보, 조선일보, 신문 색션화 서울시 CI 발표
		1998	TBWA를 시작, 다국적 광고대행사 국내 진출 붐 한국디자인대회 '어울림'개최

1991-2000		2001-2014	
	현대자동차, 티뷰론 출시	2001	제1회 타이포잔치 개최(한가람미술관)
1998	FID를 비롯한 웨이전시 창업 붐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개칭, 코리아디자인센터 준공, 이전/ <산업디자인>, design db로 제호 변경
1999	제 2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개최		2001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 대회 개최
	대우자동차, 마티즈 출시		엽기토끼 마시마로 캐릭터 등장, 관련 사업 대유행
	2002 한일월드컵 엠블럼, 마스코트 발표		양화 포스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로 캘리그래피 붐의 시작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	2002	레인콤, 아이리버(mp3) 출시
	TTL 브랜드, 광고 출현		안상수, <한글상상전>
	디자인 오피스 브랜드 mmmg 등장	2003	아이코닉스, <뽀로로>제작(EBS)
	interdesign 1999, X-Design 1999, W.I.N.G 1999 개최		현대카드 <M카드>출시, 디자인 경영
2000	전경원, 전문가 출신으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원장으로 피선	2004	갤러리아 백화점 미디어 파사드 등장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 신설	2005	특허청,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
	디자인 전문 인력 병역 특례 허용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포함
	의자디자인에 대한 재인식		제1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개최
	인쇄, 원색필름 출력에서 CTP로 전환		LG전자, <초콜릿폰> 출시
	KIDP, 디자인 코리아 2000 개최		장동련, 이코그라다 회장 당선
			디자인 듀오, 슬기와 민 활동
		2006	기아자동차, 피터 슈라이어 CDO로 영입
			LG전자, 꽃무늬 <아트디오스> 출시
			디자인스튜디오 워크룸 활동
		2007	지자체, 디자인 담당부서 설치 붐
			서울시, <디자인 서울> 사업 시작
		2008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개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설립
		2009	기아자동차, K5 출시
			홍익대 대입 미술실기고사 폐지
			국내 아이폰 발매를 시작으로 스마트 미디어 붐
		2010	액션서울, 파머스파티 브랜드 개발
		2011	갤럭시-아이폰 디자인 특허 분쟁 시작
			고산의 TIDE 인스티튜트 중심으로 3D 프린팅 붐 시작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 한국디자인사의 시대별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

(1) 한국디자인 전사 개괄(일제 강점기부터 8.15 해방)

구한말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우리나라는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일본에 의한 36년 동안의 강점기는 우리의 주권과 문화가 말살된 암흑기로 지엽적으로는 디자인 관련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사적 가치로서의 평가는 무의미 하다.

- 통영 나전칠기 학교, 재봉학교 등 전문 직업학교의 디자인 관련 활동 개괄
- 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 제약 기업의 활동 개괄
- 당시 발행 신문에 게재된 광고 디자인 개괄

(2) 한국 디자인 태동기(1945-1970)

1945년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괴의 남침에 의한 민족 전쟁의 비극 6, 25가 발발한다. 정전 이후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4, 19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장면 내각 출범 1년 1개월만에 군부의 5, 16 군사 쿠데타로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책임제가 막을내리는 정치적인 격변기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미술 디자인 관련대학과 디자인 관련협회의 설립,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 수출진흥정책, 새마을운동 등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로서 디자인은 역사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 미술 디자인 관련 대학 및 학과신설

- 해방이후 서울대학,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조선대 미술 디자인 관련학과 신설
- 1960년대부터 디자인 관련학과가 인기 학과로 부상

■ 디자인 관련 협회 창립과 디자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한홍택, 조능식, 이완석, 권영휴)
- 한국상업미술가협회 창립(염인택, 봉상균, 김홍련, 김광현. 윤병규, 권명광, 양호일)
- 신상회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분야 신설 및 공모전(이봉상, 하중현)
- 프리즘그래픽전(양승춘, 김영기, 이춘희)

■ 포스타가 선전 계몽용 미디어로 적극 활용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6.25이후 국산품 애용, 방첩, 방공 등 사회 계몽 포스터 공모전에 상업고등학교의 미술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디자인 부족 인력을 적극 보완(김홍수, 이근배, 이명구, 박선의, 권명광, 김영기, 이상철)

■ 이벤트를 통한 디자인 인식 확산

- 서울국제음악제 대형포스터 디자인 등장(민철홍, 조영제)
- 구로동 만국박람회 등의 디자인 관련 이벤트(한도룡, 민철홍, 김길홍, 양승춘, 양호일)
- 미국 현대포스타전 개최(유강열)
- 에드워드 웬스턴이 기획한 인간가족 사진전 개최(임응식)

■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디자인 육성

- 한국디자인센터 신설(백태원, 박대순, 김홍련, 최승천, 박한유)
-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염인택, 강창균, 김길홍, 권명광, 김영기)

■ 기업의 디자인 활동

- 금성사, 태평양화학, 해태제과의 기업 디자인 활동(김명하, 장운호, 권명광, 한광수)
- 만보사, 연합광고, 합동광고 등의 광고대행사 활동(이기흥, 김선영, 이태영, 윤호섭, 김문웅)
- 진로, 화이자, 유유산업, 위커힐 등 기업의 디자인 활동(봉상균, 김광현, 부수언, 신지식)
- 편집·타이포그래피 활동(이상철, 정병규, 최정호, 한창기)
- 은행 디자이너 활동(여창구, 이찬진, 양호일, 권명광, 조영제, 류재우, 김국소)

■ 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증가 및 전시 활동

- 서울대(이순석, 권순형, 민철홍), 이화여대(백태호, 황종례, 배천범), 홍익대(한도룡, 박선의), 조선대학(박중운), 한양대(박대순, 엄광섭), 숙명여대(김수석)

■ 디자인 개인전 활동을 통해 디자인 인식 확산(한홍택, 권순형, 박재진, 박형철, 권명광)

(3) 한국 디자인 발전기(1971- 1990)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성공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던 시절로, 수출 상품의 디자인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었다. 70년대 초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 최초의 범 디자인 단체의 결성이 창립총회 당일 무산되면서 세부 전문 분야별, 이해관계에 따른 섹트별 디자인 단체가 난립하는 디자인계의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과의 디자인 교류 및 해외 유명 디자이너 초청, 각종 디자인 공모전 개최, 기업의 이미지 작업 확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 대전 엑스포 등의 국가 이벤트로 디자인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디자인의 한국성에 대한 관심이 각종 단체전 개인전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

■ 디자인 관련 학과의 증설 개편

- 실험대학 실시로 학점조정 편제개편 교과과정 정비(한도룡, 권명광)
- 2년제 서라벌 예술대학 중앙대에 흡수·통합(백태원, 김덕겸, 유제국, 신용태, 곽원모)
- 디자인대학 신설
- 디자인 관련 특수대학원 신설
- 디자인학과 세부 전공 다양화

■ 디자인 전문분야별 단체 설립

- 범 디자인단체 창립 무산(권순형, 민철홍, 조영제, 한도룡, 양승춘, 권명광, 박대순, 김수석)
- KSGD 창립(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조영제, 양승춘, 정시화, 이태영, 권명광)
- KSID 창립(한국공업디자인협회, 민철홍, 한도룡, 부수언, 안종문)
- KSCD 창립(한국공예디자인협회, 권순형, 강창균, 최승천, 최현칠, 김덕겸, 김성수)
- 한국디자이너협의회
- 한국디자인학회 창립(박대순, 이우성, 곽원모, 엄광섭)
- 한국광고학회(유봉노, 조관수, 황창규, 이대룡, 권명광, 조병량)

■ 국제적인 국가 이벤트

- 1986 아시안게임 개최(조영제, 양승춘, 권명광, 최동신, 신용태, 황부용, 안정언)
- 1988 올림픽 개최(조영제, 이만익, 한도룡, 민철홍, 권명광, 양승춘, 김현)
- 대전엑스포 개최(한도룡, 민철홍, 권명광, 김현)
- 19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권명광)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기업의 아이덴티 작업

- OB맥주, 제일제당, 제일모직, 신세계백화점(조영제)
- 서린호텔(박재진)
- 쌍용그룹, 문화방송, 한국전력(권명광)
- 제일은행, 체신부(안정언)
- 한일은행(김교만)

■ 광고대행사 설립 붐

■ 디자인의 한국적 정체성 탐색

-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의 색 회원전(권명광, 권문웅, 양승춘, 정시화)
- 한국의 이미지전(권명광, 류재우, 홍종일, 나재오, 정연중, 방재기, 전후연)
- 디자인코리아전(김교만, 김현, 구동조, 나재오, 정연중)

■ 디자인지 매거진 출간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 월간디자인, 월간 코스마 창간(이영혜, 황부용, 강무연)
- BIM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이영혜, 한호림, 류재수)

(4)한국 디자인 정착기(1991-2010)

정부는 19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 원년으로 삼아 1998년까지 500억 원의 디자인 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9700건의 디자인 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부주도의 디자인 발전 정책이 가시화되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진흥대회를 개최하여 디자인 관련 유공자를 표창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가 디자인 정책에 힘입어 디자인 단체의 사단 법인화, 디자인법인단체 총연합회 등이 설립되면서 디자인의 민간단체 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한국의 국가위상이 상향되면서 국제디자인 단체의 한국 측 보드멤버가 늘어나고 국제 회 의를 유치하는 등의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난다.

디자인개발센터가 디자인 진흥기관으로 업무형태를 쇄신하고 동숭동 대학로에서 분당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군 출신의 진흥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 공모에 의한 민간인 출신 원장에 의한 디자인 분당시대를 열어간다.

90년대 후반기 IMF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디자인 벤처 시대를 맞아 디자인의 역할이 증대되는 듯 하였으나 디지털 미디어시대 디자인의 지나친 세분화와 첨단 테크놀

러지에 의한 전문성 경시 경향으로 디자인의 위상이 하락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을 내세우면서 한때 공공디자인 붐을 일으키는 듯 하였으나 서울 시장 보궐선거 시 디자인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 입지가 좁아졌다.

■ 국가디자인 정책 변화에 따른 디자인계의 대립과 법인화 추세

- 디자인 개발기관으로서 기능을 순수 디자인 진흥기관으로 법률개정(조영제, 권명광, 부수언, 김교만)
- 한국산업디자인협회 사단법인화(부수언, 안종문, 김태호)
-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사단법인화(장윤희, 임종웅)
- 한국시각디자인협회 사단법인화(조영제, 권명광, 안정언)
-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창립(조영제, 부수언, 권명광, 정경연)
-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창립(이상원, 최유미)

■ 디자인 관련 대학원 설립 붐

- 국제디자인대학원(유호민, 박판제, 나건, 김남식)
- 국민대학 테크노전문 대학원(김인철, 김철수)

■ 디자인 관련 학회 창립 붐

-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김홍련, 안정언)
- 한국디자인학회 재창립(김영기, 안상수)
- 한국기초조형학회(조열, 조태병)
-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최동신)
- 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상원)

■ 국제디자인대회 한국유치

- 이코그라다 밀레니엄 총회(권명광, 김광현, 안상수, 이순인, 조진희)
- 이코그라다 대구대회(백금남, 안창호, 이해만)
- 한국의 국가 디자인 이미지 이코그라다 회장국으로 격상(장동련회장, 안상수부회장)
- 익시드 회장(이순인 익시드 차기회장으로 결정)

■ 한국디자인 진흥대회 개최 매년 개최

- 유공자 표창(김철호, 한도룡, 권명광)

■ 국제 스포츠 이벤트

- 월드컵대회, LPGA, PGA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확대

-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제 도입(권영걸)
- 부산, 대구, 광주에 디자인센타 신설(박수철, 이봉원, 김제명, 이호연, 박한출)
- 공공디자인학회 창립(권영걸)
- 디자인재단 설립(권영걸, 심재진)
- 동대문디자인센터 건설
-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선정, 익시드 디자인 도시로 선정
-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이순인, 이순중, 은병수)
- 서울디자인한마당(권영걸, 정경원)
-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김계한)
- 2011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 통상산업부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디자인 정책

- 통상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민간디자인단체의 역학관계
- 문광부 산하 사단법인 공간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 서울특별시산하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센터

■ 기업 디자인 활동의 국제 경쟁력

- 현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업체의 치열한 디자인 전쟁
-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전쟁
- LG LCD 디스플레이, 3D의 디자인 전쟁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p>일제감정기 -1945 해방 한국디자인 전사</p>	<p>•통영 나전칠기학교, 재봉학교 등 전문직업학교의 디자인 관련 활동</p> <p>•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 제약기업의 활동</p> <p>•당대 발행 신문에 광고디자인 게재</p>			
디자인 교육계	디자인 단체	디자인계 주요 사건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국가정책
<p>1945-1970 태동기</p> <p>•미술/디자인 관련 대학교 및 학과 신설</p> <p>-해방 후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조선대 등</p> <p>-1960년대부터 디자인 관련 학과가 인기 학과로 부상</p> <p>•대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증가 및 전시 활동</p> <p>┆ 서울대 : 이순석, 권순형, 민철홍</p> <p>┆ 이화여대 : 백태호, 황종례, 배천범</p> <p>┆ 홍익대 : 한도룡, 박선의</p> <p>┆ 조선대학 : 박종운</p> <p>┆ 한양대 : 박대순, 엄광섭</p> <p>┆ 숙명여대 : 김수석</p>	<p>•디자인협회 창립 디자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p> <p>-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 대한산업미술가협회</p> <p>┆ 한홍택, 조능식, 이완석, 권영후</p> <p>-한국상업미술가협회 창립</p> <p>┆ 염인택, 봉상균, 김홍련, 김광현, 윤병규, 권명광, 양호일</p> <p>-신상회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분야 신설 및 공모전</p> <p>┆ 이봉상, 하중현</p> <p>-프리즘그래픽전</p> <p>┆ 양승춘, 김영기, 이준희</p>	<p>•포스터 부흥 : 선전 계몽용 미디어</p> <p>-6.25 이후 국산품 애용, 방첩, 방공 등 사회계몽 포스터</p> <p>-상업고등학교의 미술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디자이너 부족 인력을 적극 보완</p> <p>┆ 김홍수, 이근배, 이명구, 박선의, 권명광, 김영기, 이상철</p> <p>•이벤트 통한 디자인 인식 확산</p> <p>-서울국제음악제 대형포스터 등장┆ 민철홍, 조영제</p> <p>-구로동 만국박람회 등의 디자인 관련 이벤트</p> <p>┆ 한도룡, 민철홍, 김길홍, 양승춘, 양호일</p> <p>-미국 현대포스터전 개최┆ 유강렬</p> <p>-에드워드 웨스턴이 기획한 인간가족 사진전 개최┆ 임응식</p> <p>•디자이너 개인전 활동을 통한 디자인 인식 확산</p> <p>┆ 한홍택, 권순형, 박재진, 박형철, 권명광</p>	<p>•기업의 디자인 활동</p> <p>-금성사, 태평양화학, 해태제과</p> <p>┆ 김명하, 장윤호, 권명광, 한광수</p> <p>-만보사, 연합광고, 합동광고 등의 광고대행사</p> <p>┆ 이기홍, 김선영, 이태영, 윤호섭, 김문웅, 권문웅</p> <p>-진로, 화이자, 유유산업, 워커힐</p> <p>┆ 봉상균, 김광현, 부수언, 신지식</p> <p>-편집 · 타이포그래피 활동</p> <p>┆ 이상철, 정병규, 최정호, 한창기</p> <p>-은행 디자이너 활동</p> <p>┆ 여창구, 이찬진, 양호일, 권명광, 조영제, 류재우, 김국소</p>	<p>•디자인 육성 : 정부 수출 드라이브 정책 확산</p> <p>-한국디자인센터 신설</p> <p>┆ 백태원, 박대순, 김홍련, 최승천, 박한유</p> <p>-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개최 (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p> <p>┆ 염인택, 강창균, 김길홍, 권명광, 김영기</p>
<p>1971-1990 발전기</p> <p>•디자인학과 증설 개편</p> <p>-실협대학 실시로 학점 조정 편제 개편, 교과 과정 정비</p> <p>┆ 한도룡, 권명광</p> <p>-2년제 서라벌 예술대학 중앙대에 흡수 · 통합</p> <p>┆ 백태원, 김덕겸, 유제국, 신용태, 곽원모</p> <p>-디자인대학 신설</p> <p>-디자인 관련 특수대학원 신설</p> <p>-디자인학과 세부 전공 다양화</p>	<p>•디자인전문단체 설립</p> <p>-범 디자인단체 창립 무산</p> <p>┆ 권순형, 민철홍, 조영제, 한도룡, 양승춘, 권명광, 박대순, 김수석</p> <p>-KSGD(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창립</p> <p>┆ 조영제, 양승춘, 정시화, 이태영, 권명광</p> <p>-KSID(한국공업디자인협회) 창립</p> <p>┆ 민철홍, 한도룡, 부수언, 안종문</p> <p>-KSOD(한국공예디자인협회) 창립</p> <p>┆ 권순형, 강창균, 최승천, 최현철, 김덕겸, 김성수</p> <p>-한국디자이너협의회</p> <p>-한국디자인학회 창립</p> <p>┆ 박대순, 이우성, 곽원모, 엄광섭</p> <p>-한국광고학회</p> <p>┆ 유봉노, 조관수, 황창규, 이대룡, 권명광, 조병량</p>	<p>•디자인의 한국적 정체성 탐색</p> <p>-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의 색 회원전</p> <p>┆ 권명광, 권문웅, 양승춘, 정시화</p> <p>-한국의 이미지전</p> <p>┆ 권명광, 류재우, 홍종일, 나재오, 정연중, 방재기, 전후연</p> <p>-디자인코리아전</p> <p>┆ 김교만, 김현, 구동조, 나재오, 정연중</p> <p>•디자인지 매거진 출간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p> <p>-월간 디자인지 창간┆ 이영혜, 황부용, 강무연</p> <p>-원간 코스마 창간</p> <p>-BIM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이영혜, 한호림, 류재수</p>	<p>•기업 아이덴티티 작업</p> <p>-OB맥주, 제일제당, 제일모직, 신세계백화점</p> <p>┆ 조영제</p> <p>-서린호텔</p> <p>┆ 박재진</p> <p>-쌍용그룹, 동아그룹, 대우제약</p> <p>┆ 권명광</p> <p>-제일은행, 체신부</p> <p>┆ 안정언</p> <p>-한일은행</p> <p>┆ 김교만</p> <p>•광고대행사 설립 붐</p>	<p>•국제적인 국가 이벤트</p> <p>-1986 아시안게임 개최</p> <p>┆ 조영제, 양승춘, 권명광, 최동신, 신용태, 황부용, 안정언</p> <p>-1988 서울올림픽 개최</p> <p>┆ 조영제, 이만익, 한도룡, 민철홍, 권명광, 양승춘, 김현</p> <p>-대전엑스포 개최</p> <p>-1997 무주 ·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p> <p>┆ 권명광</p>
<p>1991-2010 정착기</p> <p>•디자인관련 대학원 설립 붐</p> <p>-국제디자인대학원</p> <p>┆ 유호민, 박판제, 나건, 김남식</p> <p>-국민대학 테크노전문대학원</p> <p>┆ 김인철, 김철수</p> <p>•디자인 관련 학회 창립 붐</p> <p>-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p> <p>┆ 김홍련, 안정언</p> <p>-한국디자인학회 재창립</p> <p>┆ 김영기, 안상수</p> <p>-한국기초조형학회</p> <p>┆ 조열, 조태병</p> <p>-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p> <p>┆ 최동신</p> <p>-한국애니메이션학회</p> <p>┆ 이상원</p>	<p>•국가디자인 정책 변화와 디자인 단체 법인화</p> <p>-디자인 개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순수 디자인진흥기관으로 법률 개정</p> <p>┆ 조영제, 권명광, 부수언, 김교만</p> <p>-한국산업디자인협회 사단법인화</p> <p>┆ 부수언, 안종문, 김태호</p> <p>-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사단법인화</p> <p>┆ 장윤호, 임종웅</p> <p>-한국시각디자인협회 사단법인화</p> <p>┆ 조영제, 권명광, 안정언</p> <p>-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창립</p> <p>┆ 조영제, 부수언, 권명광, 정경연</p> <p>-한국애니메이션학회 창립</p> <p>┆ 이상원, 최유미</p>	<p>•국제디자인대회 이사회 및 대회 한국 유치</p> <p>-Icograda 밀레니엄 총회</p> <p>┆ 권명광, 김광현, 안상수, 이순인, 조진희</p> <p>-Icograda 대구대회</p> <p>┆ 백금남, 안창호, 이해만</p> <p>-한국의 국가 디자인 이미지 Icograda 회장국으로 격상</p> <p>┆ 장동련 회장, 안상수 부회장</p> <p>-ICSID 회장</p> <p>┆ 이순인(ICSID 차기회장으로 결정)</p> <p>•한국디자인진흥대회 개최(매년)</p> <p>-유공자 표창</p> <p>┆ 김철호, 한도룡, 권명광</p> <p>•국제 스포츠 이벤트</p> <p>- 월드컵대회, LPGA, PGA</p>	<p>•기업 디자인 활동의 국제경쟁력</p> <p>-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업체의 치열한 디자인 전쟁</p> <p>-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전쟁</p> <p>-LG LCD 디스플레이, 3D의 디자인 전쟁</p> <p>•국가 차원의 디자인 이벤트</p> <p>-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오픈</p> <p>-구로디지털미디어시티 오픈</p>	<p>•디자인 정책 : 통상산업부/문화관광부/서울특별시</p> <p>-통상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민간디자인단체의 역할관계</p> <p>-문화부산하 사단법인 공간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p> <p>-서울특별시 산하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 센터</p> <p>•지자체 공공디자인 사업 확대</p> <p>-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제 도입┆ 권영걸</p> <p>-부산, 대구, 광주에 디자인센터 신설</p> <p>┆ 박수철, 이봉원, 김제명, 이호연, 박한출</p> <p>-공공디자인학회 창립┆ 권영걸</p> <p>-디자인재단 설립┆ 권영걸, 심재진</p> <p>-동대문디자인센터 건설 중</p> <p>-서울특별시 유네스코 디자인 창조 도시로 선정</p> <p>┆ ICSID 디자인 도시로 선정</p> <p>-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순인, 이순종, 은병수</p> <p>-서울디자인한마당┆ 권영걸, 황정원</p> <p>-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김계한</p> <p>-2011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p>

그림 328.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주요 아젠다와 인물, 내용: 권명광

(5) 요약 다이어그램

앞의 다이어그램에서 언급된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자이너가 활동한 분야별 횟수와 총 횟수이다.

이름	교육	단체	이슈	산업	정책	총합
강무연			1			1
강창균		1			1	2
곽원모	1	1				2
구동조					1	1
권명광	1	7	6	3	5	22
권순영	1	2	1			4
권영걸					4	4
권영휴		1				1
김계한					1	1
김광현		1	1	1		3
김교만		1	1	1		3
김국소				1		1
김길홍			1		1	2
김남식	1					1
김덕겸	1	1				2
김명하				1		1
김문웅				1		1
김선영				1		1
김성수		1				1
김수석	1	1				2
김영기		2	1		1	4
김인철	1					1
김제명					1	1
김철수	1					1
김철호			1			1
김태호		1				1
김현			1		2	3
김홍련	1	1			1	3
김흥수			1			1
나건	1					1
나재오			2			2
류재수			1			1
류재우			1	1		2
민철홍	1	2	2		2	7
박대순	1	2			1	4
박선의	1		1			2
박수철					1	1
박재진			1	1		2
박종운	1					1
박판제	1					1
박한유					1	1

이름	교육	단체	이슈	산업	정책	총합
박한출					1	1
박형철			1			1
방재기			1			1
배천범	1					1
백금남			1			1
백태원	1				1	2
백태호	1					1
봉상균		1		1		2
부수연		4		1		5
신용태	1				1	2
신지식				1		1
심재진					1	1
안상수			3			3
안정연		2		1	1	4
안종문		1				1
안창호			1			1
양승춘		2	3		2	7
양호일		1	1	1		3
염광섭	1	1				2
여창구				1		1
염인택		1			1	2
유강열			1			1
유봉노		1				1
유제국	1					1
유호민					1	1
윤병규		1				1
윤호섭				1		1
은병수					1	1
이근배			1			1
이기흥				1		1
이대룡		1				1
이만익					1	1
이명구			1			1
이봉상		1				1
이봉원					1	1
이상원	1	1				2
이상철			1	1		2
이순석	1					1
이순인			2		1	3
이순종					1	1
이영혜			1			1

이름	교육	단체	이슈	산업	정책	총횟수
이영혜			1			1
이완석		1				1
이우성		1				1
이찬진				1		1
이춘희			1			1
이태영		1		1		2
이해만			1			1
이호연					1	1
임응식			1			1
임종웅		1				1
장동련			1			1
장윤희		1		1		2
전후연			1			1
정경연		1			1	2
정병규				1		1
정시화		1	1			2
정연중			2			2
조관수		1				1
조능식		1				1
조병량		1				1

이름	교육	단체	이슈	산업	정책	총횟수
조열		1				1
조영제		5	1	2	2	10
조진희			1			1
조태병		1				1
최동신		1			1	2
최승천		1			1	2
최유미		1				1
최정호			1			1
최현칠		1				1
하종현		1				1
한광수				1		1
한도룡	2	2	2		2	8
한창기				1		1
한호림			1			1
한홍택		1	1			2
홍종일			1			1
황부용					1	1
황부용			1			1
황종례	1					1
황창규		1				1

표 6.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주요 아젠다에 등장하는 인물 요약

1945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인물들의 활동을 보면 권명광, 조영제, 한도룡, 민철홍, 양승춘, 부수연을 비롯해 한국디자인이 전개되고 정착하기 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한 인물과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까지 총 122 명이다. 이들 중에 그 중에 디자인계의 인접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 정책전문가 등도 포함된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도안’을 공부하고 교육을 했으며 위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이들의 교육을 받고 한국근현대디자인을 개척한 주역들이다.

이미 작고한 1세대 디자이너들의 행적과 작품을 뒤늦게 발굴하고 가치를 찾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당사사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남아있는 기록 문헌이 극히 적고 분산되어 있으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추적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특히 작품의 경우, 원본 작품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공개를 꺼려하는 유족도 있고, 협조를 얻는다고 해도 각 작품의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듣기 힘들다.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자료로 남기기 위한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현존 원로디자이너들의 육성 증언과 기록, 아카이빙 및 이에 대한 동의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들 중 작고한 인사를 외에 폭넓고 주요 활동을 했던 원로디자이너의 증언과 작품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아카이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주요 인사들을 선별

하기 위함이다. 덧붙여 역사연구가 일정 연구 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속된다는 점에서 활동을 교육, 산업의 현장에서 일단락 마무리하는, 한국근현대 디자인 자료 보존에 적합한 증견디자이너들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선별의 기준은 총괄자문위원인 권명광⁶⁸⁾의 폭넓은 디자인계 활동과 인접분야와의 교류에서 우선 기록화해야 할 인사들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o.	이름	분야	no.	이름	분야	no.	이름	분야
1	구동조	시각	10	부수연	제품	19	장동련	브랜드
2	권명광	시각	11	안상수	시각	20	장윤희	패키지
3	김영기	시각	12	안종문	제품	21	정병규	타이포그래피
4	김현	시각	13	원유홍	시각	22	조열	영상
5	류재우	시각	14	윤호섭	시각	23	조영제	시각
6	민철홍	제품	15	이상원	애니메이션	24	최동신	패키지
7	박종운	시각	16	이상철	타이포그래피	25	최승천	목공예
8	방재기	시각	17	이순인	제품	26	한도룡	제품
9	백금남	시각	18	이해만	시각			

표 7. 한국근현대디자인사 대담 및 인터뷰 가능성 높은 디자이너

68) 교육자, 디자인 경영자, 각 단체의 협회장 및 심사위원장, 디자이너로서 최초로 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https://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Column.asp?gubun=0&oDm=3&page=1&bbsPKID=21117#heads>

(5)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근대화는 역사적 배경에 의해 시기가 늦어진데다 일제강점기, 6.25라는 커다란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 사회, 문화, 이념 등 모든 부분이 급격하게 변하였다.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를 흡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역사적 사조가 중복되는 시기도 있었다.

근현대 한국디자인의 전개를 주요 흐름과 인물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성장

한국근현대디자인은 크게 태동기(1945-1970), 발전기(1970-1990), 정착기(1991-2010)의 단계를 거친다. 디자인 관련 대학과 디자인 관련 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설립되었던 회사들, 해방 후 설립되기 시작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디자인에 의한 제품과 브랜드를 제작했으며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과 함께 공예를 중심으로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도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후학 양성에 들어갔으며 조직적인 단체 활동이 진행되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이 디자인을 입고 생산되었으며 디자인 관련 정부기관들이 설립되면서 디자인은 균형을 맞춰가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디지털 문화가 들어오면서 디자인은 물론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1세대 디자이너들의 개척 행로

전쟁으로 인한 환경의 황폐화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당시 개척자들의 역할이 컸다. 디자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도안을 공부하고 온 인물들이 작품 활동과 함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회화, 공예, 도안 등 분야를 구분하지 않았고 교육과 개인전 활동을 병행하며 디자인을 찾아 나갔다. 그 가운데 1945년 전후 성장한 기업과의 교류, 디자인인 기관에 참여 등으로 디자인은 개인, 교육, 단체, 기업, 정부를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어가며 활성화되었다(그림 324).

(3) 시기별 주요 아젠다와 인물

권명광은 한국디자인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주요 아젠다와 인물을 정리하였으며

추후 한국디자인사 연구 및 자료보존 사업을 심화시킬 때 먼저 다음의 인물들을 필두로 시작할 수 있다. 디자이너 및 관련 분야 인사들로 구동조, 권명광, 김영기, 김현, 류재우, 민철홍, 박종운, 방재기, 백금남, 부수언, 안상수, 안중문, 원유홍, 윤호섭, 이상원, 이상철, 이순인, 이해만, 장동련, 장윤희, 정병규, 조열, 조영제, 최동신, 최승천, 한도룡 등(가나다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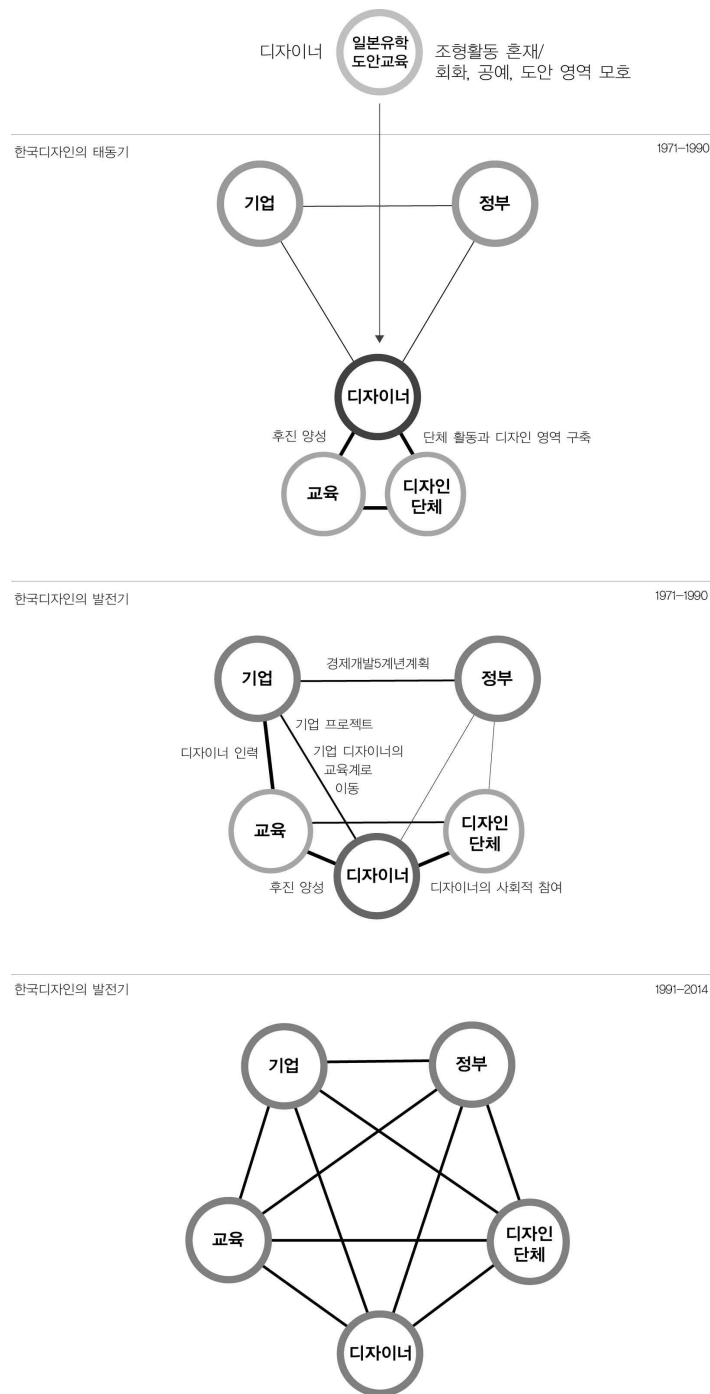


그림 329. 인물 중심의 근현대 한국디자인 변화

4.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국내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

-현재 디자인박물관으로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 한 곳이며 개인 운영이다. 폭넓은 디자인 자료 수집·보존·복원·공개 등 관리에 한계가 있다(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의 물리적 공간). 아카이빙은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하며 시스템을 통해 연동시켜 검색을 제공해야 하므로 역시 개인 운영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 전문 아카이브는 전무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존 자료들 중에는 디자인 사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역사관의 차이로 디자인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분석하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디자인과 민감한 관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중 역사가 오래되고 적극적인 자료보존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협조 하에 소장품 중 디자인 자료 수집 가능한 대상이 많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폐업하거나 합병한 회사 중 디자인 사료가 남아있는 회사들도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 회사의 역사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과의 공조로 디자인 관점에 의한 사료 발굴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디자인 자료는 자료 보존 의식이 강하지 않고 한국디자인 연구와 자료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보존은 하겠지만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 작품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작품이거나 오래된 작업들은 소홀하게 관리한다. 보관상의 이유로 이사, 정리 등 어느 시기에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본인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잦은 설립과 해산을 반복하여 그 과정에서 자료를 없앤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디자인 단체, 디자인총연합회 등 역사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교육 역시 역사가 오래된 대학교라도 체계적인 아카이브가 진행되지 않았

다. 최근 몇몇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단순 역사 정리에 가깝고 디자인과 교수, 졸업생, 그룹 활동 등 관련 아카이브는 전무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한 디자인 관련 정부기관의 경우 명칭 변경에 따른 운영방침의 변화, 기관장의 부임에 따른 사업 지속성 단절, 디자인 외 인접 분야와의 영역 확보 등의 문제로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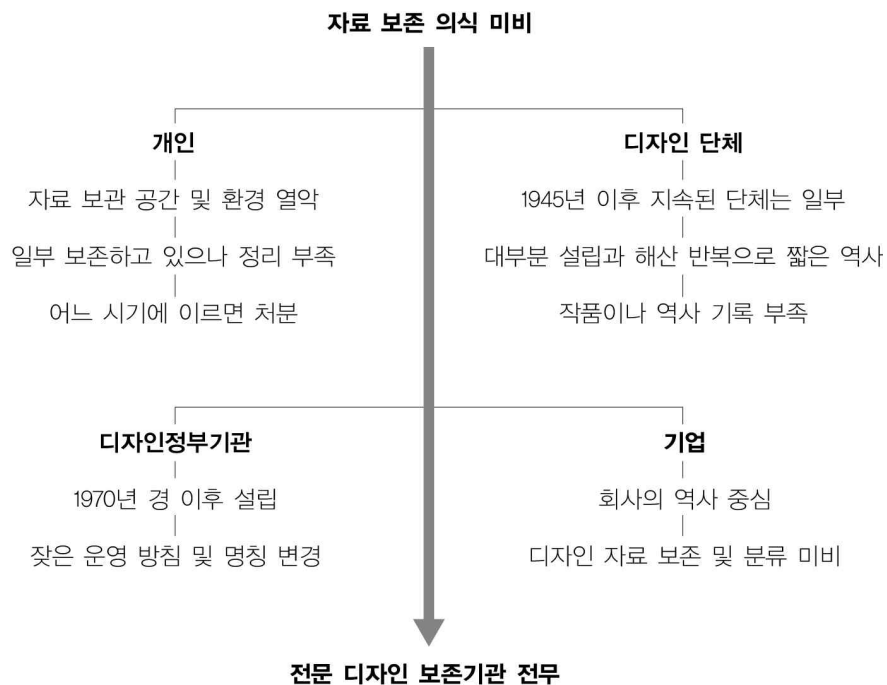


그림 330. 한국디자인자료 보존 현황과 이유

(2) 문헌자료 보존 및 연구 현황

-단행본, 논문,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사, 도록 등 문헌 유형에 따라 텍스트 중심, 작품 중심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한국디자인사 연구에서, 전문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개인이 자신의 역사관과 해석을 논리정연하게 설득적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이므로 종합적인 접근은 아니다. 특히 한국디자인사 관련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발표된 논문의 저자가 중복되고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이 지배적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단행본, 보고서(공공기관 지원 프로젝트), 정기간행물이나 일간지에 칼럼 투고 등 대부분 중복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디자인 자료 및 역사 관점이 단조로우며 풍부하지 못하다. 인용하는 상당수의 자료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자료이다.

-디자인 자료 발굴 및 보존, 아카이브 구축은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실시 하였으나 지속성을 없고 일관된 방향에 의한 자료 구축이 아니라 단기성 연구가 대부분 이다.

(3) 국외 디자인 사료 보존 현황(박물관/아카이브)

-디자인 전문 박물관과 전문 아카이브(박물관 없는)가 다수 설립되어 있다. 한 국가에 특징과 성격이 다른 박물관이 여러 곳일 만큼 디자인 자료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되어 있다.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다 기증을 함으로써 박물관과 아카이브라는 기관이 설립되는 경 우가 많다. 관리, 수장고, 아카이빙에서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디자인계가 아니더라도 기증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와의 상호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기업의 역사를 수준 높은 디자인을 매개로 공개한다.

(4) 한국디자인사의 시대별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보존현황은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아카 이빙은 전무한 상태이다. 디자인 소장품은 주로 박물관과 부속 아카이브에 흩어져 있다. ‘디자인’이라는 사항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대별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경제적으로 검색할 수 없다.

-그 중 한국근현대디자인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디자이너들은 시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진행해야하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개인의 디자인 인생은 곧 한국근현 대디자인사 흐름의 일부이며 그들의 작품은 디자인 사료가 되기 때문이다.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 중 그나마 양호하고 접근하기 쉬운 경우는 디자이너 개인에 대

한 접촉이다. 보존 의사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하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작고한 원로 디자이너의 경우 작품 보존과 기록, 역사적 증언 등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로디자이너들의 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권명광의 한국디자이너사 주요 아젠다 및 주요 인물의 요약에 따라 구동조, 권명광, 김영기, 김현, 류재우, 민철홍, 박종운, 방재기, 백금남, 부수언, 안상수, 안종문, 원유홍, 윤호섭, 이상원, 이상철, 이순인, 이해만, 장동련, 장운호, 정병규, 조열, 조영제, 최동신, 최승천, 한도룡 등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터뷰와 작품 보존 의사를 타진해야한다. 꼭 원로가 아니라도 이들의 시간 흐름도 같이 흐르기 때문에 작고한 원로 디자이너와 현 원로디자이너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언

-디자인 자료발굴과 아카이브 구축은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료가 쌓일수록 아카이빙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기획에 따라 자료 발굴의 우선순위, 대상 선정, 발굴(접촉) 과정을 다변화하고, 동시에 아카이브 정보 정리를 병행해야 한다.

-기존 타 분야 역사 발굴 사례와 마찬가지로, 복원해야할 중요한 디자인 사료를 관리하고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 및 양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학예사의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다.

-해외 디자인 보존 현황 조사에서 선행연구로 인용했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한 프로젝트이다. 국립박물관과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을 설립을 국가에서 둘 이상의 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쉽지 않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의 선점은 물론 자료 발굴과 아카이빙의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의 ‘실행’과 ‘지속성’ 여부가 관건이다. 고착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근현대디자인 자료 발굴 및 연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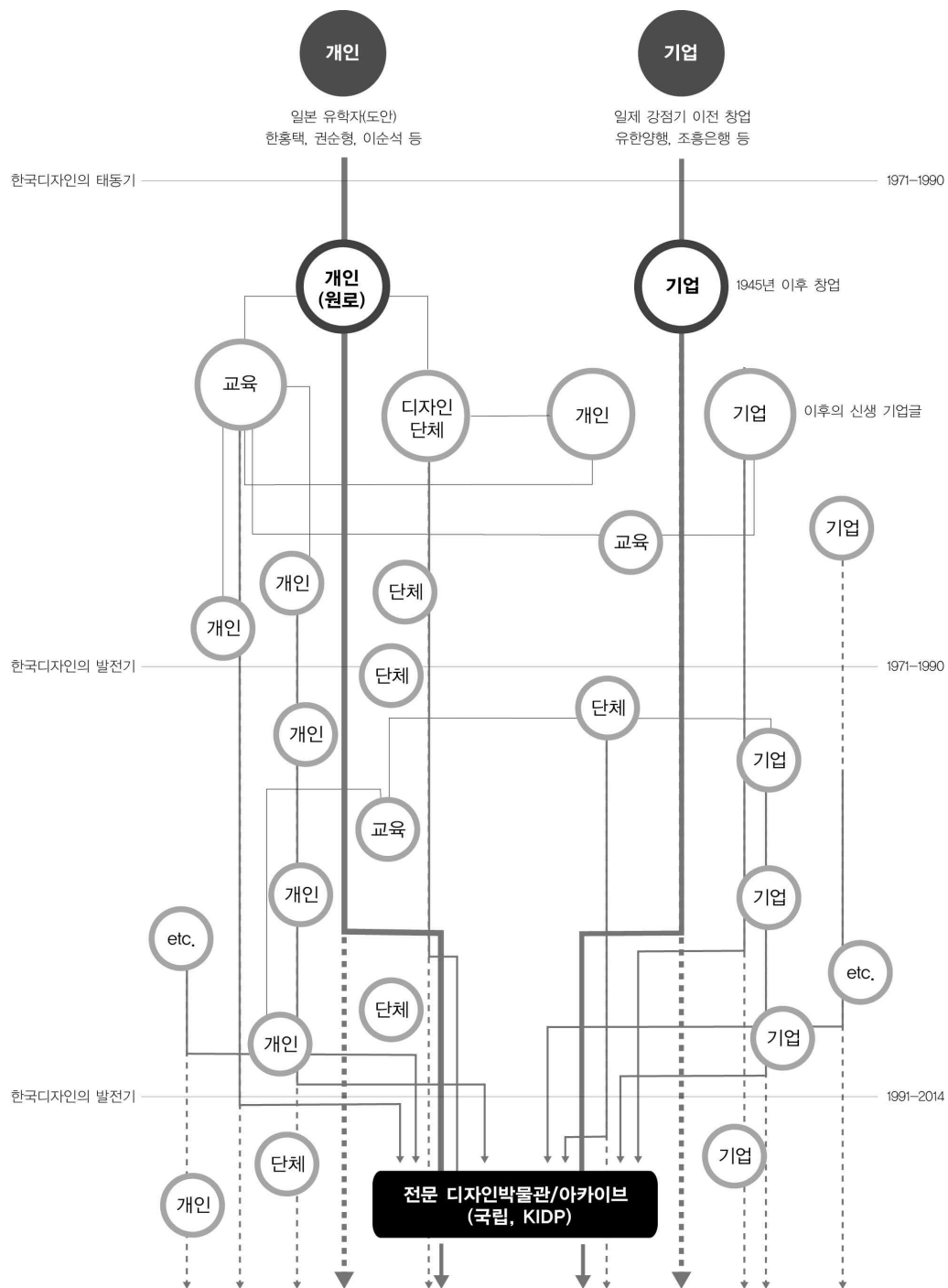


그림 340. 디자인 자료보존에 따른 전문 디자인박물관·아카이브의 필요성

-디자인 자료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관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분히 ‘최초’ 라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디자인 수준이 떨어지고 대표성이 부족한 디자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차후의 디자인 중 디자인 보

존 가치가 높은 사료는 등한시 할 우려도 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경우 ‘최초’ 보다는 ‘최고’, ‘대표성’, ‘상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를 두며 자료를 소장하기 때문에 디자인계 내부에서나 외부, 일반인들도 모두 유사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한국디자인역사의 ‘흐름’과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자료 발굴과 아카이브가 진행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특성 상 동일한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자료는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료로서 가치를 높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디자인계 내의 가치부여가 필요하다. 디자인의 특성 상 우리 일상에서 대부분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용품과 정보가 디자인 자료 수집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45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으나 ‘디자인계’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 존재해왔다. 인지도에 좌우되지 않고 묻혀 있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콘셉트, 실험적 시도와 기획 등 디자이너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 디자인 자료 발굴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는 점은, 바로 지속성이다. 역사 발굴과 보존, 복원, 아카이빙은 단시간에 성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역사’를 일컬을 때는 적어도 ‘세기’와 ‘사조’를 언급하는 만큼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사업성과의 핵심이다. 한국디자인 자료 중에서도 기업, 단체, 인물, 기관 등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지금까지 지속된 경우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과를 요구하며 급하게 줄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사업과, 단기간 성과를 공개할 수 있는 사업 등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

-디자인 자료발굴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 1, 2회 연장하여 비슷한 규모의 자료 발굴에 그치거나 ‘선정’에 그친다. 특히 50선, 100선 등 순위를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은 디자인계(교육, 기업, 디자인 실무 등)나 일반인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빈약한 자료 발굴 시점에서 일부 디자인 사례를 선정하고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료적 가치 검토 및 의미부여, 아카이빙과 가능한 많은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한국디자인사 관련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발표된 논문의 저자가 중복되고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이 지배적일 수도 있다.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연구자 저변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는 국내의 디자인 자료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근현대 디자인사의 주요 흐름에 따른 열개를 도출하여 후속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동기부여 하는 것이다. 디자인과 디자인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중심 역할,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디자인 성과를 거둔 원로 디자이너의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한 ‘한국 근현대 디자인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요약된 각 아젠다마다 자료 발굴 및 역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주제이다. 각 주제는 기본 열개에 해당하며 자료 발굴과 후속 연구 사업이 진행될수록 세부적인 내용은 풍부해질 것이다. 한국의 디자인 연구와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과 한국디자인 역사 정리에 그치지 않고,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부록

만화·애니메이션계 주요 사건 연표

1945-1950		1951-1960	
1945	신문들의 복간, 창간으로 20년대 시사만화의 전통 부활	1951	국방부 정훈국 미술부 잡지<만화승리>발간 (반공만화 시작)
	김용환 동아일보 시사만평 그림<코주부>등장	1952	김성환 <학원>에 <꺼꾸리군 장다리군> 연재
	김용환 어린이 신문에 <복남이의 모험> 연재		일본만화 <밀림의 왕자> 복제 출판
	김규택 <주간 소학생>에 <나의 동생들>연재	1954	만화전문 월간지 <만화세계> 창간
	김규택 조선일보 만평 그림	1955	김성환 <고바우영감> 시작
1946	최초의 만화단행본 김용환의 <토끼와 거북이>	1956	성인만화잡지 <만화춘추> 창간
	김용환 <똥똥이의 모험> 연쇄 출판(47년까지)		이후 만화열기 주춤, 만화전문 출판사 축소
1948	<만화행진> 창간	1958	김성환 <고바우영감> 필화
	만화동인회 발족(김용환, 김규택, 채남인, 신동현, 최상권, 김의환 등)		해외 만화영화 <피터팬> 수입상영
	최초의 만화비판글, 양미림 <만화시비> 발표	1959	전문만화직업인 조합, 김용환 회장의 대한만화가협회와 김성환 회장의 현대만화가협회로 구성
			첫 SF만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 발표
		1960	만화 대본소 체제 본격화
			<만화신문>, <주간만화> 창간

표 8. 연도별 만화·애니메이션계 주요 사건

1961-1970		1971-1980	
1961	최초 단편 만화 영화 <개미와 베짚이> 제작, KBS 방송	1971	소년한국일보와 합동문화사의 만화시장 쟁탈전
	한국아동만화자유회 결성		이종현 전 <아동만화론> 발간
	만화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통제의 제도화 시작)		세기상사 제작 용우수 감독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약동이와 영팔이>/방영진		MBC방송, 일본 무프로덕션의 <마린보이> 방송
	<꿀방이>윤승운 / <도깨비감투>신문수 등 희화체 명랑만화 등장	1972	일간스포츠에 고우영 <임궽정> 연재 시작
1962	<아라비안 나이트> 수입 상영		불량만화 추방 캠페인과 일제단속
1963	월트디즈니사 <신데렐라 공주>, <피노키오>, <백설공주> 수입 상영		명랑만화의 대명사 <꺼비> 발표
	방영진 학생명랑만화 <약동이와 영팔이>	1973	한국아동만화가협회 <한국만화선집> 발행
1964	KBS 수입만화 <개구장이 데니스> 만화영화 최초 방송	1974	<선데이서울>에 박수동 <고인돌> 연재 시작
	<새소년> 창간	1975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만화윤리세미나 개최
1966	합동문화사 설립, 독점적 출판체계 구축		MBC방송, <마징가Z> 방송
	한국부녀복지회 만화심의기구 설치	1976	김형배 <로보트태권V 우주작전> 개봉
1967	장편만화영화 신동헌 감독 <홍길동> 제작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피노키오> 방송
1968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한국아동만화윤리강령, 한국아동만화실천요강 제정)	1977	MBC 일본만화영화 <캐디> 방송
	박정희 대통령 불량만화 단속 지시		일본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인기
	사단법인 한국아동만화가협회 결정		일본만화 <올웨스의 창> 발간
	박영일 감독 만화영화 <손오공>, <황금철인>		임정규 감독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개봉
	TBC방송, 일본 제일동화주식회사의 <요괴인간> 방송	1978	강철수<발바리의 추억> 발표
1970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통합	1980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만화정화방안 발표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인 자율정화대회 개최

1981-1990		1991-2000	
1981	사회정화위원회, 불량만화 출판인 14인 구속	1991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 개봉관 상영 파문
	오규원 만화비평집<한국만화의 현실> 발간	1992	일본 애니메이션 본격적인 지하 유통 시작
1982	이해창 <한국시사만화사> 발간	1993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1983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김혜린 <북해의 별> 발표		MBC방송 일본만화영화 <핑구왕 통키> 인기
	김수정 <날자 고도리> 월간 <직장인>에 연재 시작		PC통신을 통한 일본 애니메이션 지하 유통 본격화
1984	김수정 <아기공룡둘리> 발표	1994	일본만화 <슬램덩크> 인기
1985	주간지 <만화광장> 창간		박재동 에세이집 <만화 내사랑> 발표
	오원출판사 <사상만화> 시리즈 발표		산호 <대주신제국사> 발표
1986	윤영옥 <한국신문만화사> 발표	1995	제1회 서울 국제만화 페스티벌 개최
	박홍용 <세계의 역사> 발표		만화영화 전용 케이블 채널 투니버스 개국
	이희재 단편만화 창작<간판스타>, 악동이> 발표		들꽃 컴퍼피 <홍길동 95> 제작
	이진주 <달려라 하니> 발표		애니메이션 영화 선풍 <블루시걸>, <붉은매>, <형그리 베스트 5>, <아마겟돈>
1987	YMCA 세미나 <어린이 만화 이대로 좋은가> 개최		성인만화 잡지 <미스터 블루> 창간
	비평집 <만화와 시대> 발간		만화통사편찬위원회 <한국만화통사> 연재시작
	주간지 <주간만화> 창간		일본만화 <짱구> 인기
	허영만 <카멜레온의 시> 발표		
	백서인 장편 역사만화 <장길산> 발표		
1988	노태우 대통령, 만화로 대통령 풍자 가능 선언		
	박재동 시사만화 <한겨레 그림판> 등장		
	이두호 장편만화<객주> 발표		
	허영만 <오! 한강> 발표		
	주완수 <보통 고릴라> 출간		
1989	일본만화 <드래곤볼> 인기		
1990	손상익 <스포츠서울> 주최 신춘문에 만화평론 당선, 비평집<만화세상이 오고있다> 발표		
	오세영 단편만화집<부자의 그림일기>		

패션계 주요 사건 연표

1945-1950		1951-1960	
1945 ~ 1954	몸빼, 낙하산 블라우스	1955	디자이너라는 명칭 사용
1950	검정물들인 군복 등 구호품 패션 유행		여성잡지 <여원> 창간-11월호부터 거리의 모오드 화보 개재
		1956	한국 최초 패션쇼 개최(디자이너 노라노)
		1957	최초의 스타킹 생산(남영나일론), 모직 생산(제일모직)
			7부 길이 소매의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수트나 원피스 유행
			맘보바지 등장
		1958	최초의 패션콘테스트 개최
			하이웨이스트의 앰파이어 라인 원피스 등장
		1959	나일론 국내생산 가능(나일론의 전성기)
			여성복의 주류가 양장으로 변화
		1960	복식연우회 일본시찰
			체크무늬와 스트라이프 무늬의 대유행
			샤넬수트 유행

표 9. 연도별 패션계 주요 사건

1961-1970		1971-1980	
1961	재건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유행 주춤	1971	미니스커트 단속
	외국산 의류 수입 금지		핫팬츠 등장
	신생활복 등장		미니와 함께 롱부츠 유행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발족	1972	제일모직 <골덴니트>로 여성 기성복 브랜드 등장
1962	을지로 6가에 평화시장 개장		개인 디자이너들의 기성복 진출 활발
	보세가공무역 시작		티셔츠와 진, 하이힐 유행
	제1회 신인디자이너 콘테스트 실시	1973	어린이대공원 개장기념 국제어린이패션쇼
	국내 최초 국제 패션쇼 개최		미디어와 샤넬라인의 공존
	통 좁은 맘보바지 유행		통넓은 판탈론, 스트레이트 팬츠 유행
	홈웨어 등장	1974	반도패션 기성복 산업 참여
1963	미도파백화점 정찰제 실시		니트 의류 인기 급상승
	한일친선패션쇼 개최		바지통 20인치까지 넓어짐
	기성복패션쇼 개최	1975	서울신문사 주최 새생활 복장 복지대회
	부인용 기성복 등장		대기업의 기성복 패션쇼-삼성물산 <댄디 맥그리거 패션축제>
1964	국제복장학원 최초 차밍스쿨 개설		1930년대 패션 유행
	미도파백화점 최초 기성복센터 창설	1976	반도, 삼풍, 부흥사 등 남성 기성복 참여
1965	한·미·일 합동 스타일화전	1977	럭키금성상사 반도 캐주얼로 남성 캐주얼 시작
	제2회 패션디자이너콘테스트		대기업의 여성 기성복업계 진출(제일모직, 코오롱, 한일합성, 유림통상, 삼성물산 등)
1966	방콕 동남아박람회 한국관 패션쇼		스포츠웨어, 니트웨어의 패션화
	기하학적인 절개가 있는 옷 유행	1978	판탈론 쇠퇴, 배기팬츠 대유행, 어깨선 강조하는 X 라인의 유행
	쇼트 헤어 유행	1979	탄성섬유 생산 개시
1967	아크릴섬유 국내 생산 가능		패션쇼 대행업체 활동 전개
	아세테이트섬유 제조시설 등장		의류상품 수입개시
	서울시 동대문, 남대문 시장 근대화 계획 수립		어깨, 허리 강조하는 폭 좁은 실루엣 유행
	여성잡지 <여성동아> 창간	1980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패션업계 침체
	무릎 위 5cm 정도 미니스커트(young look) 등장		체크무늬 플리츠스커트 유행
1968	폴리에스테르섬유 생산		
	반합성 섬유, 재생섬유 생산		
	패션전문잡지 <의상> 창간(10월)		
	복식디자이너협회 신인발굴 활동 확대		
	맘보바지 통이 넓어짐, 판탈론 등장		
1969	뉴욕한국디자이너들의 모임인 KAFD 조직		
	기성복의 산업화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유행		
	맥시 등장		
1970	남대문시장 국내 최신시장으로 개설, 동대문 종합상가 개점		
	일본 엑스포70에 한국관 패션쇼		
	제일복장 <댄디> 브랜드로 고급기성복 진출		
	판탈론 유행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981-1990		1991-2000	
1981	파리기성복 박람회에 9개업체 파견 스포츠웨어 신규 브랜드 진출 붐	1991	섬유류 수출감소 수입증가 한국유행색협회 창립
1982	캐주얼, 스포츠의류 확산으로 브랜드 의식 형성 주니어패션 개발 붐		구두 3개사 의류사업 진출 중저가 시장 침례
	제일모직 스포츠웨어 부문 진출		신세대패션 대두
	여성 속옷 패션마켓으로 떠오름		60년대 모드의 유행(오드리 스타일, 매클린 오나시스 스타일)
	물빨래 가능한 양복 등장	1992	섬유센터 준공
1983	교복자유화 실시		한국디자이너 해외진출 본격화(파리, 밀라노, 뉴욕, 동경, 오사카 컬렉션 참가)
	패션정보지 <멋> 창간		초미니룩, 란제리룩, 모자, 롱부츠 등 유행
	고가신사복 시장 전개/에스에스패션<입생로랑>, 반도패션<닥스>		70년대 리바이벌과 아메리칸 무드 확산
	쌍방울 여성 파운데이션 분야 진출	1993	파리 브레타 브르페에 한국디자이너 참가(이신우, 이영희, 진태욱, 홍미화)
1984	(주)코오롱 패션정보사업 진출		미시 캐주얼 본격 부상
	디자인기획 대행업 등장		신세대 타겟 브랜드 붐
	스포츠웨어 메이커 전문디자이너 육성 관심		스키웨어 시장 급성장
	스포츠 디자인 클럽 발족		스트리트 패션 파워 형성
	마린룩 인기		노출 심한 패션 트렌드, 과감한 디자인의 배꼽티, 액세서리, 모자, 벨트 등 소품 유행
	항아리스커트 인기		비틀즈룩과 히피스타일 유행
1985	<하이패션협회>발족	1994	국내 여성 단일브랜드 1100억원 돌파(조이너스)
	미술의상전시회 개최		유니섹스 및 넌에이지 시장 확대
	유아복업계 대리점 체제 전환		수입 란제리 시장 확대
	오리털 파커의 폭발적 인기		시스루룩, 미드리프 패션 유행
	어깨 살리는 역삼각형 실루엣 인기	1995	40년대의 글래머룩, 섹시룩, 이지룩, 액티브 스포츠룩 대두
1986	신사기성복 캐릭터 브랜드 출범-제일모직<세나토레>		
	중저가 브랜드 탄생 본격화-(주)이랜드		
	아시안게임 개최로 스포츠웨어 관심고조		
	프로스펙스 상표사용권 국내최초로 수출		
	고리바지 대유행		
	패션진(스트라이프진, 페이스리진 등)유행		
1987	세계 3위 섬유수출국으로 부상		
	(주)쌍방울 최초 <전품목 의류 패션쇼>개최		
	중저가 브랜드 붐		
	스노우진 등장 대유행		
	유니섹스 스타일		
1988	형광염료 개발 생산		
	골프웨어 시장 활기		
	<NEW WAVE IN SEOUL> 발족		
	승마바지 유행, 캐주얼 패션		
1989	제일모직 1백수 신사복지 개발, 신사복시장 돌풍, 신사복 중저가브랜드 출범		
	해외브랜드 도입 급증 및 완제품 수입 의류 등장		
1990	SFA컬렉션 개최		
	의류메이커 광고 열풍		
	90년대 새로운 교복문화 형성		
	아동복 시장 세분화 열풍, 액세서리 시장 부상		
	팜수터알 유행, 시티캐주얼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건축계 주요 사건 연표

1945-1950		1951-1960	
1945	조선 건축사협회 결성	1951	한국건설협회 창립
1946	국민주택 설계경기 영락교회/박동진		대한토목협회 창립
1947	전재민 주택 21, 391호 건설		부산 UN 전우탑 설계경기
1948	주택사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국군충훈탑 설계경기
1949	대구시청사 설계경기		도시계획위원회 발족
1950	조선건축기술협회 재건	1953	자유예술인연합 결성
			반도호텔 개조/공병단
			재건주택 설립/건설국 영선과
			국제건축연구회 설립
		1954	대한건축학회 재건
			남대문교회 설계경기
			공군본주 현상설계
		1955	〈건축〉 창간
			국전에 건축 부문 신설
			국민 부흥주택 건설
		1956	상업은행 설계경기
			신신백화점/종합건축
		1957	한국건축가협회 창립
			제1회 김중업 작품전
			독일현대건축전
			국제극장/종합건축
			종암아파트/대한주택영단
			명보극장/김중업
		1958	남산음악당 설계경기
			피카디리극장/배기형
			유네스코회관/김정수
			명동성모병원/김정수
			건설업법 제정
		1959	대한국토계획학회 창립
			〈주택〉 창간/대한주택영단
			농촌주택개량/김포가도
			불광동 국민주택단지
			대전/천안/청량리 역사 신축
			국회의사당 설계경기
			프랑스대사관 지명 설계경기
		1960	〈현대건축〉 창간
			김포국제공항/신국법
			혜화동성당/이희태

표 10. 연도별 건축계 주요 사건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1961-1970		1971-1980	
1961	김수근 건축연구소 개설	1971	반포, 여의도, 잠실지구 개발 착공
	건축법 제정		코리어나호텔/박춘명
	건축사법안 제출	1972	한국조경학회 발족
	청계천 복개도로 개통		남산 외국인아파트
	마포아파트	1973	세종문화회관 설계경기
	워커힐 설계		국립극장/이희태
	프랑스대사관 / 김중업		국민주택규모 25평 이하로 제한
1962	제1회 한국현대건축가전	1975	영동, 강남지구 개발
	대한주택공사 설립		한국은행 설계경기
	농촌주택 설계경기		국립경주박물관/이희태
	드라마센터/김중업	1976	도심재개발법 제정
1963	〈건축사〉 창간		플라자호텔/대성건설
	장충체육관/김정수		대우센터/대우개발
	모범농가 건축설계 설계경기		잠실종합운동장 설계경기
	성모병원/김중수	1977	〈꾸밈〉창간
1964	뉴욕박람회 한국관/김중업		공간사옥/김수근
	자유센터/김수근		효성빌딩/김종성,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옥/김수근
	오양빌딩/김수근	1978	세종문화회관 신축
1965	대한건축사협회 결성		주택청약예금제 실시
	제1회 건축사 시험 실시		정부 제2종합청사 설계경기
	현대건설 해외 건설 최초 진출	1979	수도권광역개발계획
	경기도청사/김희춘		한국종합전시장/김정철
1966	〈신건축사〉 창간		과천도시개발
	현충사 복원 정화공사	1980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 발표
	국립종합박물관 설계경기		
	유엔묘지 정문/김중업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		
1967	농어촌 지방개발촉진법 제정		
	부여박물관 전통 논쟁		
	67EXPO한국관/김수근		
	타워호텔/김수근		
	세운상가/김수근		
1968	YMCA회관/김정수		
	국회의사당 설계경기		
	건축가협회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불참 결의		
1969	불국사 복원공사		
	한국일보 사옥/김수근		
	문화방송국/김수근		
	KAL빌딩/한일개발		
1970	〈현대건축〉 창간/건축가협회		
	첨성대 보수정화공사		
	삼일빌딩/김중업, 수운회관/정인국		

1981-1990		1991-2000	
1981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창립 〈건축문화〉창간	1991	도시환경문화상 제정 경복궁 복원
	문예회관미술관/ 김수근		건축역사학회 창립
1982	제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국립중앙도서관/위형복		경주 선재미술관/김중성 한겨레신문사/조건영
1983	을지로2가 재개발 사업 창경궁 복원	1992	한국건축문화대상 제정 〈이상건축〉 창간
	아시아선수촌, 독립기념관, 목동 신시가지 설계경기		민속건축협의회 창립
	육군박물관/김중업		예술의 전당 축제극장 준공
1984	대형건물 미술품설치 의무화 〈건축과 환경〉 창간	1993	영종도 신국제공항 설계경기 경부고속전철 천연역사 설계경기
	국립진주박물관/김수근, 잠실종합경기장/김수근	1994	국립중앙박물관 설계경기
	예술의 전당 공모/김석철		전쟁기념관/이성관
	한국종합무역센터	199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김석철
	국제빌딩 /CRS	1999	마카오 중국 반환
1985	올림픽 상징 조형물/김중업		2000년대 뉴 밀레니엄 개막, Y2K 대비 이슈
	힐튼호텔/김중성		
	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		
1986	상계동 신시가지 착공 〈간향〉결성		
	력기금성 트윈타워/SOM		
	독립기념관/김기웅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1987	〈플러스〉 창간 〈간향〉 창간		
	국립청주박물관/ 김수근		
1988	예술의 전당 음악당/김석철		
	올림픽경기장		
	인터콘티넨탈호텔/범건축		
	김포국제공항 신청사/오수영		
1989	전쟁기념관 설계경기		
	국립전주박물관/이승우		
	서울법원청사/김수근		
	신도시 시범단지 설계경기		
1990	남산 원래모습 찾기 운동		
	김수근 문화상 제정		
	예술의 전당 미술관/김석철		
	용산가족공원 설계경기		
	통일전망대/김영웅		
	대전엑스포아파트 설계경기		
	올림픽 유스호스텔/김석철		

정치·문화·사회계 주요 사건 연표

1945-1950		1951-1960	
1945	해방	1950	6.25 한국전쟁
	미군 진주	1953	휴전협정
	조선, 동아일보 복간		화폐개혁
	서울신문 창간	1954	CBS라디오 개국
	신탁통치안 반대 투쟁		한국일보 창간
1948	경향신문 창간		4사 5일 개헌
	9월 총파업과 대구 폭동		정비석 〈자유부인〉 출간
1948	대한민국정부 수립	1955	민주당 창당
	제주도 4.3 사건	1956	정부통령 선거
	한글 가로쓰기 채택		전국지방선거
			자유부인형 여성상 등장
			대한증권거래소 개소(1995.8.8 증권시장 개장)
			최초상업 TV방송 HLKZ TV 개국
		1957	야간통행금지 실시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1958	참의원, 민의원 선거법 공포
		1959	신국가보안법 반대 데모
			민간 상업방송국 출현
			부산 MBC 라디오 개국
			사라호 태풍
		1960	4.19혁명 발발
			안익태 귀국 연주회
			스페인무용단 내한
			원각사 소실
			광화문에 〈가시오〉, 〈서시오〉 교통표지 등장
		1950 년대 후반	음악감상실, 댄스홀 등장(맘보, 재즈, 탱고, 로큰롤 등 전파)

표 11. 연도별 정치·문화·사회의 주요 사건

1961-1970		1971-1980	
1961	5.16 군사혁명	1971	국가비상사태선언
	경제개발 장기계획 책정		보위법 통과 공포
	중소기업은행 발족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KBS-TV 개국		남북 접십자 가족찾기 대회
	민간 문화방송국(MBC) 탄생		대연각 호텔 화재
	국내 최초 컬러 시네마스코프 <춘향전>개봉		서울-부산 간 자동전화(DDD) 개통
196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구미 전자공업단지 설립
	전국여성단체협의회 결성	1972	10월 유신 헌법 개정
	한국일보 필화사건		7.4 남북 공동성명 및 남북조절위원회 발족
	기아자동차 오토바이 생산 시작		서울시민회관 화재
	새나라자동차, 조립 생산		TV수상기 보급 1백만대 돌파
1963	제3공화국 출범(박정희 5대 대통령 취임)		세계최고금속활자본 직지심경 파리에서 발견
	동화백화점,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 변경, 개점		온라인 통장시대 개막
	쌀값 파동, 최초 '삼양라면' 생산		제일백화점 개점
	한국 ISO(국제표준화기구) 가입	1973	제1차 오일쇼크, 소비자 물가 폭등
1964	6.3 데모와 계엄		가정의례준칙 시행, 복지연금제도 신설
	수출 1억불 돌파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발족
	동양방송(TBC) 라디오, TV 개국		연극 토월회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
	신동아 복간		고교평준화 실시
	경제기획원에 컴퓨터 도입	1974	중동 건설시장 진출
1965	국군 월남파병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한일협정		한국내셔널, 컬러TV 수상기 생산
	최초의 연쇄상가 반도체선 아케이드 개점	1975	긴급조치 9호 선포
	중앙일보 창간	1976	북한 판문점 도끼만행
196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김기수 한국 최초 권투 세계챔피언		첫 반상회 실시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최		신안 해저유물 발견
1967	박정희 대통령 재선		양정모 올림픽 사상 첫금메달(레슬링)
	신민당으로 야당 통합		커피자판기 등장
	경부고속도로 착수	1977	쌀농사 대풍(자급화), 쌀막걸리 출현
1968	무장공비 침투		가계수표제 시행, 의료보험 실시
	향토예비군 창설		수출1백억 달러 돌파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	1978	제3땅굴 발견
	주민등록제 실시	1979	박정희대통령 서거, 12.12 사건
	경수 고속도로 개통, 전차 사라짐		제2차 석유파동
	코카콜라 판매 시작		한국종합전시장(KOEX) 개장
	<선데이서울>, <주간조선>, <월간중앙> 창간		성수대교개통, 롯데백화점 개점
1969	3선 개헌 국민투표, 신민당 해체		박경리 <토지> 출간
	마산 수출자유지역 조성, 전자공업진흥법 제정		국내 최초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오픈, 롯데백화점 개점
	신세계백화점 한국 최초 <신세계카드>도입	1980	광주민주화 운동, 전두환 대통령 취임
	국제위성통신전화 개통, 공중전화 등장		국민은행 금융기관 최초 신용카드제 실시
	삼성전자 설립		과외금지 등 교육개혁
	국내 최초 스포츠신문 <일간스포츠> 창간		KBS 컬러방송 시작
1970	수출 10억달러 달성		
	새마을운동 시작, 경부고속도로 개통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금산 통신인공위성중계소 완성		
	<아씨>, <아버지와 아들> 등 TV 일일연속극 붐		
	제1회 전자전람회 개최		

1981-1990		1991-2000	
1981	제5공화국 출범	1991	남북한 유엔 회원국 동시 가입
	제5차 경제개발 계획 발표		탁구, 축구 최초 남북단일팀 구성
	수출 2백억 달러 돌파		SBS개국 TV 3국 시대
	해외여행 자유화		소설 <동의보감> 베스트셀러, TV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대인기
	사발면 개발(농심)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마라톤 세계 제패
1982	이철희·장영자 사건		한국 첫 인공위성 발사
	서울국제무역 박람회 개최(40여개국 참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등 랩 위주 댄스음악이 가요계 주도
	통금해제	1993	김영삼 14대 대통령 취임
	독립기념관 건립 모금 운동		금융실명제 실시
	프로야구 시작		대전 EXPO
	국산 컴퓨터 1호 등장(8비트 교육용 조립 PC)	1994	김일성 사망
1983	KAL기 참사		한국경제 세계 15위권,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아웅산 암살 폭발사건		성수대교 붕괴
	연극 <신의 아그네스> 인기		대형뮤지컬 성행, 레계 등 흑인음악 열풍
	중고교생 두발, 교복 자율화	1995	소득 1만 달러 시대,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1984	LA올림픽 10위		케이블TV 방송 개시, 위성방송 본격화
	교황 방한 103위 시성		쓰레기 종량제 실시, 버스카드제 실시
	서울 대형 건물에 예술품 설치 의무화		삼풍백화점 붕괴
1985	설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		광복 50주년 총독부 건물 철거
	서울 지하철 3, 4호 개통		제1호 무궁화호(최초 실용위성) 발사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		윈도우 95, 인터넷 등장
	현대백화점 개점	1997	IMF 구제금융신청
1986	국제수지 흑자		문화체육부, 게임산업 육성방안 발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발표	1998	김대중 15대 대통령 취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		11년 만에 주가지수 300선 붕괴
	SK CD생산, 현대자동차 미국 첫 수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500마리 소떼 몰고 판문점 통과해 북한 방문
	버스전용차선제 도입		지식기반 산업 발전 대책 발표, 문화, 관광, 디자인, 정보통신 등 4개 분야 집중 진흥 결정
1987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1999	네이버 창업
	6월 민주 항쟁	2000	뉴밀레니엄 시작, Y2K 대비 이슈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KAL기 공중 폭발 참사		
	중부고속도로 개통		
1988	5공 청문회		
	제6공화국 출범		
	서울올림픽 개최		
	한국민속예술인연합 발족 및 월남북 예술인 해금		
	자동차 생산 1백만 대 돌파		
	휴대폰 생산(삼성전자)		
	24시간 편의점 등장		
1989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밀리언셀러 기록		
	마광수 교수인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논란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영화상영시 애국가 폐지		
1990	3당 합당 민주당 출범		
	지방자치 부활		
	범죄와의 전쟁 선포		
	평화, 불교, FM방송 개국		
	갤러리아백화점 개점		

2001-2010	
2001	영종도인천국제공항 개항
2002	월드컵 개최
	연평해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설
2003	참여정부 출범
	대구지하철화재
	서울시, 버스전용차선제 시행
2004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파동
	한칠레 FTA 발효
	KTX 개통
2005	청계천 복원사업 완료
2008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광화문 복원
2009	미디어법 개정 국회 통과
2010	천안함, 연평도 사건
	종합편성채널 4사 개국(TV조선 · JTBC · 채널A · MBN)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참고문헌

단행본

- 강현주, 한국의 디자인, 시지락, 2005
- 강현주, 디자인사 연구, 조형교육, 2004
- 광주비엔날레, 일상. 기억. 역사 :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광주비엔날레, 1997
-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 권명광, 權明光 : Designing the future of Korea since 1965, 시공사, 2002
- 김민수, 김성복 엮음, 디자인 문화비평 1(우상 허상 파괴), 안그라픽스, 1999
- 김수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 디자인, 조영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3
- 김수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 디자인, 양승춘,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3
- 김윤수 외 57인, 한국미술 100년, 한길사, 2006
-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2013
-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 서구의 디자인사를 백번 들여다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디자인 이야기, 미진사, 2008
- 오창섭, 제로에서 시작하라 : 민철홍과 한국의 산업디자인, 디자인플러스 현실문화연구, 2011
- 오창섭, 최경원, 김명환, 박고은, 채혜진, 생활의 디자인, 현실문화연구, 2011
- 디자인문화실험실 저, 디자인문화비평 2(정치 디자인 권력), 안그라픽스, 2000
- 디자인문화실험실 저, 디자인문화비평 3(디자인과 성), 안그라픽스, 2000
- 디자인문화실험실 저, 디자인문화비평 4(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안그라픽스, 2001
- 디자인문화실험실 저, 디자인문화비평 5(디자인과 정체성), 안그라픽스, 2001
- 디자인문화실험실 저, 디자인 문화비평 6(판타지스케이프), 안그라픽스, 2002
- 박대현, 한국 복디자인 100년(1883-1983), 21세기북스, 2013
- 박부자, 한글이 걸어온 길, 국립한글박물관, 2014
- 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 디자인, 민철홍,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3
- 안그라픽스, 안그라픽스 30년, 안그라픽스 2015
- 박용귀, 박연심 외 3명, 한국의 디자인: 산업 문화 역사, 시각문화의 내밀한 연대기, 디플, 2008
-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편, 기억과 대화 : 한국의 모던디자인과 부수언,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4
- 서울역사박물관편집부 저, 600년 서울을 담다 :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소도록, 서울역사박물관, 2014

서울역사박물관 편집부 저, 서울역사박물관(대), 서울역사박물관, 2002

아모레퍼시픽, 한광수, Amore Pacific:60 years of creativity 1945-2005, 아모레퍼시픽, 2006

알렉스 콜스, 디자인과 미술 : 1945년 이후의 관계와 실천, 위크룸프레스, 2013

양호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神話學 : 양호일 디자인 평론집, 유림문화사, 1989

오창섭, 근대의 역습(우리를 디자인한 근대의 장치들), 홍시, 2013

정시화, 現代 디자인 研究 : 現代디자인의 理論的 背景, 文旺社, 1975

창주고인쇄박물관, 직지 :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태학사, 2008

최공호, 한국현대 공예사의 이해, 재원, 1996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_한국 근대 공예사론, 미술문화, 2008

최범, 한국 디자인을 보는 눈, 안그라픽스, 2006

최범, 한국 디자인 신화를 넘어서, 2013

최범, 한국 디자인 어디로 가는가, 안그라픽스, 2008

최대석, 나는 디자인 전도사였다, 발행지불명, 2008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 100선 ,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2008

피터 도머,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언어, 1995

태평양50년사편찬위원회, 太平洋 五十年史 : 1945-1995, 태평양, 1995

한미자, 미의 여정-샘 내 강 바다, 아모레퍼시픽, 2008

호림박물관, 호림 문화재의 숲을 거닐다, 놀와, 2012

논문

강현주, 사회사적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방법론 모색,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0호 Vol.18 No.2), 2005

강현주, 세대변천과 기업 디자인의 변화- LG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78호 Vol.21 No.4, 2008, 119-130

고영란,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문화사적 접근을 향하여, 디자인학연구, Vol.58, 375-384, 2004

권명광,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형성과 그 전개」 :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74

김상규, 한국의 디자인유산 연구 - 현대 일상생활 도구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102호(Vol.25 No.3), 2012, 256-266

박암중, 한국 근현대디자인사의 전개와 정리 :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조형연구소, 2009

백경말, 특수박물관 탐방:서울디자인박물관, 통일한국 1994년 11월호 통권 제131호 , 1994, 118-119

오창섭, 모던 디자인사 서술의 전통과 극복,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35호(2000 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0, 82-83

유경민, 한국 시각디자인의 현대적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6

최범,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디자인학연구, Vol.58, 347-352, 2004

한국디자인학회 편집부, 한국디자인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디자인사 특별세션 종합토론 내용 요약,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8호(Vol.17 No.4), 2004.11, 397-400

최옥수, 이순석(李順石)의 공예와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Vol. 2 No. 2, 1999, 243-262

허보윤, 미술로서의 디자인 : 이순석의 1946년-1959년 응용미술교육, 조형 아카이브, 2010, 137-188

전시작품집, 도록

국립민속박물관,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디자인파크 저, 디자인파크 디자인연대기(1969-2011), 홍디자인, 2011

조영제, 趙英濟의 그래픽 世界 : 理想과 現實의 調和, 안그라픽스, 1995

백태원, 白泰元 工藝作品展, 甲乙, 1985

하라 이순석 작품집 발간추진위원회, 賀羅 李順石 作品集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동문회, 1993

한홍택선생작품집 발간추진위원회, 한홍택작품집, 한홍택선생작품집 발간추진위원회, 1988

홍익시각디자이너협회 1989 회원작품집

KOGDA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창립전, 서울그래픽센터미술관, 1984

KOGDA : 한국의 멋 : 제4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전,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동방플라자미술관, 1987

KOGDA : 한국의 멋 : 제5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전,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동방플라자미술관, 1988

KOGDA : 제7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전,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동방플라자 미술

관, 1990

KOGDA : 제9회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전,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1992

보고서

김용욱 외, 어울림 보고서 Oullim Report - 2000년 '어울림' 이코그라다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보고서, 안그라픽스, 2001

동서울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암중,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 1850-2000년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1999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국 디자인 선진화를 위한 개혁·정비 3년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99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순중, 한국의 디자인 50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서울디자인자산 1, 서울특별시, 2010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디자인자산 2, 서울특별시, 2012

인하대학교, 책임연구자 강현주, 한국디자인사 서술을 위한 기초 연구: 기업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 변천을 중심으로, 200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코리아디자인헤리티지 201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0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코리아디자인헤리티지 2008, 한국디자인문화재단, 200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자료, 2010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안상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K-DESIGN FORUM 2012 결과보고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2012

웹사이트 보고서

동서울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암중,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 산업자원부, 2002
<http://www.designdb.com/history/index1.html>

정기간행물

국립중앙박물관, 2013 국립박물관 연보, 국립중앙박물관, 2014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월간디자인 DESIGN, 디자인하우스, 1976(창간호)–2015
 월간 코스마 COSMA, 코스마디자인, 1988(창간호)–1994(통권 59호까지)
 홍익디자인 '87 창간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회, 1987
 홍익미술 제5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983
 서울문화투데이 2010년 07월 21일 옛 여인의 멋 – 코리아나 化粧 박물관
 월간조선]_ 2008. 9.1, “국내 최대 화장전문 박물관, 코리아나화장박물관”
 경향신문 5면, 1966.08.10., 外國(외국)것 본뜬 것
 경향신문 5면, 1967.06.26., 디자인時代(시대)
 경향신문 5면 1971.04.13., 프리즘 그래픽 디자인 그룹의 제4회 작품전이 명동화랑서
 경향신문4면, 1974.03.20., 商工美展(상공미전)에 一言(일언)한다
 경향신문 2면 경제기사(사설), 1972.04.20. 商工美術(상공미술)과 輸出戰略(수출전략)
 동아일보3면, 1928.08.16. 임숙재, 공예와 도안 1
 동아일보3면 1928.08.17. 임숙재, 공예와 도안 2
 경향신문 4면 사회(칼럼/논단), 1974.03.19., 老教授(노교수)와 캠퍼스와 學生(학생)
 <148> 李順石(이순석) (8)
 경향신문 4면 사회(칼럼/논단), 1974.03.20., 老教授(노교수)와 캠퍼스와 學生(학생)
 <149> 李順石(이순석) (9)
 매일경제 1982.7.19., 의식 계몽포스터전,
 매일경제 1994.10.16., 산업디자인 현재에서 미래까지-서울 속 영국 60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15010008970>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11649>
<http://www.designdb.com/history/museum/chart/3/1.html>
<https://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Column.asp?gubun=0&oDm=3&page=1&bbsPKID=21142#heads>
<https://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Column.asp?gubun=0&oDm=3&page=1&bbsPKID=21117#heads>
<https://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Column.asp?gubun=0&oDm=3&page=1&bbsPKID=21142#heads>
http://kde.kidp.or.kr/award/history.asp?s_count=18

그림목록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 선사고대관 구석기실 · 신석기실 www.museum.go.kr

그림 2. 금속공예실 1 www.museum.go.kr

그림 3. 기획특별전 '조선청화백, 푸른빛에 물들다' www.museum.go.kr

그림 4. 기획특별전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www.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5. 1970년대 안방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6. 주생활용품 전시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7. 소주병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8. 1965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분유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9. 새마을운동 노래, '새마을의 합창' 레코드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10.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47대를 납품한 삼성전자의 핸드폰(SH-100)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11. 해태제과 제품과 패키지디자인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12. 영화포스터카드 /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의 회고와 전망,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한글박물관]

그림 13. 한글박물관 전경 / 사진 이수진

그림 14. 한글의 역사 요약 / 사진 이수진

그림 15. 삼강행실도 언해 / 사진 이수진

그림 16. 시조창 악보,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 사진 이수진

그림 17. 도화수-자수 밑그림 / 사진 이수진

그림 18. 채색당사주 / 사진 이수진

그림 19. 청화백자-시계단지(식해단지)-20세기 / 사진 이수진

- 그림 20.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 사진 이수진
 그림 21.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 대한제국 1900년 / 사진 이수진
 그림 22. 책표지- ‘무녀도’ , ‘봉이김선달’ , 1940년대 후반 / 사진 이수진
 그림 23. 공병우의 세벌식타자기 / 사진 이수진
 그림 24.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展 / 사진 이수진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

- 그림 25. 청주고인쇄박물관 / 사진 이수진
 그림 26. 직지제작과정모형 / 사진 이수진
 그림 27. 세계문자 역사에 대한 인포그래픽 / 사진 이수진
 그림 28. 옛 활자와 인쇄된 책자 / 사진 이수진
 그림 29. 구텐베르크 42행본 성서 영인본 / 사진 이수진
 그림 30. 근현대인쇄전시관 내부 <http://jikjiworld.cheongju.go.kr/main/jikjiworld>

[한국광고박물관]

- 그림 31. 한국광고박물관 광고 사료 전시 1/ 사진 박완선
 그림 32. 한국광고박물관 광고 사료 전시 2/ 사진 박완선
 그림 33. 한국광고박물관 광고 사료 전시 3/ 사진 박완선

[서울역사박물관]

- 그림 34. 일제강점기 시절의 서울 / 사진 박완선
 그림 35. 서울의 야경 조감도 모형 / 사진 박완선
 그림 36. 시대별 주요 사건 / 사진 박완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그림 37. 90년대 극장 외부 모형 / 사진 박완선
 그림 38. 레코드판과 자켓 / 사진 박완선
 그림 39. 광복전후기의 우체통 사진 / 사진 박완선
 그림 40. 국산 최초로 제작된 시발(始發)자동차 / 사진 박완선

[MOA(서울대미술관)]

- 그림 41.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외관 / 사진 박완선

그림 42. 기획전 배너와 입구 / 사진 박완선

그림 43. 김교만, 민속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 <http://www.snumoa.org/Collection/list.asp?t=004>

그림 44. 조영제, 관광포스터 / <http://www.snumoa.org/Collection/list.asp?t=004>

그림 45. 민철홍, 扇 / <http://www.snumoa.org/Collection/list.asp?t=004>

그림 46. 권순형 白雲釉角花器 1975 / <http://www.snumoa.org/Collection/list.asp?t=004>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그림 47. 전시장 입구의 테마별 디자인사 요약 / 사진 이수진

그림 48. 전시 공간 / 사진 이수진

그림 49. 전시 공간 / 사진 이수진

그림 50. 국내 최초 라디오인 금성사의 A501 / 사진 이수진

그림 51. 책표지 / 사진 이수진

그림 52. 포스터 / 사진 이수진

그림 53. 국내 최초 TV인 금성사의 VD-191 / 사진 이수진

[삼성출판박물관]

그림 54. 오발탄으로 유명한 이범선작가의 서재 재현 / 사진 박완선

그림 55. 안쪽에 보이는 것이 용문사윤장대 복제품 / 사진 박완선

그림 56. 70년대 학습 자료와 각종노트 / 사진 박완선

그림 57. 근대의 인쇄 기계 / 사진 박완선

[스페이스C]

그림 58.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입구 / 서울문화투데이

그림 59. 지하에 위치한 미술관 / 사진 이수진

그림 60.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내부 전경 5층, 6층 / 스페이스C

그림 61. 1920년대에 사용됐던 분갑 / 월간조선

그림 62. 선조들이 사용했던 남성화장도구 / 서울문화투데이

그림 63. 영락잠 / 사진, 서울문화투데이

[호림박물관]

- 그림 64. 호림박물관 신림 본관 / <http://horimmuseum.org/sinsa>
 그림 65. 호림박물관 신사 분관 / <http://horimmuseum.org/sillim/>
 그림 66. 호림아트센터-신사 제 1 전시실 / <http://horimmuseum.org/sinsa>
 그림 67. 호림아트센터-신사 제2 전시실 / <http://horimmuseum.org/sinsa>
 그림 68. 자비도량참법 권제1~3, 보물 1170호 / <http://horimmuseum.org/sinsa>
 그림 69. 백자청화철화접문시명팔각연적 보물1458호 / <http://horimmuseum.org/sinsa>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 그림 70. 박물관에 소장된 미, 장식 관련 유물 / 디 아모레 뮤지움
 그림 71. 박물관에 전시된 제품과 광고, 2010 / <http://m.kyeonggi.com/articleView.html?idxno=525476#cb>
 그림 72. 회사 역사 전시(초기 생산 제품, 브랜드) / <http://storygarden.amorepacific.com>
 그림 73. 대표적인 브랜드, 광고디자인 전시 / <http://storygarden.amorepacific.com>
 그림 74.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초창기 개발 제품 / 사진, 스토리가든
 그림 75. 아모레퍼시픽에서 개발한 제품과 디자인 / 사진, 스토리가든
 그림 76. 제주의 티스톤(차문화 체험공간)/ <http://www.osulloc.com/tMuseum.do?method=bbsEventList&tpUpCd=BD07>
 그림 77. 오설록 브랜드스토리 / <http://www.osulloc.com/tMuseum.do?method=bbsEventList&tpUpCd=BD07>
 그림 78. 동서양 찻잔 전시 / <http://www.osulloc.com/tMuseum.do?method=bbsEventList&tpUpCd=BD07>

[서울디자인박물관]

- 그림 79. 한샘 DBEW 디자인센터 / http://www.hanssem.com/design/designCenter.do?stats=COM_MAIN_COMMON_SITE_MAP_02
 그림 80. 1993년 개관할 당시의 문헌자료에 남아있는 서울디자인박물관 전시 자료 1 / 통일한국 1994년 11월호
 그림 81. 1993년 개관할 당시의 문헌자료에 남아있는 서울디자인박물관 전시 자료 2 / 통일한국 1994년 11월호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MI)]

- 그림 82. 삼성전자의 발전사와 생산한 가전제품 전시 / 사진 이수진

- 그림 83. 디스플레이 제품들 / 사진 이수진
- 그림 84. 박물관 내의 샵 / 사진 이수진
- 그림 85. 디스플레이에 상영하고 있는 전기의 발명 / 사진 이수진
- 그림 86. 초기 전구와 가전제품 광고 전시 / 사진 이수진
- 그림 87. 필립스 전구 광고 / 사진 이수진
- 그림 88. TV발명 변천사 / 사진 이수진
- 그림 89. 삼성휴대폰 금형과 구조 / 사진 이수진
- 그림 90. 휴대폰의 발전 / 사진 이수진
- 그림 91. 시기별로 개발된 휴대폰 전시 / 사진 이수진
- 그림 92. 디스플레이에 즉시 반영되는 인터랙션 체험 / 사진 이수진

[현대모터스튜디오]

- 그림 93. 현대모터스튜디오 외관
- 그림 94. 내부의 자동차 전시 / 사진, 이수진
- 그림 95. 자동차 내장재 전시 / 사진, 이수진
- 그림 96. 키즈존 / 사진, 이수진
- 그림 97. 키즈존의 슬롯카 체험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 그림 98. 키즈존의 페이퍼토이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 그림 99. 자동차 관련 서적이 있는 자료실 / 사진, 이수진
- 그림 100. 현대모터스튜디오의 아이덴티티디자인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 그림 101.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디자인 소품 1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 그림 102.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디자인 소품 2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 그림 103. 1층에 전시된 작품, 에브리웨어의 ‘앙상블’ / 사진, 이수진

- 그림 104. 박물관정보관리협회(MDA)의 데이터 스탠다드(Data Standard) /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자료, 2010
- 그림 105. 박물관정보관리협회(MDA)의 데이터 스탠다드(Data Standard) /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자료, 2010
- 그림 106. 박물관자료 기록목록카드 /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자료, 2010

그림 107. 박물관자료 기록목록카드 /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자료, 2010

그림 108.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보고서(1999)-한홍택 1 /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그림 109.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보고서(1999)-한홍택2 / 한국 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그림 110.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2002, 1 <http://www.designdb.com/history/index1.html>

그림 111.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2002 -한홍택 1<http://www.designdb.com/history/index1.html>

그림 112. 한국디자인사료 데이터뱅크, 2002-한홍택 2, 작품 1점 당 평균 사이즈 130x190 pixel, 흑백, 18.4K <http://www.designdb.com/history/index1.html>

그림 113. 코리아디자인2008에 선정된 52개 품목 <http://www.designdb.com/exhibit/exhibitionView.asp?eId=8458&eGb=1>

그림 114. Korea Design Heritage 2008 전시 포스터

그림 115. Korea Design Heritage 2008 전시 /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2676633>

그림 116. Korea Design Heritage 2008, 쿠푸밥술(1998), 철가방, 돌침대(1990년대) <http://www.designdb.com/exhibit/exhibitionView.asp?eId=8458&eGb=1>

그림 117. 서울디자인자산전(2010)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info_id=51097

그림 118. 서울디자인자산전 2010 / 서울디자인재단

그림 119. 서울디자인자산전, 홍대앞 / 디자인하우스

그림 120. 서울디자인자산전에서 관객의 인터랙션 참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029022>

그림 121.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0, 1960년대, 금성라디오 http://www.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blog&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5&pkid=9879&Category=&page=98

그림 122.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0, 1970년대 아폴로가전, 오리표 싱크대, 포니, 담배

<http://www.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blog&MenuCode>

=&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5&pkid=9879&Category=&page=98

그림 123.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0, 1980년대, 안상수체, 호돌이

http://www.designdb.com/dtrend/trend.r.asp?order=new&dStyle=blog&MenuCode=&keyword=&relation_keyword=&menupkid=235&pkid=9879&Category=&page=98

그림 124.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1, 뉴욕 전시 1 <https://www.flickr.com/photos/kcdf/sets/72157626397779227/>

그림 125.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1, 뉴욕전시 3 <https://www.flickr.com/photos/kcdf/sets/72157626397779227/>

그림 126. 코리아 디자인 헤리티지 2011, 뉴욕전시 4 <https://www.flickr.com/photos/kcdf/sets/72157626397779227/>

그림 127.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표지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28.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1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29.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2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30.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목차3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31. 월간디자인 vol.1 창간호 표지 / <http://library.designhouse.co.kr/design/>

그림 132. 월간디자인 vol.1 창간사 / <http://library.designhouse.co.kr/design/>

그림 133. 월간디자인 vol. 400 / <http://library.designhouse.co.kr/design/>

그림 134. 월간디자인 vol. 445 / <http://library.designhouse.co.kr/design/>

그림 135. 디자인포장 창간호 / 사진 나성숙

그림 136. 산업디자인 vol.165 / <http://www.designdb.com>

그림 137. design db vol. 132, 181, 155 / 사진 이수진

그림 138. WD(world design) 창간호 / 사진 이수진

그림 139. COSMA vol. 11 / 사진 이수진

그림 140. D+ vol. 1 창간호 / <https://www.kcdf.kr/kcdf/main/userMain/main.do>

그림 141. D+ vol 4 / <https://www.kcdf.kr/kcdf/main/userMain/main.do>

그림 142. 디자인네트 vol. 72 / 사진 이수진

그림 143. 디자인네트 vol. 145 / 사진 이수진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44. 外國(외국)것 본뜬 것, 경향신문5면, 1966.08.10

그림 145. 디자인時代(시대), 경향신문5면 1967.06.26.

그림 146. 산업디자인 현재에서 미래까지-서울 속 영국 600, 매일경제 1994.10.16.

그림 147. 안그라픽스의 바바프로젝트, 왼쪽 위부터 조영제, 권명광, 윤호섭, 이성표, 안상수, 김현, 서기훈 / 안그라픽스

그림 148. 그래픽디자이너인 김교만의 공예작품, 혼합재료, 유족 소장

그림 149. 에너지' 를 주제로 한 KOGDA창립전 도록, 표지 디자인 류재우 / KOGDA창립전 도록

그림 150. 안상수, '에너지' 를 주제로한 KOGDA 창립전에 출품한 작품 / KOGDA창립전 도록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http://www.vam.ac.uk/>

그림 151.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전경

그림 152.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내부 1

그림 153.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내부 2

그림 154.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수장고 1

그림 155.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수장고 2

[대영박물관] www.britishmuseum.org/

그림 156. 대영박물관 전경

그림 157. 대영박물관 자료실

그림 158. 대영박물관 내부 1

그림 159. 대영박물관 내부 2

[런던 디자인 뮤지엄] <https://designmuseum.org/>

그림 160.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아카이브 전경

그림 161. 런던 디자인 뮤지엄 내부 1

그림 162. 런던 디자인 뮤지엄 내부 2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그림 163.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검색 화면 <http://arts.brighton.ac.uk/collections/design-archives>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http://www.stedelijk.nl/en>

그림 164.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전경

그림 165.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수장고

그림 166.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네덜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델란드 건축연구소] <http://hetnieuweinstituut.nl>

그림 167. 네델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델란드 건축연구소 전경

그림 168. 네델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델란드 건축연구소 내부 1

그림 169. 네델란드 디자인 패션협회 + 네델란드 건축연구소 내부 2

[네델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그림 170. 네델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검색 사이트

<http://www.geheugenvannederland.nl/?/en/instellingen/>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그림 171.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검색 사이트

http://english.rkd.nl/Databases/Designer_Archives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http://die-neue-sammlung.de>

그림 172.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전경

그림 173.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내부 1

그림 174.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내부 2

그림 175.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3

그림 176.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4

[국립독일박물관] <http://www.deutsches-museum.de/en/information>

그림 177. 국립독일박물관 내부 1

그림 178. 국립독일박물관 내부 2

[뮌헨 BMW 박물관] <http://www.bmw-welt.com>

그림 179. 뮌헨 BMW 박물관 내부 2

그림 180. 뮌헨 BMW 박물관 전경

그림 181. 뮌헨 BMW 박물관 내부 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182. 뮌헨 BMW 박물관 내부 3

그림 183. 뮌헨 BMW 박물관 내부 4

[Benz 박물관]

<https://www.mercedes-benz.com/en/mercedes-benz/classic/museum/>

그림 184. Benz 박물관 전경 1

그림 185. Benz 박물관

그림 186. Benz 박물관 내부

그림 187. Benz 박물관 소장품

그림 188. Benz 박물관 내부 전시

그림 189. Benz 박물관 내부 전시 2

그림 190. Benz 박물관 소장품

[독일미술공예박물관] <http://www.mkg-hamburg.de/en/>

그림 191. 독일미술공예박물관 전경

그림 192. 독일미술공예박물관 내부 1

그림 193. 독일미술공예박물관 내부 2

그림 194. 독일미술공예박물관 내부 3

그림 195. 독일미술공예박물관 소장품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http://www.triennale.org/en/>

그림 196.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전경

그림 197.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내부 1

그림 198.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내부 2

그림 199.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내부 3

그림 200.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http://www.mqw.at/>

그림 201.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전경

그림 202.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내부 1

그림 203.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내부 2

그림 204. 오스트리아 스크바티어 빈 박물관 내부 3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프랑스 퐁피두 센터] <https://www.centrepompidou.fr/en>

그림 205. 프랑스 퐁피두 센터 전경

그림 206. 프랑스 퐁피두 센터 내부 1

그림 207. 프랑스 퐁피두 센터 내부 2

그림 208. 프랑스 퐁피두 센터 내부 3

그림 209. 프랑스 퐁피두 센터 내부 4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http://www.designmuseumgent.be/ENG/whats-new.php>

그림 210.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전경

그림 211.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1

그림 212.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2

그림 213.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3

그림 214.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내부 4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http://www.museum-gestaltung.ch/en/>

그림 215.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소장품 1

그림 216.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소장품 2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MUDE] <http://www.mude.pt/>

그림 217.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전경

그림 218.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내부 1

그림 219.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내부 2

그림 220.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내부 3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http://www.cooperhewitt.org/>

그림 221.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전경

그림 222.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내부 1

그림 223.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내부 2

그림 224.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소장품들

그림 225.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소장품들 2

[뉴욕 현대 미술관] <http://www.moma.org/>

그림 226. 뉴욕 현대 미술관 입구

그림 227. 뉴욕 현대 미술관 내부 1

그림 228.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품 1

그림 229. 뉴욕 현대 미술관 내부 1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http://lubalincenter.cooper.edu/>

<https://www.flickr.com/photos/lubalincenter/>

그림 230.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1

그림 231.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2

그림 232.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3

그림 233.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내부 4

그림 234.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수장고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http://vignellcenter.rit.edu/>

그림 235.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의 기증자

그림 236.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전경

그림 237.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내부 1

그림 238.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내부 2

그림 239.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내부 3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http://mauml.musabi.ac.jp/en/>

그림 240.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수장고

그림 241.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아카이브

그림 242.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실외

그림 243.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내부 1

[인쇄박물관] <http://www.printing-museum.org>

그림 244. 인쇄박물관 입구

그림 245. 인쇄박물관 소장품들

[21_21 Design Sight] <http://www.2121designsight.jp/en/>

그림 246.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21_21 박물관 전경 1

그림 247.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21_21 박물관 전경 2

그림 248. 21_21 내부 1

그림 249. 21_21 내부 2

그림 250. 21_21 내부 3

그림 251. 21_21 내부 4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http://www.dnp.co.jp/foundation_e/archives/

그림 252.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검색 화면

그림 253.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 1

그림 254.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 2

그림 255.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 3

그림 256.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의 아카이빙 과정 1

그림 257.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아카이빙 과정 2

그림 258.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의 소장품 전시 1

그림 259.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소장품 전시 2

그림 260. DNP 그래픽 디자인 후쿠다 시게오 아카이브 1

그림 261.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의 후쿠다 시게오 작품 전시

[한국근현대디자인사 흐름 및 주요 이슈]

그림 262. 임숙재, 서봉급식부공예품 도안, 1928, 종이에 채색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그림 263. 이순석, 인생학, 1931, 종이에 채색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그림 264. 행남사, 식기세트(일괄), 1940초-1950중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그림 265. 멜로디 상표(1948)와 ABC 포마드(1951) / 미의 여정-샘 내 강 바다, 아모 레퍼시픽, 2008

그림 266. 신성공예사의 수출공예품 도록, 1950년대 / 한국현대 공예사의 이해, 재원, 1996

그림 267. 한홍택, 유한양행 소화 광고, 1940년대 / 한홍택작품집, 1988

그림 268. 한홍택, 관광포스터 2, 1949 / 한홍택작품집, 1988

- 그림 269. 한홍택, 모던디자인전 전시도록, 1958
- 그림 270. 국내 최초 진공관 5구 라디오, 골드스타 A-501, 1959 / 한국의 디자인, 디폴, 2008
- 그림 271. 국내 최초 선풍기, D-301, 1960 / 한국의 디자인, 시지락, 2005
- 그림 272. 백태원, 장식장, 1960, 나전칠기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 그림 273. 백태원 개인전 포스터, 1957 /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_한국 근대 공예사론, 미술문화, 2008
- 그림 274. 민철홍, 아악기상감파반, 1959년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 그림 275. 권순형, 칼라톤, 스크린톤을 사용한 포스터, 1960 / 디자인 문화비평 1(우상허상 파괴), 안그라픽스, 1999
- 그림 276. 김교만, 수난, 1959, 혼합재료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가족 소장
- 그림 277. 이순석, 수반, 1960년대, 대리석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 그림 278. 박대순, 1960년대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 그림 279. 유강열, 해풍, 1956, 납염 / 근대를 보는 눈 : 한국 근대미술 :공예, 열과알, 1999
- 그림 280. 양승춘, 제2회 프리즘 그래픽 디자인전 출품 포스터, 1968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60&contents_id=54154
- 그림 280. 제 4회 프리즘그래픽전 전시장, 1971.04.13. 경향신문 5면
- 그림 281. 제 2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포스터 표절 비판 기사, 1967. 08. 26. 자경향신문 5면
- 그림 282. 가족계획 계몽 달력, 1968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그림 283. 권명광, 가족계획포스터, 제19회 대산업미술가협회 출품작, 1968 / 權明光 : Designing the future of Korea since 1965, 시공사, 2002
- 그림 284. 삼성냉장고 SR-196D, 월간디자인 1985년 8월호
- 그림 285. 해태제과 디자인실의 디자이너, 왼쪽부터 김태중, 김관영, 장윤희, 전후연, 박우덕, 이면희, 신정필, 정병규, 이난규, 임동성, 윤웅전 / 월간디자인 통권 16
- 그림 286. 해태제과의 1960년대 생산제품 / 월간디자인 통권 16
- 그림 287. 해태제과 디자인실 제품, 1960-1970년대 / 월간디자인 통권 16
- 그림 28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http://biketago.com/etc/?m=view&id=50>

그림 289. KSVD 계몽포스터전 기획 기사, 매일경제 1982.7.19.자 기사

그림 290. 민철홍, KSID 창립전 출품작, 좌 머리말 조명등, 우, 스프링쿨러, 1972
<https://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Column.asp?gubun=0&oDm=3&page=1&bbsPKID=21162>

그림 291. 박재진, 서린호텔, 1973 /
<http://www.designdb.com/ddata/dataImageCateList02.asp?page=471&cat=&category=&sGb=&sText=&recStart=&recEnd=&oDm=&oDCd=&pSize=20&search=&step1=3&step2=242&step3=&step4=>

그림 292. 조영제, OB맥주 심볼마크, 1974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60&contents_id=52475

그림 293. 권명광, 대웅제약 로고, 1979 / 權明光 : Designing the future of Korea since 1965, 시공사, 2002

그림 294. 조영제, 테코마스전, 1976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60&contents_id=52475

그림 295. 현대자동차의 독자적인 모델, 포니, 1976 http://blog.hyundai.co.kr/Group-Story/Culture/hyundai-PONY-stroy.blg#.VcRg5mcw_4Y

그림 296. 프로 출범 당시 6개 구단 엠블럼, 1982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1/10/10/201110100500016/201110100500016_1.html

그림 297. 조영제, 1988서울올림픽포스터, 1988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60&contents_id=52475

그림 298. 김현, 19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1988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60&contents_id=56061&leafId=60

그림 299. 1990년대까지의 한국의 주요 CI / 월간 디자인 통권 340

그림 300. 금성디자인종합연구소, 1983 / 한국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2013

그림 301. 부수언 가구디자인전, 좌, BS34, 우, BD80, 월간디자인 통권 13호

그림 302. 18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우수봉의 '사무처리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퍼니처 디자인', 1987, http://kde.kidp.or.kr/award/history.asp?s_count=18

그림 303. 안상수, 안상수체, 1985 / 생활의 디자인, 현실문화연구, 2011

그림 304. 'energy'를 주제로 한 KOGDA 창립전 도록 표지, 1984 / KOGDA 창립전 도록

그림 305. 서기훈, '한국원 멋'을 주제로 한 제4회 KOGDA 회원전 출품, 1987 / 제4회 KOGDA 회원전 도록

그림 306. 중앙일보 색션 신문, 1995 / 한국의 디자인, 시지락, 2005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그림 307. 조선일보 색션화, 가로짜기와 확대된 칼라지면, 1996 / 한국의 디자인, 시지락, 2005

그림 308. 진달래가 참여했던 <뽀-아메리칸 스탠다드> 전시의 한 장면, 1995 / 월간 디자인 통권 413

그림 309. SK텔레콤 TTL 광고, 감독 박명천 / 월간 디자인 통권 272

그림 310. SK텔레콤 TTL 매거진 / 월간 디자인 통권 400

그림 311. 1999년 다음 메인 화면(1995.2 창립) 1999년 네이버 메인 화면(1999. 6 창립)/ 월간 디자인 통권 413

그림 312. 삼성애니콜 SCH-A100, 1999

<http://samsungtomorrow.com/%EC%82%BC%EC%84%B1%EC%A0%84%EC%9E%90-45%EB%85%84-%EC%A0%9C%ED%92%88-%ED%98%81%EC%8B%A0%EC%9D%98-%EC%97%AD%EC%82%AC%EB%A5%BC-%EB%8F%8C%EC%95%84%EB%B3%B4%EB%8B%A4-1%ED%8E%B8-%ED%9C%B4%EB%8C%80>

그림 313. ‘mmmng’ 브랜드의 디자인 오피스 제품 / 월간 디자인 통권 400

그림 314. 한국디자인진흥원_코리아디자인센터 /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2011

그림 315. 공공디자인_가로판매대 /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2011

그림 316. 공공디자인_도로변 분전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2011

그림 317. 공공디자인_버스정류장 /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2011

그림 318. iriver mp3, iFP-180T, 2002

그림 319. LG전자 초콜릿폰(LG-SV590), 2005 / 월간 디자인 통권 381

그림 320. 갤럭시 s, 삼성전자, 2010 <http://www.samsung.com/sec/news/local/samsung-electronics-galaxy-s-s2-5-thousand-break>

그림 321. 갤러리아백화점, 파사드디자인 / 월간 디자인 통권 400

그림 322. 기아자동차 K5, 2010 <http://www.kia.com/kr/about-kia/prcenter/news-view.html?sc.newsSeq=BX00001327>

그림 323. 현대카드 디자인 / 월간 디자인 통권 400

그림 32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왼쪽부터 1회~5회 http://www.gwangjubiennale.org/gdb/past/intro/?no=1&mode=view&BN_IDX=42&p=1

그림 325. 액션서울, 파머스 파티 / www.actionseoul.com

그림 326. 슬기와 민, Poster, Three Questions on Death, 2014 www.sulki-min.com

그림 327. 워크룸, 삼국유사 연극만발 5 -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2014 / www.workroom.kr

그림 328.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주요 아젠다와 인물, 내용 권명광 / 권명광

그림 329. 인물 중심의 근현대한국디자인 변화 / 이수진

그림 330. 한국디자인자료 보존 현황과 이유 / 이수진

그림 331. 디자인 자료보존에 따른 전문 디자인박물관·아카이브의 필요성 / 이수진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표목록

- 표 1. 연도별 기증현황
- 표 2. 국내 자료 보존 현황 조사 결과
- 표 3. 공공기관의 디자인 사료 연구사업의 비교
- 표 4. 홍익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디자인 정기간행물
- 표 5. 연도별 디자인계 주요 사건
- 표 6. 한국근현대디자인사 주요 아젠다에 등장하는 인물 요약
- 표 7. 한국근현대디자인사 대담 및 인터뷰 가능성 높은 디자이너
- 표 8. 연도별 만화·애니메이션계 주요 사건
- 표 9. 연도별 패션계 주요 사건
- 표 10. 연도별 건축계 주요 사건
- 표 11. 연도별 정치·문화·사회의 주요 사건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국내 박물관 자료 출처(내용, 이미지) :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국립한글박물관 www.hangeul.go.kr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 jikjiworld.cheongju.go.kr

한국광고박물관 admuseum.kobaco.co.kr

광고도서관 : <http://adlib.kobaco.co.kr/>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

MOA(서울대미술관) www.snumoa.org

근현대디자인박물관 <http://www.designmuseum.or.kr>

삼성출판박물관 www.ssmop.org

스페이스C www.spacec.co.kr

호림박물관 <http://horimmuseum.org/sinsa>, <http://horimmuseum.org/sillim>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http://www.storygarden.amorepacific.com>

서울디자인박물관 http://www.hanssem.com/design/designCenter.do?stats=COM_MAIN_COMMON_SITE_MAP_0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9064&cid=43128&categoryId=43128>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MI) www.samsunginnovationmuseum.com

현대모터스튜디오 <http://motorstudio.hyundai.com/ko/main/index.do>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국외 박물관 & 아카이브 자료 출처(내용, 이미지) : 홈페이지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http://www.vam.ac.uk/>

대영박물관 www.britishmuseum.org/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7889

영국 런던 디자인 뮤지엄과 아카이브 <https://designmuseum.org/>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http://arts.brighton.ac.uk/collections/design-archives>

네덜란드 스테델릭 현대미술관 <http://www.stedelijk.nl/en>

Het Nieuwe Instituut <http://hetnieuweinstituut.nl/>

https://en.wikipedia.org/wiki/Stedelijk_Museum_Amsterdam

네덜란드 그래픽디자인 아카이브

<http://www.geheugenvannederland.nl/?/en/instellingen/>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이브 중앙등록소

http://english.rkd.nl/Databases/Designer_Archives

독일 뮌헨 국제 디자인 박물관 <http://die-neue-sammlung.de/>

국립독일박물관 <http://www.deutsches-museum.de/en/informatio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7484&cid=43128&categoryId=43128>

뮌헨 BMW 박물관 <http://www.bmw-welt.com>

Benz 박물관 <https://www.mercedes-benz.com/en/mercedes-benz/classic/museu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87007&cid=40942&categoryId=34684>

독일미술공예박물관 <http://www.mkg-hamburg.de/en/>

https://en.wikipedia.org/wiki/Museum_f%C3%BCr_Kunst_und_Gewerbe_Hamburg

이탈리아 트리에날레 밀라노 디자인박물관 <http://www.triennale.org/en/>

오스트리아 미술움콰트리에 빈 박물관 <http://www.mqw.at / www.mumok.at/>

<http://www.leopoldmuseum.org>

프랑스龐피두 센터 <https://www.centrepompidou.fr/e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2792&cid=42864&categoryId=50859>

벨기에 겐트 디자인 박물관 <http://www.designmuseumgent.be/ENG/whats-new.php>

스위스 취리히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컬렉션 <http://www.museum-gestaltung.ch/en/>

https://en.wikipedia.org/wiki/Museum_of_Design,_Z%C3%BCrich
포르투갈 리스본 디자인 패션박물관 <http://www.mude.pt/>
쿠퍼 휴이트 국립 디자인 박물관 <http://www.cooperhewitt.org/>
뉴욕 현대 미술관 <http://www.moma.org/>
https://en.wikipedia.org/wiki/Museum_of_Modern_Art
쿠퍼유니온대학, 허브 루발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연구센터
<http://lubalincenter.cooper.edu/>
허브루발린연구소 <https://www.flickr.com/photos/lubalincenter/>
로체스터기술대학 비넬리 디자인센터 <http://vignellicenter.rit.edu/>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관&도서관 <http://mauml.musabi.ac.jp/en/>
인쇄박물관 <http://www.printing-museum.org>
21_21 <http://www.2121designsight.jp/en/>
DNP 그래픽 디자인 아카이브 http://www.dnp.co.jp/foundation_e/archives/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자문위원

권명광(상명대학교 석좌교수, 명예철학박사)

연구책임자

이수진(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 미술학박사)

연구원

박완선(서일대학 외래교수, 미술학박사)

이영미(상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미술학박사)

박화진(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무국장, 미술학박사)

이해나(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석사과정)

김현우(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상증강현실학과 석사과정)

발행일

2015. 7. 31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